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音樂博士學位論文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

2013年 8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音樂科 國樂器樂專攻

허익수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

지도교수 김 우 진

이 논문을 음악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기악전공

허 익 수

허익수의 음악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백낙준에 의해 형성된 거문고산조는 이후 그의 제자인 김종기, 박석기, 신쾌동, 안기옥 등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현대 거문고산조의 유파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거문고산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낙준의 거문고 가락은 유성기 음반 3장을 통해서만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3장의 음반에 수록된 음원은 ‘진양-중모리-엇모리-잔모리’ 장단으로 구성된 약 13분 길이의 거문고산조이다. 그러나 백낙준이 직접 실연(實演)하여 전하는 음반 음원 외에도 전승자들 사이에 전하는 백낙준 거문고산조 가락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낙준이 전하는 거문고산조 음원의 선율과 후대 거문고산조 명인들의 선율을 비교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문고산조의 시조인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생애사를 검토하여, 박석기, 안기옥,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은 백낙준에게 직접 사사받은 수직적 사승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박석기의 제자인 한갑득과 안기옥의 제자인 김용실의 사승관계도 확인하였다.

둘째, 1단계 선율비교분석으로서, 백낙준이 음원으로 남긴 선율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을 일대일 비교하여 진양조 301장단, 중모리 107장단, 자진모리 968장단의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을 얻었다.

셋째, 백낙준 원형선율을 추출하기 위한 2단계 선율비교분석으로서, 1단계 선율비교를 통해 추출해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을 남한의 연주자군, 즉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과 북한의 연주자군, 즉 안기옥, 김용실로 양분하여 비교함으로써 동일선율을 가려내었다. 그 결과, 진양조 18장단, 중모리 3장단, 자진모리 57장단의 백낙준 원형선율을 추출할 수 있었다.

넷째, 추출해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백낙준이 유성기 음반 음원으로 남긴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하기 위해, 음악적 구성단위요소들을 고려하여 백낙준 원형선율 중 백낙준의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 가능한 선율들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진양조 17장단 중모리 3장단, 자진모리 28장단의 백낙준 거문고산조 원형선율을 선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별한 백낙준 거문고산조 원형선율을 조, 궤법, 궤의 이동경로, 선율의 음악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 전승선율 속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진양조 79장단, 중모리 70장단, 자진모리 146장단으로 이루어진 백낙준 거문고산조를 재구성하였다.

백낙준이 남긴 유성기 음반 음원이 그가 당시에 연주했을 거문고산조의 모든 선율을 담고 있진 않을 것이라 추측은 하면서도, 마땅한 연구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기존에는 백낙준이 남긴 음원 속의 선율만을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선율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백낙준의 음원에는 담겨 있지 않으나, 백낙준의 제자 및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 속에 남아있던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밝혀내었고, 이로 인해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및 후대 연주자들의 음악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백낙준, 거문고산조,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학 번 : 2009-30490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5
4. 연구범위	6
II. 본론	11
1.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의 사사관계 고찰	11
1) 백낙준(白樂俊, 1844~1933)	12
2) 안기옥(安基玉, 1894~1974)	13
3) 김용실(金溶實, 1940~)	14
4) 김종기(金宗基, 1902~1940)	15
5) 임석윤(林錫潤, 1908~1975)	16
6) 신쾌동(申快童, 1910~1977)	18
7) 한갑득(韓甲得, 1919~1987)	19
2.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의 선율비교	21
1) 백낙준과 안기옥	21
2) 백낙준과 김용실	26
3) 백낙준과 김종기	32
4) 백낙준과 임석윤	34
5) 백낙준과 신쾌동	42
6) 백낙준과 한갑득	51

3. 백낙준 원형선율 추출	62
1) 진양조	62
2) 중모리	83
3) 자진모리	88
4. 백낙준 원형선율 재구성	125
1) 진양조	125
2) 중모리	134
3) 자진모리	137
 Ⅲ. 결론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52
참고악보	155

〈표 차 례〉

[표 1] 연구대상 자료 목록	9
[표 2]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전승 계보	11
[표 3]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비교	23
[표 4]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23
[표 5] 백낙준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비교	24
[표 6] 백낙준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25
[표 7]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자진모리 비교	25
[표 8]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 비교	27
[표 9]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28
[표 10] 백낙준과 김용실의 중모리 비교	29
[표 11] 백낙준과 김용실의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29
[표 12] 백낙준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비교	30
[표 13] 백낙준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31
[표 14]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	31
[표 15] 백낙준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비교	33
[표 16] 백낙준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34
[표 17]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 비교	36
[표 18]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36
[표 19] 백낙준과 임석윤의 중모리 비교	38
[표 20] 백낙준과 임석윤의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39
[표 21] 백낙준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비교	40
[표 22] 백낙준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41
[표 23]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	41
[표 24] 백낙준과 신쾌동의 진양조 비교	44
[표 25] 백낙준과 신쾌동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45
[표 26] 백낙준과 신쾌동의 중모리 비교	46
[표 27] 백낙준과 신쾌동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47

[표 28] 백낙준과 신채동의 자진모리 비교	49
[표 29] 백낙준과 신채동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50
[표 30] 백낙준과 신채동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	51
[표 31]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 비교	53
[표 32]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54
[표 33] 백낙준과 한갑득의 중모리 비교	55
[표 34] 백낙준과 한갑득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56
[표 35] 백낙준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비교	57
[표 36] 백낙준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58
[표 37]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	59
[표 38]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의 동일선율 및 원형선율 비교	60
[표 39] 안기옥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63
[표 40] 김용실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 25장단과 임석윤·신채동·한갑득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63
[표 41]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83
[표 42] 김용실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9장단과 임석윤·신채동·한갑득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84
[표 43]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87
[표 44] 안기옥의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 50장단과 김종기·임석윤·신채동· 한갑득의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 비교	89
[표 45] 안기옥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 선율 비교	90
[표 46] 김용실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종기·임석윤·신채동·한갑득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91
[표 4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	124
[표 48]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	126
[표 49]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재구성	134
[표 50] 백낙준 전승선율의 중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	134

[표 51]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재구성	136
[표 52] 백낙준 전승선율의 자진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	137
[표 5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재구성	146

<악 보 차 례>

[악보 1] 백낙준의 진양조 제5~8장단과 안기옥의 진양조 제5~8장단	22
[악보 2]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07~109장단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제9~11장단 ·	24
[악보 3] 백낙준의 진양조 제9~12장단과 김용실의 진양조 제17~20장단	26
[악보 4] 백낙준의 중모리 제1~4장단과 김용실의 중모리 제3~6장단	28
[악보 5]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07~109장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제53~55장단 ·	30
[악보 6]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1~44장단과 김종기의 자진모리 제17~20장단 ·	32
[악보 7] 백낙준의 진양조 제17~20장단과 임석윤의 진양조 제16~19장단 ·	35
[악보 8] 백낙준의 중모리 제27~30장단과 임석윤의 중모리 제30~33장단 ·	37
[악보 9]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5~48장단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제18~21장단 ·	39
[악보 10] 백낙준의 진양조 제37~40장단과 신쾌동의 진양조 제65~68장단	43
[악보 11] 백낙준의 중모리 제31~34장단과 신쾌동의 중모리 제28~31장단 ·	45
[악보 12]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68~71장단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제80~83장단 ·	48
[악보 13] 백낙준의 진양조 제47~50장단과 한갑득의 진양조 제213~216장단 ·	52
[악보 14] 백낙준의 중모리 제40~43장단과 한갑득의 중모리 제59~62장단 ·	54
[악보 15]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9~52장단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제49~52장단 ·	56
[악보 16]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	65
[악보 17]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	66
[악보 18]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3장단	67
[악보 19]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4장단	68
[악보 20]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5장단	69
[악보 21]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6장단	70
[악보 22]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7장단	71
[악보 23]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8장단	72

[악보 24]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9장단	73
[악보 25]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0장단	74
[악보 26]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1장단	75
[악보 27]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2장단	76
[악보 28]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3장단	77
[악보 29]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4장단	78
[악보 30]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5장단	79
[악보 31]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6장단	80
[악보 32]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7장단	81
[악보 33]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8장단	82
[악보 34]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1장단	85
[악보 35]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2장단	86
[악보 36]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3장단	87
[악보 3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장단	93
[악보 3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장단	94
[악보 3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장단	95
[악보 4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장단	96
[악보 4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5장단	96
[악보 4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6장단	97
[악보 4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7장단	98
[악보 4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8장단	98
[악보 4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9장단	99
[악보 4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0장단	100
[악보 4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1장단	101
[악보 4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2장단	101
[악보 4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3장단	102
[악보 5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4장단	103
[악보 5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5장단	103
[악보 5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6장단	105

[악보 5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7장단	105
[악보 5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8장단	106
[악보 5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9장단	106
[악보 5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0장단	107
[악보 5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1장단	107
[악보 5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2장단	108
[악보 5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3장단	109
[악보 6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4장단	109
[악보 6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5장단	110
[악보 6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6장단	110
[악보 6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7장단	111
[악보 6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8장단	111
[악보 6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9장단	112
[악보 6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0장단	112
[악보 6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1장단	113
[악보 6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2장단	114
[악보 6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3장단	114
[악보 7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4장단	115
[악보 7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5장단	115
[악보 7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6장단	116
[악보 7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7장단	116
[악보 7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8장단	117
[악보 7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9장단	118
[악보 7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0장단	118
[악보 7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1장단	119
[악보 7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2장단	119
[악보 7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3장단	120
[악보 8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4장단	120
[악보 8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5장단	121

[악보 8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6장단	121
[악보 8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7장단	122
[악보 8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8장단	122
[악보 8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9장단	123
[악보 86]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0~22장단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2	129
[악보 87]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7~28장단 및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3	130
[악보 88]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40장단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	131
[악보 89]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40장단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	133
[악보 90]	백낙준 중모리 전승선율 제63장단, 제64장단과 백낙준 중모리 원형선율 부분 1	136
[악보 91]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93장단, 제94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3	139
[악보 92]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25장단, 제26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4	141
[악보 93]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71장단, 제72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7	143
[악보 94]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66장단, 제67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10	145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거문고산조는 1914~1918년경 백낙준에 의해 완성된 이후, 그의 제자 김중기, 박석기, 신채동, 안기옥 등에 의해 전승되었다.¹⁾ 이 1대 제자 가운데 박석기는 한갑득에게 전수, 안기옥은 김용실에게 전수하여, 현대 거문고산조의 여러 유파가 존재하고 있다.

거문고산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오직 세 장의 유성기 음반²⁾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장의 음반에는 ‘진양-중모리-엇모리-잔모리’ 장단으로 구성된 약 19분가량의 짧은 형태의 산조가 3분여 길이로 나뉘어 녹음되어 있다. 당시의 유성기 음반은 한 면당 녹음할 수 있는 음원의 길이가 약 3분여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³⁾ 녹음 당시 백낙준은 연주에 있어 시간적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현재 전해지는 유성기 음반 3장에 모두 담겨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은 남겨진 음원보다 그 내용이 더 풍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쟁점은 현재 전하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음반 음원을 통해 제기된다. 첫째, 백낙준 유성기 음반의 음원에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진양조 선율은 보편적으로 연주되는 진양조의 시가보다 조금 빠르게 녹음되어 있으나, 우조·평조·계면조 선율이 모두 전개 진행되어 있어, 현행 신채동과 한갑득 유파의 거문고산조에 출현하는 선율과 다수 중복되는 선율이다. 이에 초대 백낙준에서 2대, 3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의 거문고

1)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6권, 서울 : 한국음악사학회, 2006.

2) Victor 49055(420) A,B 현금산조 진양 상,하 (3'19", 3'16")

Victor 49056(420) A,B 현금산조 중모리 상,하 (3'17", 3'22")

Victor 49057(421) A,B 현금산조 엇모리, 잔모리 (3'11", 3'1")

3) 유성기음반은 통상 1분간 회전수가 78회전이며, 셀락(shellac)으로 만들어진 음반이다. 음반 한 면당 녹음시간은 대략 3분에서 3분 30초 정도이다. 그러므로 긴 곡일 경우 일부만 녹음하거나 여러 음반에 나누어 녹음하였다. (손태룡, 『한국음악논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550쪽. 참조)

산조의 선율별 혹은 유파별 유전성을 변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음반 중 한 면에는 엇모리에 뒤이어 자진모리 선율이 함께 녹음되어 있다. 이는 녹음 당시 백낙준이 보다 많은 거문고산조 선율을 음반에 담고자 상대적으로 선율이 적은 엇모리에 붙여 자진모리를 보다 길게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세 장의 유성기 음반뿐이지만, 백낙준의 제자들이 그의 맥을 이어 후대 산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와 같이 백낙준의 선율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음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백낙준의 제자들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거문고산조 선율에는 서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락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간에 나타나는 공통된 선율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연주자들은 관습적으로 산조의 선율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선율에 대한 고유 창작자를 분명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선율의 창작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둘째, 선율 비교를 함에 있어서 해당 선율이 거문고 연주자와 다른 악기 연주자들 사이의 교류로 인해 생긴 가락인지, 거문고 연주자들만의 고유의 선율인지 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음원과 후대 거문고산조 명인들의 선율을 비교하되, 연주자간의 교류와 연주공간의 이분상황을 고려하여 비교함으로써 백낙준이 음원으로는 전하지 않은,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 속에 담겨진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⁴⁾을 찾아내어 재구성하고자 한다.

거문고산조에 관련한 선행 연구자들은 주로 동일선율을 추출하고, 비동일선율을 선별하여 각 유파별 거문고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증빙해왔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 유파별 혹은 전승자별로 동일선율을 추출하

4) 본고에서는 백낙준이 녹음하여 전하는 음반 음원을 ‘전승선율’이라 하고, 백낙준의 선율과 후대 산조연주자들의 선율을 비교했을 때 후대 산조연주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선율을 ‘원형가능선율’이라 하며, 후대 산조연주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선율들을 서로 비교하여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율을 ‘백낙준 원형선율’ 또는 ‘원형선율’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유전자를 선별함으로써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확보하려 한다. 이는 거문고산조의 초기 음악사학적 고찰로서 거문고산조 연구에 일조하려 함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백낙준이라는 인물을 조명한 연구⁵⁾, 둘째,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에 대한 연구⁶⁾, 셋째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와 현존하는 여러 류파로 전승되고 있는 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⁷⁾ 등이다.

첫째, 백낙준에 대해 조명한 선행 연구로는 김우진의 연구⁸⁾가 있다. 백낙준에 대한 기존의 정보가 단편적이었다면, 김우진은 다양한 사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백낙준의 생몰 연대, 가족관계, 거주지, 외모와 성격, 거문고산조의 창작 과정, 제자 양성, 공연 및 녹음 활동까지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에 대한 연구로는 이해경의 연구⁹⁾가 있다. 이해경은 백낙준의 산조 음반을 중심으로 거문고산조의 청(淸) 구성에

5)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5집, 한국음악사학회, 2005, 175-208쪽.

6) 이해경, “거문고산조의 청구성에 관한 연구-백낙준 산조 음반을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6호, 한국고음반학회, 1996.

7) 김영임,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의 내드름 연구-진양조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우진, “근현대 한국음악가의 음악사적 업적 조명”, 『한국음악사학보』 제47집, 한국음악사학회, 2011.; 도경태,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현행 거문고산조의 선율비교 연구 - 자진모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세희, “안기옥 거문고산조 연구-진양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변성금,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후대 산조의 선율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송방송, “거문고명인 백낙준과 가야금명인 정남희의 공연양상-일제강점기의 방송, 음반,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11호, 한국고음반학회, 2001.; 유미영, “안기옥 거문고산조의 검토-조선레코드 안기옥 거문고산조 입수-”, 『한국음반학』, 제19호, 한국고음반학회, 2009.; 유영주, “거문고산조의 한갑득류와 임석윤·김윤덕·김용실류 선율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재화,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김종기 거문고산조 단머리 연구”, 『한국음반학』 제4호, 한국고음반학회, 1994.; 이해경, “임석윤 거문고산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주은혜, “북한 김용실 거문고산조의 분석적 연구-남한 신쾌동류 산조와의 선율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 김우진(2005), 전거서

9) 이해경(1996), 전거서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거문고산조의 악장구성은 백낙준 산조의 악장구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청이 변하는 부분은 현행 거문고산조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거문고산조를 구성하는 청의 변화는 이미 백낙준에 의해 확립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 앞서 이해경은 임석윤의 거문고산조를 백낙준, 한갑득, 신쾌동, 김윤덕류와 비교하여¹⁰⁾, 임석윤 선율의 대부분은 백낙준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분은 한갑득, 신쾌동, 김윤덕에서 영향을 받아 그대로 모방하거나 변화시킨 선율에 임석윤의 독자적인 선율을 첨가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현행 여러 류파로 전승되고 있는 산조의 선율 비교 연구 중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성금은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와 후대 산조 중 신쾌동·한갑득의 선율을 비교한 연구¹¹⁾에서 “신쾌동류와 한갑득류 거문고산조의 뼈대는 백낙준의 가락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며, 백낙준의 가락이 후대에 전승되면서 중중모리처럼 새로운 장단이 추가되기도 하면서, 그의 가락이 원형에 가깝게 수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확대·변화하여 수용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유영주¹²⁾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가장 많이 수용한 한갑득 거문고산조”와 임석윤·김윤덕·김용실류 거문고산조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비교하여 선율의 연관성과 전승 상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영주는 한갑득과 임석윤, 한갑득과 김윤덕, 한갑득과 김용실의 선율 비교를 통해 임석윤은 진양조와 자진모리에서 독창가락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고, 김윤덕은 한갑득의 산조를 그대로 전수하였으며, 김용실의 경우 자진모리에서 독창 선율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주은혜¹³⁾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김용실의 거문고산조와 남한의 신쾌동 거문고산조를 비교함으로써 신쾌동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김용실의 선율을 김용실 개인의 독창적 선율로 해석하였고, 김용실 선율은 전 악장에

10) 이해경(1994), 전계서

11) 변성금, 전계서

12) 유영주, 전계서

13) 주은혜, 전계서

서 반드시 C청 계면조를 거쳐 전조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이상으로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백낙준 거문고산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그가 남긴 음원에 수록된 선율이 백낙준 거문고산조 선율의 전부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음원과 후대 산조를 비교했을 때 백낙준에게는 없는 선율이 나타나면 후대 산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석하거나, 후대 산조들끼리 비교했을 때 특정 류에서 나타나는 선율은 후대의 거문고 연주자의 창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백낙준이 거문고산조의 음원을 녹음하던 당시에는 녹음 시간의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찾지 않은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연구함에 있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방법

백낙준이 음원으로 남긴 거문고산조의 선율 이외에도 더 많은 선율이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에 대한 재고가 된다. 본고에서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후대 거문고산조 명인들의 선율에서 도출해내기 위해 백낙준과 김종기, 안기옥, 신쾌동, 한갑득, 김용실의 거문고산조의 선율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백낙준의 생애를 검토하고, 백낙준과 연관된 후대 거문고산조 명인들의 전적을 찾아 계보 등을 정리하여 거문고산조 선율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자를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1단계 선율비교분석으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와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의 선율을 비교하여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음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로 가능성이 있는 선율, 즉 원형가능

선율을 추출한다.

셋째, 1단계 선율비교를 통해 추출해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 선율을 연주자들의 활동지역에 따라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한 뒤, 양측의 선율을 비교하여 동일선율을 가려내는 2단계 선율비교분석을 한다. 이 2단계 비교를 통해 추출된 동일선율을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로 삼는다.

이 두 단계의 비교를 통하여 추출된 선율을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 선율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후 양측 연주자들의 음악적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며, 교류가 없었던 두 비교대상군 사이에서 동일선율이 나온다면 이 동일선율은 백낙준에게서 전승된 선율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선율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인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의 선율을 각각 비교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을 추출해낸다. 다음 2단계에서는 각각의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 중에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들을 각각 비교하되, 남한의 선율군, 즉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의 선율과, 북한의 선율군인 안기옥, 김용실로 양분하여 선율을 비교한다. 단계별 선율비교를 통하여 얻어진 동일선율을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로 삼는다.

끝으로, 이렇게 얻어진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백낙준이 음반 음원으로 남긴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한다. 조 구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 패의 이동 및 선율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백낙준이 남긴 전승선율에 재배치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4. 연구범위

본고의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후대 거문고산조의 명인은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안기옥, 김용실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백낙준을 사사(師事)한 1대 연주자들은 김종기, 안기옥, 신쾌동¹⁴⁾이고, 2대 제자들은

한갑득과 김용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거문고산조 선율 중 진양조와 중모리, 자진모리의 선율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백낙준에게 직접 사사한 김종기의 거문고산조는 자진모리 선율만 전하고 있어 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신쾌동의 거문고산조는 진양조와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의 선율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중모리의 경우 백낙준이 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남한과 북한의 연주자간의 비교군을 형성했을 때 안기옥과 김용실의 음원에는 엇모리와 휘모리의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엇모리와 휘모리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백낙준을 사사한 연주자로는 김종기, 안기옥, 신쾌동 외에도 박석기가 있지만, 그가 남긴 음원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박석기의 제자인 한갑득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한갑득 거문고산조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안기옥의 거문고산조로는 진양조와 자진모리 선율이 전하고 있는데, 진양조의 경우 3분여 가량의 선율만 전하고 있다. 이는 그의 생존당시에도 녹음기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기옥의 진양조와 자진모리를 연구대상으로 하되, 안기옥의 제자이면서 남한측 연주자와의 교류 흔적이 없는 김용실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도 연구범위에 포함하겠다.

임석윤은 백낙준 사사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이해경¹⁵⁾은 임석윤의 선율과 백낙준의 선율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다음의 두 가지 근거로 임석윤이 백낙준에게서 거문고산조를 사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임석윤의 거문고산조 선율이 백낙준과 연관된 다른 연주자들보다 백낙준의 전승선율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둘째, 임석윤의 거문고산조 선율과 백낙준의 전승선율 중 서로 동일한 선율이 많다. 또한 임석윤을 기억하는 국악계 원로의 증언¹⁶⁾을 통해서도 임석윤이 백낙준에게 직접 거문고

14) 박석기도 백낙준의 1대 직접 사사자이지만, 그 음원이 전해지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범위에는 포함하지 않겠다.

15) 이해경, “임석윤 거문고산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산조를 사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석윤을 백낙준을 사사한 연주자로 보고, 임석윤의 거문고산조 선율 가운데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연구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백낙준이 남긴 거문고산조의 음원에는 ‘진양, 중모리, 엇모리, 잔모리’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비교 가능한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음원 및 악보는 남한 자료과 북한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남한측의 자료로는 김종기의 자진모리, 임석윤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신쾌동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한갑득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가 있다. 북한측의 자료로는 안기옥의 진양조와 자진모리, 김용실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가 있다.

이 중 백낙준, 김종기, 안기옥, 김용실, 임석윤의 음원은 연구자가 직접 채보하여 연구 자료로 삼고, 신쾌동, 한갑득은 정대석 편 『거문고산조 세바탕』¹⁷⁾의 악보를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6) 김호성(국립국악원 원로사범님)과의 대담(일시 : 2013년 4월 17일, 장소 : 남산국악당 로비) : 이 대담에서 김호성은 임석윤의 형과의 대화를 통해 “임석윤이 백낙준을 집으로 모셔다가 거문고산조를 사사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임석윤의 마지막 거처인 서울과 고향인 전남 화순에 내려가 임석윤의 형제나 자손을 찾아보았지만, 임석윤의 마지막 거처에는 다른 이가 살고 있었고, 전남 화순의 고향집에는 임석윤과 임석윤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는 많았지만, 그의 형제나 자손은 찾을 수 없었다.

17) 정대석 편, 『거문고산조 세바탕』, 서울 : 은하출판사, 1990.

[표 1] 연구대상 자료 목록

연주자	음원	악보
백낙준	Victor 49055(420) Victor 49056(420) Victor 49057(421) (녹음 1929년) ¹⁸⁾	채보 : 허익수
안기옥	평양 국립극장 연주 공연실황 녹음 카세트테이프 (녹음시기 미상) ¹⁹⁾ 일본 COLUMBIA XM-19-AM	채보 : 허익수
김용실	최상일(MBC PD)가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음원 ²⁰⁾ (녹음시기 1960~1970년대 추정)	
김종기	Okeh K_1654 기악 거문고산조 단머리 (발매 1934년 4월) ²¹⁾	
신쾌동	—	정대석 편, 『거문고산조 세바탕』 (서울: 은하출판사, 1990)
한갑득		
임석운	KICP-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4) 임석운 거문고 독주 중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자진모리 (녹음 1973년)	채보 : 허익수

- 18) Victor 49055(420) A,B 현금산조 진양 상,하 (3'19", 3'16")
Victor 49056(420) A,B 현금산조 중모리 상,하 (3'17", 3'22")
Victor 49057(421) A,B 현금산조 엇모리, 잔모리 (3'11", 3'1")
본고에서는 이 음원을 복각한 서울음반,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5) 30년대 전통 기악연주 선집》을 연구 자료로 한다.
- 19) 안기옥의 이 음원은 정식으로 발매된 음반이 아니고 이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 중국유학 당시 중국예술연구원 음악연구소를 통해 구한 자료로서, 평양국립극장에서 연주된 공연실황을 녹음한 카세트테이프이다.(이진원 교수 대담, 일시 : 2008년 4월 11일, 장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진원 교수 연구실); 박세희, “안기옥 거문고산조 연구 - 진양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에서 재인용함.

-
- 20) 김용실의 음원은 최상일(mbc프로듀서)이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중 하나이다. 최상일이 수집한 자료를 이재화(추계예술대학교 교수)가 검토하여 김용실이 직접 연주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재화, “북한의 산조음악 - 녹음자료에 의한 안기옥, 정남희, 김용실 거문고산조”, 『(사)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 자료집』, 2005. 8. 259-260쪽.; 최상일 “북한의 산조 녹음자료 내용과 자료입수 경위”, 『(사)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 자료집』, 2005. 8. 131-133쪽.)
- 21) 본고에서는 이 음원을 복각한 JCDS-0653 명인명창선집11 <거문고산조의 명인들 - 김종기 거문고산조 단머리上, 단머리下>(발매 1998.2)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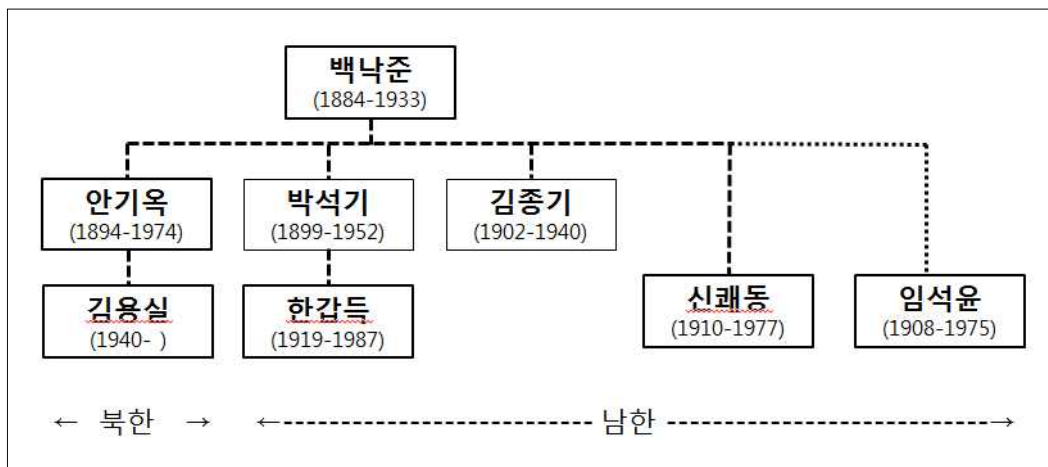
II. 본론

1.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의 사사관계 고찰

본 장에서는 백낙준과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의 생애를 검토하고 백낙준과의 수직적 사승관계에 있는 연주자 및 백낙준의 제자의 제자들을 포함한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횡적인 교류 및 그들 서로간의 사승관계 또한 검토해보고자 한다.

백낙준으로 부터 시작된 거문고산조의 전승 계보는 [표 2]와 같다.

[표 2]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전승 계보



위의 [표 2]를 보면,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직접적으로 사사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안기옥, 박석기, 김종기, 신쾌동, 임석윤이며, 이 중 안기옥은 월북하여 김용실에게 전수하였고, 박석기는 한갑득에게 전수하였다.

거문고 창시자인 백낙준을 비롯하여, 백낙준의 1대 사사자인 안기옥, 김종기, 신쾌동, 임석윤과 2대 사사자인 박석기의 제자 한갑득, 안기옥의 제자 김용실 등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음악적 행보를 관찰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전승과 연주공간 등의 정황,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각 인물들의 횡적 교류 및 사사 관계 등을 통하여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가 어떤 식으로 전승되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백낙준(白樂俊, 1844~1933)

백낙준은 1884년 10월 2일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에서 부(父) 백명수와 모(母) 박길주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31세가 되는 1914년에는 논산군 강경읍 염천리 37번지로 이주하였고 1914~1918년경 거문고산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²²⁾

1918년에는 안기옥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하였고, 1921년에는 강경읍 서창리 60번지로 이주하였다. 1924년에는 김종기에 거문고산조를 전수하였고, ‘리리협울단’의 안기옥 등과 강경 등지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5년에는 박석기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하였다. 1929년 9월 14일에 『매일신보』 후원으로 열린 조선명창대회에서 한성준·공창식·김창환·안기옥 등과 함께 공연하였고, 같은 해부터 1932년까지 익산 신곡사에서 신쾌동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하였다.

백낙준은 타계하기 4년 전인 1929년 11월 10일~13일까지 빅타레코드에서 <거문고산조>·<방아타령>·<신조아리랑> 등을 취입하였고, 1933년 2월 23일 50세의 나이로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117번지에서 타계하였다.

백낙준의 행적을 살펴보면 1918년에는 안기옥, 1924년에는 김종기, 1925년에는 박석기, 1929년~1932년에는 신쾌동에게 차례로 거문고산조를 전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백낙준과 임석윤과의 관계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임석윤이 백낙준에게 직접 사사했을 시기는 백낙준이 박석기에게 거문고산조를 전수했던 1925년경부터 신쾌동에게 전수하기 전인 1929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왜냐하면 임석윤의 고향은 전남 화순이고, 박석기는 고향이 전남 담양인데, 임석윤이 20세 중반에 화순의 탄광이 생긴 이후로 고향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공간적 정황으로 보

22) 백낙준에 대한 정보는 김우진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김우진(2005), 전게서 참조.

23) 임석윤은 1908년생으로, 1925년부터 1929년의 연령은 만 17세부터 만 21세로, 거문고를 배우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아 1925년~1929년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2) 안기옥(安基玉, 1894~1974)

안기옥은 1894년 5월 28일 전남 나주군 남평면 대교리에서 태어났다. 증조할아버지는 판소리명창이었고, 할아버지는 대금, 아버지 안영길은 농악대의 상쇠잡이이자 장고와 피리 연주에도 능숙한 명성있는 음악인이었다. 세 명의 삼촌들도 죽관악기들을 잘 다루던 율객들이었다.²⁴⁾

안기옥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에 친숙한 삶을 살던 중 7~8세 때에 김창조와 인연을 맺어 가야금을 먼저 수학하여 가야금연주자로 활동하였고, 22세가 되는 1915년에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수학하기 시작하였다.²⁵⁾

안기옥의 거문고 수학과 관계된 기록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안기옥이 1915년경 3~4년간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배웠다는 기록이다.²⁶⁾ 두 번째, 안기옥이 1915년에 거문고의 명수 박기남에게서 주법과 <풍류>, <회상>, <별곡> 등의 거문고 곡들을 배웠다는 기록이다.²⁷⁾ 이상의 두 기록은 안기옥이 동일한 시기에 각각 다른 스승에게 거문고를 사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박기남과 백낙준 두 사람 모두에게 배웠는지 또는 둘 중 어느 한쪽에게만 배웠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안기옥이 이 시기에 거문고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안기옥에게 거문고를 배운 제자로는 김용실²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가야금 관련 기록은 많으나²⁹⁾, 거문고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사사행적은 김종기와의 인연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종기 향에서 상술하겠다.

24)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평양 : 윤이상음악연구소, 1998, 158쪽.; 문성립,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25) 양승희, “안기옥, 정남희에게 전해진 김창조 가야금 원형”, 『(사)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 자료집』(2005년 8월 26일-27일, 경기도 안성 연수원), 148쪽.

26) 양승희, 상계서

27) 장영철, 전계서, 159쪽.; 문성립, 전계서

28) 양승희, 전계서

29) 양승희, 상계서 참조. 안기옥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3) 김용실(金溶實, 1940~)

『조선민족음악가사전(上)』³⁰⁾에 기록된 김용실의 프로필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¹⁾

김용실은 1940년 6월 11일 파주 출생으로, 분단시기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에는 국립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안기옥에게 거문고를 수학하였으며, 1959년도에 1960년도에 거문고 독주로 입상 및 특등상을 수상할 정도로 거문고 연주에 능하였다. 1964년부터 1971년까지는 민족기악강좌 교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사이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대학 연구원에서 창작음악을 공부하여 1972년부터는 작곡학부 작곡 강좌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평양 음악무용대학 교재 창작실 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³²⁾

김용실의 음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알려져 있는 것은 한 가지이다. MBC에서 입수한 자료로, 앞서 살펴본 안기옥 거문고산조와 함께 유입되었다. 이 음원에는 김용실의 거문고산조가 진양조 10분 32초, 중모리 5분 41초, 자진모리 4분 7초가 녹음되어 있는데, 최상일은 이 산조의 녹음시기를 1960~7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음원에 대해서 이재화는 “구성가락의 출처는 백낙준, 신쾌동, 그리고 김용실의 창작가락으로 추정된다. 안기옥에게 전수받은 전통가락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변화를 가미하여 현대적이고 북방적 기상이 느껴지는 산조를 형성하였다. 18세에 거문고에 입문하여 30세 전후에 창작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자료 이외에 안땅이나 휘모리 등 또 다른 산조가락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³³⁾고 하였다.

30) 중국연변음악가협회 편, 『조선민족음악가사전(上)』, 연변대학출판사, 1998.

31) 이재화(2005), 전계서에서 재인용.

32) 이재화, 상계서

33) 이재화, 상계서

4) 김종기(金宗基, 1902~1940)

김종기는 1902년생³⁴⁾이며 전북 남원군 운봉면 장수, 혹은 경상남도 함양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기는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며 제자를 양성하였고, 때때로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 등 여러 음악단체의 공연에 참가하였다. 그의 가야금 산조는 장월중선과 김소희, 방금선 등에게 전수하여 연주되고 있으나, 그의 거문고산조는 현재 전하지 않으며³⁵⁾ 일부 음반 음원만이 남아있다.

김종기가 취입한 음반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김종기의 거문고산조는 모두 3장으로 발매되었다. 1934년 오케 4월 신보에 의하면 ‘기악’이라는 이름으로 진양조, 중모리, 단모리의 세 장의 유성기 음반으로 발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오케에서 취입한 김종기 거문고산조는 3장 중 마지막 장인 단모리 음반³⁶⁾만이 남아있다.

안기옥의 1925년부터 1928년의 행적³⁷⁾ 가운데, 가야금산조를 김종기에게 전수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기옥과 김종기는 가야금으로 사제관계를 맺은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안기옥이 김종기에게 거문고도 전수하였다면, 이 당시 안기옥에게 거문고를 전수받았다고 기록된 한홍도, 한홍매와 동시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백낙준과 김종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24년에 김종기(당시 23세)가 백낙준(당시 41세)에게 거문고를 전수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김종기는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배우고,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배운 것을 알 수 있다.³⁸⁾³⁹⁾

34) 김종기의 출생년도에 대하여 김우진은 1902년이라 하였고, 김영재는 1905년이라 하였는데, 두 게재문의 성격상 보다 보편성과 정확성을 지닌 김우진의 논문을 기준으로 출생년도로 기재하였다. 김우진(2006), 전게서; 김영재, “한국근현대사의 음악가 열전(4) : 나의 스승 신헌동선생님을 그리며”, 『한국음악사학보』 제7집, 서울 : 한국음악사학회, 1991, 53쪽 참조.

35) 변성금, 전게서.

36) Okeh K_1654 기악 거문고산조 단머리

37) 양승희, 전게서, 144쪽.

38) 안기옥에 관한 양승희의 기록이 ‘1925-1928’로 4년간의 시간을 묶어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기가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전수받은 후에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배웠을 가능성도 있다.

39) 김종기가 그의 매부 박한용에게서 어렸을 적부터 가야금을 배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야금 학습 경력은 안기옥을 만나기 이전부터로 보아야 한다. 또한 김종기가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배운 시기는 1925년 이후의 일인데, 불과 4년 후인 1929년에 김종기가 가야금으로 영국의

안기옥과 김종기의 가야금 전승장소는 안기옥의 행보 가운데, 1927년도에 한갑득(당시 8세)에게 가야금을 전수한 기록이 있다.⁴⁰⁾ 이 기록에 따르면 안기옥은 1927년도에 광주에 있었고 김종기의 고향은 전북 남원 또는 운봉이기 때문에, 김종기는 1927년경 광주 부근에서 안기옥과 가야금으로 인연을 맺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백낙준이 박석기에게 전남 창평군 지곡리에서 거문고를 가르친 것으로 보아, 김종기가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학습할 만큼의 위치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종기가 백낙준에게 거문고산조를 사사하기 시작한 1924년도부터 1927년도까지가 김종기의 거문고 사사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인 1927년도에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

5) 임석윤(林錫潤, 1908~1975)

임석윤은 1908년 12월 21일⁴¹⁾, 전남 화순동면 경치리에서 태어났으며, 광주보통고등학교 졸업⁴²⁾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³⁾

콜롬비아사와 음반녹음을 한 바 있다. 가야금의 학습경력이 4년인 연주자가 콜롬비아사와 음반 녹음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적부터 박한용에게 가야금을 배워 가야금실력이 탄탄해진 상태에서 안기옥과 가야금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종기가 콜롬비아사와 음반을 녹음한 시기에는 안기옥이 콜롬비아사와의 불화로 인해 1928년도부터 부산에서 150명의 제자를 가르쳤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기가 본인의 스승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콜롬비아사와 녹음을 했다는 점에서, 김종기가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사사한 기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40) 변성금, 전게서

41) 임석윤의 생몰년 중 출생은 1908년으로 여러 글에서 일치하지만, 타계는 1972년(김호성), 1974년(이혜경), 1975(송혜진), 1976년(장사훈) 등의 여러 타계년도설이 있으며, 작고일의 서술이 서로 상이하다. 본인이 입수한 『평택임씨세보』에 기록에 따르면 임석윤의 정확한 출생일은 1908년 12월 21일이고, 타계일은 1974년 5월 30일이다. (김호성, 『소소처우』, 도서출판 은하, 1985.; 이혜경(1994), 전게서; 송혜진, “임석윤 음반해설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4) 임석윤 거문고 독주》, 서울음반, 1998.; 장사훈 편, 『국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4. 참조)

42) 1969년 12월 21일, 서울시내 국일관에서 있었던 그의 회갑연 중 사회자인 이주환이 읽은 그의 약력이 녹음된 기록 중 일부이다.

43) 이 기록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광주보통고등학교에 직접 확인을 해 보았으나, 졸업자 명단에는 임석윤의 이름이 없었다. 광주보통고등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워낙 오래 전 일이기 하고, 그 당시는 문서 기록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임석윤이 해당 교고를 졸

임석윤은 고향에서 20대 중반까지 살았고,⁴⁴⁾ 화순을 떠난 이후에는 부산구락부와 전남 광주, 보성, 대구, 서울 등지에서 연주활동과 제자 양성을 같이 병행하였다. 이 가운데 보성에서 생활할 당시, 징용을 피하기 위하여 처가인 보성에서 먼 서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⁴⁵⁾

임석윤은 서울에서 한국정악원, 이주환의 가곡회, 소심구락부(돈화문 앞 소재), 서울구락부(종로) 등 풍류방을 중심으로 한 연주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석윤은 풍류방에서 <영산회상>, <여민락>, <가곡>, <시조>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양금, 단소, 해금 연주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석윤이 거문고산조로 공연을 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녹음한 음원에 담긴 산조 선율이 유일한 그의 산조음원⁴⁶⁾이다.

그가 백낙준에게 직접 거문고산조를 전수 받았다는 기록⁴⁷⁾도 후학들이 남긴 기록이지 당대의 직접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정황으로 보아 확신할 수 없다. ‘한갑득 사사’란 기록 또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향제풍류』⁴⁸⁾에서 다뤄진 내용이고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산조』⁴⁹⁾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임석윤의 거문고산조의 전승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고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석윤의 연주행적이나 성격으로 보아, 그가 남긴 거문고산조는 백낙준에게 사사 받은 것일 가능성이 크며,⁵⁰⁾ 그렇지 않더라도 후대에 백낙준의 제자들에 의해 변형, 분화되기 이전의 초기 거문고산조 선율의 원

업했었더라도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한다.

44) 임석윤 생존 당시 그와의 대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화순에 탄광촌이 생긴 뒤로 떠났다고 하며, 이에 따르면 그는 20대 중후반에 고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45) 송혜진, 전게서.

46) 서울음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 시리즈(4) 임석윤 거문고 독주》, 1998.

47) 송혜진, 전게서; 거문고팩토리, 상게서

4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향제풍류』(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6), 서울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4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산조』(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7), 서울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7.

50) 이해경은 임석윤의 선율 대부분이 백낙준과 동일함을 밝히면서 임석윤과 백낙준의 음악적 동일성을 근거로 임석윤은 백낙준의 제자라고 주장하였다. 이해경(1994), 전게서 참조.

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그가 산조의 음악적 변형과 확대, 그리고 창작을 고민할 만한 연주환경에서 음악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석윤의 선율은 백낙준의 선율, 그것도 백낙준의 초기 거문고산조 선율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6) 신쾌동(申快童, 1910~1977)

신쾌동의 본명은 신복동으로 전북 익산군 삼기면 오룡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거문고 향제줄풍류 가락과 거문고산조, 그리고 독창적인 거문고 병창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쾌동은 9세 때 정읍 출신의 박생순으로부터 1년 동안 양금을 배웠고, 12세에 박학순에게서 가야금을 배웠으며, 13세부터 15세까지는 다시 박생순에서 단소와 대금을 익혔으며 후에 단소 명인 전용선에세 단소풀유와 산조가락도 배웠다. 15세부터 정일동과 김용근에게 거문고 풍류를 배우면서 익산의 율계에서 음악활동을 시작하였다.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사사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1926년도부터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사사했다는 기록⁵¹⁾이 있는 반면, 1929년도부터 사사했다는 기록⁵²⁾이 있기도 하다.

신쾌동이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사사한 시기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4년간 사사했다는 기록⁵³⁾을 미루어 보아, 1926년이라는 기록은 사사를 시작한 시기를, 1929년이라는 기록은 사사가 끝난 시기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51) 변성금, 상계서; 윤화중. “제5장, 산조의 역사적 발전”, 『한국음악사학보』 제8집, 경산 : 한국음악사학회, 1992, 154쪽.

52) 김영재, 상계서; 거문고 팩토리, 『잊혀진 거문고산조의 명인들』, 서울 : 민속원, 2008, 50쪽.

53) 변성금, 전계서; 윤화중, 전계서

7) 한갑득(韓甲得, 1919~1987)

한갑득은 어려서부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집안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 왔다. 한갑득은 8세가 되던 1927년에 광주에서 안기옥으로부터 가야금산조를 배웠다는 기록⁵⁴⁾이 있다. 안기옥과 관련된 또 다른 기록으로는 1932년 한갑득이 13세가 되던 해에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사사했다는 기록⁵⁵⁾이 있다.

한갑득이 가야금을 배운 기간이 3~4년이라고 언급한 기록⁵⁶⁾과, 한갑득이 14세가 되는 해인 1933년에 일본초청으로 가야금연주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1932년에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사사하기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배우기 시작한지 1년 만에 일본의 연주 초청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갑득이 안기옥에게 가야금을 사사한 시기는 1927년, 즉 한갑득이 8세 되던 해라는 전자의 기록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반면, 안기옥에게 거문고를 사사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한갑득은 안기옥에게 1927년경부터 가야금을 사사했지만 거문고는 사사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갑득은 1933년, 일본초청으로 가야금을 연주하게 된 장소에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를 듣고 매료되었다. 이에 백낙준에게 거문고를 사사받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듬해인 1934년부터 박석기에게 7~8년간 거문고산조와 풍류 및 가곡을 사사하게 된다.⁵⁷⁾

이상으로 백낙준과 그의 제자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의 생애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백낙준에게 직접 사사받은 박석기, 안기옥,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과의 수직적 사승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백낙준을 제외한 안기옥,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과 한갑득, 김용

54) 변성금, 상계서

5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1987), 전계서

56) 변성금, 전계서

57) 변성금, 상계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1987), 전계서

실 등의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간의 횡적인 교류 및 사승관계를 살펴본 바, 박석기의 제자인 한갑득, 안기옥의 제자인 김용실의 거문고산조 사승관계에도 문제가 없었다. 안기옥과 김종기, 안기옥과 한갑득의 사승관계는 가야금과 관련된 기록에서만 언급되고 있어 이들의 사승관계는 가야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의 선율비교

본 장에서는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추출하기 위한 1단계 선율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와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을 일대일로 각각 비교하여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음원에는 담겨있지 않은 후대 선율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선율들은 백낙준이 음원으로는 전하지 않았으나,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 가운데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선율이므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이라 명명한다. 백낙준이 남긴 거문고산조 음원과의 일대일 선율비교는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신채동, 한갑득 순으로 한다.

1) 백낙준과 안기옥

백낙준과 안기옥의 선율비교는 안기옥의 선율이 진양조와 자진모리만 전하기 때문에 진양조와 자진모리만 비교한다.

(1) 진양조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진양조와 안기옥 거문고산조의 진양조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동일한 선율의 예는 [악보 1]과 같다.

[악보 1] 백낙준의 진양조 제5~8장단과 안기옥의 진양조 제5~8장단

백
안
백
안
백
안

슬 정3 자정3 지 잉 정3 뜰 정4지라정4 정4 싸 랭 정4 정4 정5 정4 정4 정3 정3 정4 뜰 깃 깃 지 잉 정5 지 잉 정2 정2 지 로 지 잉 뜰 정4 정5 정5 정5 정4 지 깃 정4 정3 정3 정2 둥 정3 정2 둥 당 둥 당 정2 둥 당 둥 다 둥 다 링 정1 둥 당 청 정 도문 정2 도 오 오 오오웅 뜰 도웅 당 뜰 정2 당 둥 다 앙 뜰 싸랭 정2 둥 정2 둥 다 다 정 다 다 둥 다 당

[악보 1]을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 제5장단부터 제8장단까지의 선율과 안기옥의 진양조 제5장단부터 제8장단까지의 선율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안기옥 거문고산조의 진양조 총 26장단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기옥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안기옥	13	14	15	16	17	18	19				26	

백낙준	25-62	
안기옥		20, 21, 22, 23, 24, 25

[표 3]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한 칸 안의 선율은 서로 동일한 선율이며, 음영을 넣은 칸 안의 선율은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에는 없는 선율이다.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선율을 비교한 결과,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안기옥의 진양조 총 26장단 가운데 동일선율은 총 20장단으로 나타났으며, 백낙준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19장단, 그리고 제23장단 이에 해당한다.

안기옥의 진양조 제20장단, 제21장단, 제22장단, 제23장단, 제24장단, 제25장단은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선율로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백낙준	안기옥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2장단	총 26장단	20장단	6장단

(2) 자진모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와 안기옥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중 동일한 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2]와 같다.

[악보 2]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07~109장단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제9~11장단

백
안
살 정 지 리 정 정 정 정 뜰
정 뜰 정 뜰 정 뜰
살 정 지 리 정 정 정 정 뜰
정 뜰 정 뜰 정 뜰

[악보 2]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07장단부터 제109장단의 선율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제9장단부터 제11장단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안기옥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 총 56장단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백낙준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1-17	18	19-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안기옥		30		9	10	11		14	15	

백낙준	114-118
안기옥	1-8, 12-13, 16-29, 31-56

[표 5]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 가운데 제18장단, 제107장단, 제108장단, 제109장단, 제111장단, 제112장단의 6장단이 안기옥의 자진모리 선율과 동일하다.

안기옥의 자진모리 총 56장단 가운데 제1장단부터 제8장단, 제12장단부터 제13장단, 제16장단부터 제29장단, 제31장단부터 제56장단의 50장단은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선율로서,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백낙준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자진모리	백낙준	안기옥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118장단	총 56장단	6장단	50장단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안기옥 자진모리 총 56장단의 동일선율은 6장단이며,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은 50장단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및 자진모리를 비교한 결과,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중 동일선율은 20장단이며, 백낙준과 안기옥의 자진모리 중 동일선율은 6장단이다.

또한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안기옥의 진양조 선율은 6장단,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안기옥의 자진모리 선율은 50장단이다. 따라서 안기옥 진양조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은 6장단이며,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은 50장단이다.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 및 자진모리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백낙준과 안기옥의 진양조·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안기옥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총 62장단	총 26장단	20장단	6장단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56장단	6장단	50장단

2) 백낙준과 김용실

백낙준과 김용실의 선율비교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한다.

(1) 진양조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3]과 같다.

[악보 3] 백낙준의 진양조 제9~12장단과 김용실의 진양조 제17~20장단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five systems, each with two staves. The top staff of each system is for Baek Nak-joon (백) and the bottom staff is for Kim Yong-sil (김). The time signature is 18/8.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under the note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백
김
백
김
백
김
백
김

기 동
물 살
기 동
러
동
동
동
물
당
다
아
양
두
다
지
잉
지
잉
다
양
뜰
뜰
살
당
다
양
—
두
당
정
정
동
다
링
다
양
뜰
두
웅
다
당
두
웅
더
명
명
명
뜰
동
다
동
정2
도
웅
당
드
웅
동
지
정1
정2
뜰
동
당
동
동
정2
라
지
이
잉
뜰

[악보 3]을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 제9장단부터 제12장단의 선율과 김용실의 진양조 제17장단부터 제20장단의 선율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김용실의 진양조 총 66장단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김용실	1	2	3	12	13	14	15, 63	16	17	18	19	20

백낙준	13	14	15	16	17-25		26	27	28	29	30	31
김용실	21	22	23	24			6,36	7,37	39	9,40	10	

백낙준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46		47
김용실		59	60	61	62		64	65	66			47

백낙준	48	49	50	51-62								
김용실	48	49	50			4, 5, 8, 11, 25-35, 38, 41-46, 51-58						

[표 8]을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의 선율 중 32장단⁵⁸⁾의 선율이 김용실의 선율과 동일하며, 백낙준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16장단, 제26장단부터 제30장단, 제33장단부터 제36장단, 제38장단부터 제40장단, 제47장단부터 제50장단의 32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용실의 진양조 총 66장단 중 백낙준의 음원에 없는 선율은 30장단으로, 김용실의 진양조 제4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1장단, 제25장단부터 제35장단, 제38장단, 제41장단부터 제46장단, 제51장단부터 제58장단이다. 이 30장단은 김용실의 진양조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58) 32장단 가운데 4장단은 김용실의 진양조 선율에 중복 출현하기 때문에 김용실과 백낙준의 동일선율은 김용실 기준으로 하면 36장단이 되기도 한다.

진양조	백낙준	김용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2장단	총 66장단	32장단(김용실 기준 36장단)	30장단

백낙준의 중모리와 김용실의 중모리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4]와 같다.

[illegible]

[악보 4]를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제1장단부터 제4장단까지의 선율과 김용실의 중모리 제3장단부터 제6장단까지의 선율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김용실의 중모리 총 33장단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백낙준과 김용실의 중모리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김용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백낙준	13	14	15	16-20	21	22	23	24	25	26	27
김용실	15	16	17		28	1,21	22	23	24	25	30/59)

백낙준	28	29	30-67	
김용실	/30	32		2, 18-20, 26, 27, 29, 31, 33

백낙준과 김용실의 중모리를 비교한 결과,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 중 김용실의 중모리와 동일한 선율은 24장단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15장단, 제21장단부터 제29장단의 선율이다.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김용실의 중모리 선율은 9장단으로, 제2장단, 제18장단부터 제20장단, 제26장단, 제27장단, 제29장단, 제31장단, 제33장단이다. 이 9장단은 김용실의 중모리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 선율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백낙준과 김용실의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중모리	백낙준	김용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7장단	총 33장단	24장단	9장단

59)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중모리 중 제27장단의 선율은 김용실의 중모리 제30장단 가운데 전반부의 선율과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선율을 설명할 때 “/” 부호를 사용하여 설명하겠으며, 본고에서 사용된 “/”부호가 들어간 선율은 동일선율로 간주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3) 자진모리

백낙준의 자진모리와 김용실의 자진모리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5]와 같다.

[악보 5]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07~109장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제53~55장단

[악보 5]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07장단부터 제109장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제53장단부터 제55장단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총 105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백낙준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1	2-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118
김용실	1		53	54	55	56	57/	/57	
김용실	2-52, 58-105								

[표 12]을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총 105장단 중 백낙준과 김용실의 동일선율은 7장단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장단, 제107장단부터 제112장단이다.⁶⁰⁾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김용실의 자진모리 선율은 김용실의 자진모리 총 105장단 가운데 99장단으로, 제2장단부터 제52장단, 제58장단부터 105장단이며, 김용실의 자진모리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에 해당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백낙준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자진모리	백낙준	김용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118장단	총 105장단	7장단(김용실 기준 6장단)	99장단

이상으로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와 중모리, 자진모리를 비교한 결과, 백낙준과 김용실의 동일선율은 진양조 32장단(김용실 기준 36장단), 중모리 24장단, 자진모리 7장단(김용실 기준 6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진양조 30장단, 중모리 9장단, 자진모리 99장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백낙준과 김용실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김용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총 62장단	총 66장단	32장단(김용실 기준 36장단)	30장단
중모리	총 67장단	총 33장단	24장단	9장단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105장단	7장단(김용실 기준 6장단)	99장단

60) 동일선율의 장단수를 백낙준 기준으로 설명하면 7장단이 되며, 김용실 기준으로 설명하면 6장단이 된다.

3) 백낙준과 김중기

백낙준과 김중기의 선율비교는 김중기의 선율이 자진모리만 음원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진모리만 비교한다.

(1) 자진모리

백낙준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6]과 같다.

[악보 6]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1~44장단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제17~20장단

백

김

백

김

백

김

백

김

— 지 잉 들 당 정1

[악보 6]을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1장단부터 제44장단의 선율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제17장단부터 제20장단까지의 선율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의 선율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총 198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백낙준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1-17		18	19-30		31	32	33	34	35	36	37
김중기			4			1	2,76			6	7	8
백낙준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김중기	9	10	11	17	18	19	5,20	77	77	78	81	83
백낙준	50	51-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김중기	84			4	21	22			26			28
백낙준	63	64-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김중기	29			35,94	95			43		44,98	99	
백낙준	77-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김중기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백낙준	104	105	106-118									
김중기	127, 128	129			3, 12-16, 23-25, 27, 30-34, 36-42, 45-75, 79, 80, 82, 85-91, 92, 93, 96, 97, 100-117, 130-183, 185-198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김중기의 자진모리 총 198장단 중 동일선율은 40장단⁶¹⁾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8장단, 제31장단, 제32장단, 제35장단부터 제50장단, 제54장단부터 제56장단, 제59장단, 제62장단, 제63장단, 제68장단, 제69장단, 제72장단, 제74장단, 제75장단, 제94장단부터 제97장단, 제100장단부터 제105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김중기의 자진모리 선율은 제3장단, 제12장단부터 제16장단, 제23장단부터 제25장단, 제30장단부터 제34장단, 제36장단부터 제42장단, 제45장단부터 제75장단, 제79장단, 제80장단, 제82장단,

61) 백낙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장단이며, 김중기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면, 46장단이 된다.

제85장단부터 제91장단, 제92장단, 제93장단, 제96장단, 제97장단, 제100장단부터 117장단, 제130장단부터 제183장단, 제185장단부터 제198장단의 선율이며, 이상의 152장단의 선율은 김종기의 자진모리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백낙준과 김종기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김종기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198장단	40장단(김종기 기준 46장단)	152장단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김종기의 자진모리 총 198장단의 동일선율은 40장단(김종기 기준 46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김종기의 자진모리 총 198장단에서 동일선율 46장단(김종기 기준)을 뺀 152장단이다.

4) 백낙준과 임석윤

백낙준과 임석윤의 선율비교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한다.

(1) 진양조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7]과 같다.

[악보 7] 백낙준의 진양조 제17~20장단과 임석윤의 진양조 제16~19장단

백
임

II8 II8 지잉2 뜰 지잉2 정2 뜰

II5 II5 살 정2 지리정2 뜰 지 잇 뜰 정2 정2 뜰 지 이 잇 -

II8 II8 당 지잉 도웅 당 다 등 다 등2 더잉 등 당 뜰

II8 II8 당 지잉 도웅 당 도 오 오 웅 등 당 정 더잉 등 당 뜰

II8 II8 살 지 잉 뜰 지 잉 지잉 지 잇 정3 지 잇 정3

II5 II5 도 당 다 당 뜰 닷 다 도 웃 당 뜰 도웅

지 잇 정2 뜨 웃 정1 뜰 뜰도 오 오 웅 당 도 도 도 웃 당 뜰 도웅

[악보 7]을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 제17장단부터 제20장단과 임석윤의 진양조 제16장단부터 제19장단의 선율은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임석윤의 진양조 총 90장단을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석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임석윤	73	74			16	17	18	19	20	21	22	23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임석윤	24	25	26	27	28	29			44	45	46	47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임석윤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83	84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임석윤	85	86	58	59	60	61	62	63	64	65	87	88

백낙준	61	62										
임석윤	89	43,90	13-15, 30-42, 66-72, 75-82									

[표 17]을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와 임석윤의 진양조 중 동일선율은 58장단⁶²⁾의 선율로, 백낙준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14장단, 제17장단부터 제30장단, 제33장단부터 제62장단의 선율이다.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임석윤의 진양조 선율, 즉 임석윤의 진양조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은 31장단으로, 제13장단부터 제15장단, 제30장단부터 제42장단, 제66장단부터 제72장단, 제75장단부터 제82장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백낙준	임석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2장단	총 90장단	58장단(임석윤 기준 59장단)	31장단

62) 백낙준을 기준으로 설명할 경우 58장단이며, 백낙준의 진양조 제62장단이 임석윤의 진양조 제43장단, 제90장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석윤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백낙준과 임석윤의 동일선율은 59장단이다.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임석윤의 진양조 총 90장단 가운데 동일선율은 58장단(임석윤 기준 59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31장단에 해당한다.

(2) 중모리

백낙준과 임석윤의 중모리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8]과 같다.

[악보 8] 백낙준의 중모리 제27~30장단과 임석윤의 중모리 제30~33장단

II:5

백

임

당 정1 물 정1 지 잉 물 당 정1 물

당 정1 라정1 물 깃 지 잉 물 정 당 정1 물

당 정1 물 정1 당 정2 물 정1 지 물 다 정1 물 덩 물 둥 당 정1

다 링 물 당 정1 물 다 리 잉 물 당 정1 물 지 잉 물 당 정1 물 덩 덩 - 두 당 정1

덩 두우 옷 듯 듯 두 두 당 물 정1 물 라 지 잉 물 당 정1 당 정1 정3 도 웅 당

지이 지잉 다로웅 덩 두웅 당 정1 라정1 물

지 잉 물 라로 웅 덩 두당 정1 물 정1

[악보 8]을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제27장단부터 제30장단의 선율은 임석윤의 중모리 제30장단부터 제33장단의 선율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임석윤의 중모리 총 85장단을 비교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백낙준과 임석윤의 중모리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석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임석윤	16	17	18	19		22	47	48	49	25	26	27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임석윤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임석윤	40	41	42	43	44	45	46	52	53	54	55	56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임석윤	57	58	59	60	61	23	24	67	66,68			

백낙준	61	62	63	64	65	66	67					
임석윤	70	71	72	50,73	51,74	75	76	1, 2, 15, 20, 21, 62-65, 69, 77-85				

[표 19]를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임석윤의 중모리 총 85장단 중 동일선율은 63장단⁶³⁾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제1장단부터 제16장단, 제18장단부터 제57장단, 제61장단부터 제67장단이다.

임석윤의 중모리 선율에서 이 동일선율 63장단(임석윤 기준 66장단)을 제외한 임석윤의 중모리 19장단은 백낙준의 원형가능선율로서, 제1장단, 제2장단, 제15장단, 제20장단, 제21장단, 제62장단부터 제65장단, 제69장단, 제77장단부터 제85장단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63) 백낙준 기준으로 63장단이며, 임석윤 기준으로 볼 땐 백낙준 제57장단, 제64장단, 제65장단의 3장단이 중복되기에 임석윤 기준으로 설명하면 66장단이다.

[표 20] 백낙준과 임석윤의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임석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중모리	총 67장단	총 85장단	63장단(임석윤 기준 66장단)	19장단

(3) 자진모리

백낙준의 자진모리 선율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선율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9]와 같다.

[악보 9]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5~48장단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제18~21장단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four systems, each with two staves: the top staff for '백' (Baek Nakjun) and the bottom staff for '임' (Im Seokyun).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major), and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Specific musical notations include '정1', '정2', and 'V' (breath mark) above certain notes.

System 1:

- 백: 당 정1 지 당 뜰 지잉 뜰 당
- 임: 다 정1 뜰 당 뜰 지 잉 뜰 당

System 2:

- 백: 뜰 정1 뜰 당 뜰 지잉 뜰 당
- 임: 다 정1 뜰 당 뜰 지 잉 뜰 당

System 3:

- 백: 정1 뜰 다 정1 뜰 정2 뜰 다 정1 뜰
- 임: 정1 뜰 정2 뜰 정1 뜰 정2 뜰 정1 뜰

System 4:

- 백: 정1 V 뜰 당 정1 뜰 정2 V 뜰 당 정1 뜰
- 임: 지 지 지 잉 다 정1 뜰 지 지 지 잉 다 정1 뜰

Additional lyrics at the bottom of the system 4 staves:

- Below 백: 정2 뜰 정2 당 정1 뜰 정2 뜰 정1 당 정1 뜰
- Below 임: (no additional lyrics)

[악보 9]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5장단부터 제48장단의 선율은 임석윤의 자진모리 제18장단부터 제21장단의 선율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총 138장단을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백낙준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1-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임석윤			1	2	3,7	4,8		9	10	11	5,12	6,13

백낙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임석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백낙준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임석윤	26/27	28	29	30	34	35	36	37			41	42

백낙준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임석윤	43	44		79	80	81	82	83	84	85		

백낙준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임석윤	88	89		91	92	93	96	97	98	99	100	101

백낙준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임석윤	102	103	104/ 105	106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백낙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임석윤	116	117	118	119	120	121	124	125	126	127	128	129

백낙준	113	114	115	116	117	118						
임석윤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5, 6, 31, 32, 33, 38-40, 45-78, 86-87, 90, 94, 95, 107, 122, 123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임석윤 자진모리 총 138장단 중 동일선율은 81장단⁶⁴⁾이며,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31

64) 백낙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81장단이며,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33장단, 제34장단, 제39장단, 제40장단, 제91장단, 제116장단부터 제118장단의 선율은 임석윤의 자진모리 선율과 중복되어 동일하고,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52장단부터 제53장단의 2장단은 임석윤의 자진모리 제25장단부터 제27장단의 3장단과 중복되어 동일하므로, 동일선율은 임석윤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장단이다.

장단부터 제34장단, 제36장단부터 제60장단, 제63장단부터 제66장단, 제68장단부터 제74장단, 제77장단, 제78장단, 제80장단부터 제118장단까지이다.

임석윤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은 50장단으로, 제5장단, 제6장단, 제31장단, 제32장단, 제33장단, 제38장단부터 제40장단, 제45장단부터 제78장단, 제86장단부터 제87장단, 제90장단, 제94장단, 제95장단, 제107장단, 제122장단, 제123장단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백낙준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임석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138장단	81장단(임석윤 기준 88장단)	50장단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임석윤의 자진모리 총 138장단 중 동일선율은 81장단(임석윤 기준 88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50장단이다.

이상으로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의 선율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백낙준과 임석윤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임석윤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총 62장단	총 90장단	58장단(임석윤 기준 59장단)	31장단
중모리	총 67장단	총 85장단	63장단(임석윤 기준 66장단)	19장단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138장단	81장단(임석윤 기준 88장단)	50장단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과 임석윤의 선율을 비교한 결과, 진양조의 경우, 백낙준의 총 62장단과 임석윤의 총 90장단 중 동일선율은 58장단(임석윤기준 59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31장단이다. 중모리의 경우, 백낙준의 총 67장단과 임석윤의 총 85장단 중 동일선율은 63장단(임석윤 기준 66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19장단이다. 자진모리의 경우, 백낙준의 총 118장단과 임석윤의 총 138장단 중 동일선율은 81장단(임석윤 기준 88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50장단이다.

5) 백낙준과 신채동

백낙준과 신채동의 선율비교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의 선율을 중심으로 한다.

(1) 진양조

백낙준과 신채동의 진양조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10]과 같다.

[illegible]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의 선율과 신패동의 진양조 총 119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백낙준과 신쾌동의 진양조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쾌동	1	2	3	4	5	6	7	8	9	10	11	21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쾌동	22	23	24	25	26	27	28			37	35	36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신쾌동	37	38	39	41	42	43	44	45	60	61		64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신쾌동	65	66	67	68	69	70				91	51	52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신쾌동	53	54	85	86	87	88	89	90	91	68		

백낙준	61	62	
신쾌동			12-20, 29-34, 40, 46-50, 55-59, 62, 63, 71-84, 92-119

[표 24]를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신쾌동의 진양조 총 119장단 중 동일선율은 52장단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19장단, 제22장단부터 제34장단, 제36장단부터 제42장단, 제46장단부터 제58장단의 선율이다.

신쾌동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은 신쾌동의 진양조 총 119장단 중 70장단⁶⁵⁾으로, 신쾌동의 진양조 제12장단부터 20장단, 제29장단부터 제34장단, 제40장단, 제46장단부터 제50장단, 제55장단부터 제59장단, 제62장단, 제63장단, 제71장단부터 제84장단, 제92장단부터 제119장단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65) 신쾌동의 진양조 총 119장단에서 백낙준과의 동일선율 52장단을 빼면, 산술적으로는 67장단이 된다. 그러나 백낙준과 신쾌동의 진양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신쾌동의 진양조 제37장단, 제68장단, 제91장단이 두 번씩 출현하였기에 이 세 장단의 선율을 더하여 합산하면, 백낙준과 신쾌동의 진양조를 비교해서 얻어낼 수 있는 원형가능선율의 총 수는 70장단이 된다.

[표 25] 백낙준과 신쾌동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백낙준	신쾌동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2장단	총 119장단	52장단	70장단

(2) 중모리

백낙준과 신쾌동의 중모리 선율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11]과 같다.

[악보 11] 백낙준의 중모리 제31~34장단과 신쾌동의 중모리 제28~31장단

백
신

살 지 당 정 플 살 지 당 다 정 플
살 정2 플 정 당 정 플 살 정2 살 지2 - 0 지당 정 당 플

백
신

정1 지 - 0 라 정 정2 정 지2 - 0 당 두다 정2 당 정 플
정1 지 지 지 지 정 정 지 리 당 두 당 정1

백
신

II5
당 정1 다 정1 지 잉 지 잉 당 정 플
당 지 - 0 라 정 플 정2 도 링 당 정 플

백
신

II2 III2
등1 등1 드 등1 드 더 등1
등 정 라 정 플 등 플 정2 등 정 플

[악보 11]을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제31장단부터 제34장단의 선율과 임석윤의 중모리 제28장단과 제31장단의 선율은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신쾌동의 중모리 총 81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백낙준과 신쾌동의 중모리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쾌동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쾌동	17	18	19	20		61			61	41	42	43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신쾌동	44	19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신쾌동	34	35	36	37	38	49	40	49	53		55	56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신쾌동	57	58		60	61	62	63	64	65	13		

백낙준	61	62	63	64	65	66	67					
신쾌동					51			1, 2, 15, 16, 21-23, 39, 45-48, 50, 52, 54, 59, 66-81				

[표 26]을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신쾌동의 중모리 총 81장단 중 동일선율은 54장단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제1장단부터 제16장단, 제18장단, 제21장단부터 제45장단, 제47장단부터 제50장단, 제52장단부터 제58장단, 제65장단의 선율이 이에 해당한다.

신쾌동의 중모리 총 81장단 중 백낙준의 음원에는 없는 신쾌동의 중모리 선율, 즉 신쾌동의 중모리 내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은 32장단⁶⁶⁾으로, 신쾌동의 중모리 제1장단, 제2장단, 제15장단, 제16장단,

66) 신쾌동의 중모리 총 81장단에서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의 동일선율 54장단을 빼면 산술적으로 원형가능선율은 27장단이어야 하나, 신쾌동의 중모리 제13장단, 제19장단이 각각 2번씩 중복으로 출현하였고, 신쾌동 중모리 제61장단은 3번 중복 출현하였으므로 5장단을 더해 한

제21장단부터 제23장단, 제39장단, 제45장단부터 제48장단, 제50장단, 제52장단, 제54장단, 제59장단, 제66장단부터 제81장단까지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백낙준과 신쾌동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중모리	백낙준	신쾌동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7장단	총 81장단	54장단	32장단

(3) 자진모리

백낙준의 자진모리와 신쾌동의 자진모리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12]와 같다.

다. 그러므로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신쾌동의 중모리 총 81장단을 비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원형가능선율의 장단수는 32장단이다.

[악보 12]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68~71장단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제80~83장단

백
신

도 깃 도 깃 도웅 당
도 웃 도 웃 둥 당 뜰

백
신

도 깃 도 깃 도웅 둥
도 웃 도 웃 둥 둥 뜰

백
신

둥 지 잉 지 이 도웅 당 뜰
도 링 정 둥 당 뜰

백
신

도 지 잉 지 잉 도웅 둥 둥
도 링 지 잉 뜰 둥 뜰

[악보 12]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68장단부터 제71장단의 선율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제80장단부터 제83장단의 선율은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의 선율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총 260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백낙준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쾌동						5	6	7	8	9	10	11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쾌동	12		128			52	128	133	131	132	131	133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신쾌동	65	68	38	45			65	66	37	38	65	33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신쾌동	51	38	65	66	39	40	41	42	43	44	45	46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신쾌동	47	48	49	50	51	52	128	133	131		132	133

백낙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신쾌동			59			52	77	80	81	82	83	89

백낙준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신쾌동	85	98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백낙준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신쾌동	187	188	192	255	191	192 /193	194 /195			208	209	243

백낙준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신쾌동											97	98

백낙준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신쾌동	99					247	23			257		

신쾌동	1-4, 13-22, 24-32, 34-36, 53-58, 60-64, 67, 69-76, 78, 79, 84, 86, 87, 88, 90-97, 100-127, 129-130, 134-176, 189, 190, 196-207, 210-242, 244-246, 248-256, 258-260											
-----	--	--	--	--	--	--	--	--	--	--	--	--

[표 28]을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총 260장단 중 동일선율은 85장단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1장단부터 제5장단, 제14장단, 제16장단, 제17장단, 제29장단, 제30장단, 제58장단, 제61장단, 제62장단, 제64장단, 제65장단, 제92장단, 제93장단, 제97장단부

터 제106장단, 제110장단부터 제113장단, 제116장단, 제117장단의 선율이
다.

신쾌동 자진모리 총 260장단 중 원형가능선율은 195장단으로, 제1장단
부터 제4장단, 제13장단부터 제22장단, 제24장단부터 제32장단, 제34장단
부터 제36장단, 제53장단부터 제58장단, 제60장단부터 제64장단, 제67장
단, 제69장단부터 제76장단, 제78장단, 제79장단, 제84장단 제8장단, 제87
장단, 제88장단, 제90장단부터 제97장단, 제100장단부터 제127장단, 제129
장단부터 제130장단, 제134장단부터 제176장단, 제189장단, 제190장단, 제
196장단부터 제207장단, 제210장단부터 제242장단, 제244장단부터 제246
장단, 제248장단부터 제256장단, 제258장단부터 제260장단이다.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신쾌동의 자진모리 총 260장단을 비
교하여 나타난 동일선율과 원형가능선율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 백낙준과 신쾌동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자진모리	백낙준	신쾌동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118장단	총 260장단	85장단	195장단 ⁶⁷⁾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신쾌동
의 자진모리 총 260장단 중 동일선율은 85장단이고, 원형가능선율은 195
장단이다.

67) 백낙준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신쾌동 자진모리 총 260장단의 동일선율은 85장단으로, 신쾌동
자진모리 총 260장단에서 동일 선율 85장단을 빼면 산술적으로 175장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
쾌동 자진모리 제38장단이 3번중복, 제45장단이 2번 중복, 제51장단이 2번 중복, 제52장단이 3
번 중복, 제65장단이 4번중복, 제66장단이 2번 중복, 제98장단이 2번 중복, 제128장단이 2번 중
복, 제131장단이 3번 중복, 제132장단이 2번 중복, 제133장단이 4번중복하여 중복된 횟수가 18
회이다. 또한, 백낙준 자진모리 제90장단과 동일한 신쾌동 자진모리는 제192장단과 제193장단
의 2장단, 그리고 백낙준 자진모리 제91장단과 동일한 신쾌동 자진모리는 제194장단과 제195장
단으로, 백낙준 제90장단과 제91장단의 동일한 장단으로 신쾌동 제192부터 195의 네 장단이 쓰
였으므로, 2회가 더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중복사용된 장단수 18장단과 신쾌동4장단이 백낙준 2장단에 축소되어 중복 사용된
장단수 2장단을 합한 20장단을 신쾌동 자진모리 총 260장단에서 동일선율 85장단을 뺀 175장
단에 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95장단이 된다.

이상으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와 신쾌동의 거문고산조 중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0]과 같다.

[표 30] 백낙준과 신쾌동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신쾌동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총62장단	총119장단	52장단	70장단
중모리	총67장단	총81장단	54장단	32장단
자진모리	총118장단	총260장단	85장단	195장단

[표 30]을 보면, 진양조는 백낙준의 총 62장단의 선율과 신쾌동의 총 119장단의 선율 중 동일선율이 52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이 70장단이다. 중모리는 백낙준의 총 67장단과 신쾌동의 총 81장단 중 동일선율이 54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이 32장단이다. 자진모리는 백낙준의 총 118장단과 신쾌동의 총 260장단 중 동일선율이 85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이 195장단이다.

6) 백낙준과 한갑득

백낙준과 한갑득의 선율비교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한다.

(1) 진양조

백낙준의 진양조와 한갑득의 진양조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13]과 같다.

[악보 13] 백낙준의 진양조 제47~50장단과 한갑득의 진양조 제213~216장단

백
한

지 지 지³잉 지 지 지³잉 정 뜰 정⁵ 지 정⁴ 지 정³ 지 정² 도웅 지 잉 당 두

살 지⁴지⁴정⁴지⁴지⁴지⁴— ○ 뜰 정⁴ 정⁵ 정³ 정⁴ 정² 지³ 정 정² 동 정 당

백
한

당 뜰^v도 오도웅 다 정 당 동 동 정² 정² 뜰 도 지 잉

두당 지²동 뜰 당 뜰 동 동 뜰 당 지³ 잇 정³ 지³ 지³ 정² 지² 잉

백
한

기동 뜰 당 뜰 도웅 당 지 잉 지 이 잉 도 웅 당

슬 기동 뜰 당 뜰 동 정² 지³ — 지² 지 동 당 뜰

백
한

다 양 도웅 뜰 당 도웅 동 동 동² 더영 동 당 뜰

다 — 入 동 뜰 당 뜰 동 동 뜰 다 정 덩 동 당 뜰

[악보 13]을 보면, 백낙준 진양조 제47장단부터 제50장단의 선율은 한갑득의 진양조 제213장단부터 제216장단의 선율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한갑득의 진양조 총 216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갑득	1	2	3	4	5	6	7	8	9	10	11	31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한갑득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한갑득	44	45	46	47	49	56	57	200	94	95	96	97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한갑득	98	99	101		211	212				93	213	214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한갑득	215	216						204	205	206	90	91

백낙준	61	62										
한갑득	92	93	12-30, 48, 50-55, 58-89, 100, 102-199, 201-203, 207-210									

[표 31]을 보면,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의 선율과 한갑득의 진양조 총 216장단의 선율 중 동일선율은 53장단으로, 백낙준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39장단, 제41장단, 제42장단, 제46장단부터 제50장단, 제56장단부터 제62장단의 선율이다.

한갑득의 진양조 총 216장단 중 원형가능선율은 164장단⁶⁸⁾으로, 한갑득 진양조 제12장단부터 제30장단, 제48장단, 제50장단부터 제55장단, 제58장단부터 제89장단, 제100장단, 제102장단부터 제199장단, 제201장단부터 제203장단, 제207장단부터 제210장단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68) 백낙준의 진양조 총 62장단과 한갑득의 진양조 총 216장단 중 동일선율 53장단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163장단이 원형가능선율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한갑득의 진양조 제93장단이 중복되었기에 이 장단수 1장단을 더하면 원형가능선율은 164장단이 된다.

[표 32]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백낙준	한갑득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2장단	총 216장단	53장단	164장단

(2) 중모리

백낙준의 중모리 선율과 한갑득의 중모리 선율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14]와 같다.

[악보 14] 백낙준의 중모리 제40~43장단과 한갑득의 중모리 제59~62장단

백
한

정2 뜰 지 임 당 정1 뜰 정2 뜰 지 임 당 정1 뜰 정1 뜰 당 지 뜰 정 뜰 다 정1 뜰
정2 뜰 정2 당 정 뜰 정2 뜰 정2 당 정 뜰 정2 뜰 당 정 뜰 정2 뜰 당 정 뜰

백
한

지 잇 지 지 잇 지 당 정 지 지 지 임 지 다 정1 덩 당 두 당 지 임 지 임
지2 정2 지2 정2 당 지 지 정2 지 당 정 뜰 덩 당 두 당 정 지

백
한

지 임 도옹 당 두 옹 두 당 두 다 정1
- 〇 라 로 덩 둥 당 정 라 정 뜰

백
한

II8
당 도옹 다 지 임 뜰도 옹 당 도 옹 도 옹 둥 다 둥 당 뜰
당 둥 다 링3 지2 둥 당 도 정 둥 둥 당 뜰

大

[악보 14]을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제40장단부터 제43장단의 선율은

한갑득의 중모리 제59장단부터 제62장단의 선율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한갑득의 중모리 총 90장단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백낙준과 한갑득의 중모리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갑득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한갑득	14	15	16			67			62	63	64	65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한갑득	66	16	48	49	50	51	87		52	53	54	55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한갑득	56	57	58	59	60	61	62	17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한갑득						68	69	70	71	12		

백낙준	61	62	63	64	65	66	67					
한갑득					20			1, 18, 19, 21-47, 72-86, 88-90				

[표 33]을 보면,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한갑득의 중모리 총 90장단 중 동일선율은 45장단으로, 백낙준의 중모리 제1장단부터 제15장단, 제18장단, 제21장단부터 제31장단, 제33장단부터 제44장단, 제54장단부터 제58장단, 제65장단의 선율이다.

한갑득의 중모리 총 90장단 중 원형가능선율은 48장단⁶⁹⁾으로, 한갑득의 중모리 제1장단, 제18장단, 제19장단, 제21장단부터 제47장단, 제72장단부터 제86장단, 제88장단부터 제90장단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69) 백낙준의 중모리 총 67장단과 한갑득의 중모리 총 90장단 중 동일선율은 45장단이며, 한갑득의 중모리 총 90장단에서 동일선율 45장단을 빼면 산술적으로 원형가능선율은 45장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갑득의 중모리 제12장단, 제16장단, 제62장단은 중복되어 출현하기 때문에 이 중복된 장단수 3장단을 더하면 원형가능선율은 48장단이 된다.

[표 34] 백낙준과 한갑득 중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중모리	백낙준	한갑득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67장단	총 90장단	45장단	48장단

(3) 자진모리

백낙준의 자진모리와 한갑득의 자진모리 중 동일선율의 예를 들면 [악보 15]와 같다.

[악보 15]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9~52장단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제49~52장단

백
한

깃 정2 깃 정 깃 정2 당 정1 지잉 지
정2 뜰 지2 잇 지2 뜰 정 뜰 당 정2 지

백
한

당 지 다 로오 덩 뜰 당 정1
다 정 뜰 덩 뜰 당 정 뜰

백
한

당 지잉 당 정1 지 잉
당 정2 당 지 지 잉

백
한

지 잉 지 이 지 잉 정1 도 오
지 잉 지 잉 정 뜰 당

[악보 15]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49장단부터 제52장단의 선율은 한갑득의 자진모리 제49장단부터 제52장단의 선율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의 선율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총 492장단의 선율을 비교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백낙준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비교

백낙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갑득						5	6	7	8	9	10	11

백낙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한갑득	12		417			54	417	425	423		424	425

백낙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한갑득	426	37	38	47			35	36	37	38	39	33/34

백낙준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한갑득	53/54	38	39	36	41	42	43	44	45	46	47	48

백낙준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한갑득	49	50	51	52	53	54	419, 421	425				425

백낙준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한갑득			426	428		60	92	136	137	138	139	108

백낙준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한갑득	136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백낙준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한갑득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94	295	296

백낙준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한갑득									311	312	142	143

백낙준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한갑득	144					116	23				

한갑득	1-4, 13-21, 24-32, 40, 55-59, 61-91, 93-115, 117-135, 140, 141, 145-231, 250-293, 297-310, 313-416 418, 420, 422, 427, 429-492											
-----	--	--	--	--	--	--	--	--	--	--	--	--

[표 35]를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총 492장단 중 동일선율은 84장단으로,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6장단부터 제13장단까지, 제15장단, 제18장단부터 제21장단, 제23장단부터 제28장단, 제31장단부터 제56장단, 제60장단, 제63장단, 제64장단, 제66장단부터 제91장단, 제94장단부터 제96장단, 제105장단부터 제109장단, 제114장단, 제115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한갑득 자진모리 총 492장단 중 원형가능선율은 422장단⁷⁰⁾으로, 제1장단부터 제4장단, 제13장단부터 제21장단, 제24장단부터 제32장단, 제40장단, 제55장단부터 제59장단, 제61장단부터 제91장단, 제93장단부터 제115장단, 제117장단부터 제135장단, 제140장단, 제141장단, 제145장단부터 제231장단, 제250장단부터 제293장단, 제297장단부터 제310장단, 제313장단부터 제416장단, 제418장단, 제420장단, 제422장단, 제427장단, 제429장단부터 제492장단의 선율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백낙준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자진모리	백낙준	한갑득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총 118장단	총 492장단	84장단	422장단

[표 36]을 보면,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총 492장단 중 동일선율은 84장단이고, 원형가능 선율은 422장단이다.

이상에서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70) 백낙준의 자진모리 총 118장단과 한갑득의 자진모리 총 492장단 중 동일선율 84장단을 한갑득의 자진모리 총 492장단에서 빼면 원형가능선율이 408장단으로 나온다. 그러나 한갑득의 제36장단, 제37장단이 2번 중복되고, 제38장단이 3번 중복되며, 제39장단, 제47장단, 제136장단, 제417장단은 2번씩 중복, 제425장단은 4번 중복되기 때문에, 이 중복된 11장단과, 백낙준의 자진모리 제36장단, 제37장단, 제55장단에 한갑득의 선율이 2장단씩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한갑득의 자진모리 총 492장단에서 동일선율 84장단을 뺀 408장단에 14장단을 더하여 원형가능선율을 산출해야 되며, 이에 따른 원형가능선율은 422장단이다.

[표 37] 백낙준과 한갑득의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

	백낙준	한갑득	동일선율	원형가능선율
진양조	총 62장단	총 216장단	53장단	164장단
중모리	총 67장단	총 90장단	45장단	48장단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492장단	84장단	422장단

[표 3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과 한갑득 거문고산조 중 진양조와 중모리, 자진모리를 비교한 결과, 진양조는 백낙준의 총 62장단과 한갑득의 총 216장단 중 동일선율은 53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164장단이다. 중모리는 백낙준의 총 67장단과 한갑득의 총 90장단 중 동일선율은 45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48장단이다. 자진모리는 백낙준의 총 118장단과 한갑득의 총 492장단 중 동일선율은 84장단이며, 원형가능선율은 422장단이다.

이상으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선율과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한갑득, 신쾌동 거문고산조 선율을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하여 차례로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동일선율과 원형가능선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표 38]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의 동일선율 및 원형선율 비교

백낙준		안기옥	김용실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진양조 총 62장단	총 장단	26	66	×	90	119	216
	동일선율	20	32(36 ⁷¹⁾)	×	58(59)	52(49)	53(52)
	원형가능선율	6	30	×	31	70	164
중모리 총 67장단	총 장단	×	33	×	85	81	90
	동일선율	×	24	×	63(66)	54(49)	45(42)
	원형가능선율	×	9	×	19	32	48
자진모리 총 118장단	총 장단	56	105	198	138	260	492
	동일선율	6	7(6)	40(46)	81(88)	85(65)	84(70)
	원형가능선율	50	99	152	50	195	422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간의 동일선율 및 원형가능선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진양조와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진양조 선율 중 동일선율은 안기옥이 20장단, 김용실이 36장단, 임석윤이 59장단, 신쾌동이 49장단, 한갑득이 52장단으로 나타난다.

둘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중모리와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중

71) 백낙준이 아닌 김용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장단이다. 이 설명은 본고 2항 2)단락의 ‘백낙준과 김용실’ 항에서 전술하였다. 본 표에서 나온 괄호안의 숫자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72)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한 부호이다. 본 표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모리 선율 중 동일선율은 김용실이 24장단, 임석윤이 67장단, 신쾌동이 49장단, 한갑득이 42장이다.

셋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자진모리와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자진모리 선율 중 동일선율은 안기옥이 6장단, 김용실이 6장단, 김종기가 46장단, 임석윤이 88장단, 신쾌동이 65장단, 한갑득이 70장단이다.

3. 백낙준 원형선율 추출

본 장에서는 1단계 선율비교를 통해 추출해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을 토대로 2단계 선율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간에 상호 교류가 없는 인물군, 즉 남한과 북한의 거문고 연주자군으로 양분한 뒤, 양측의 원형가능선율을 비교함으로써 동일선율을 가려내는 것이 2단계 선율비교분석이다. 2단계 선율비교를 통하여 얻어진 동일선율을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로 삼는다.

남한의 연주자군은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이며 북한의 연주자군은 안기옥과 김용실이 있다. 양측의 선율을 비교하여 동일선율을 추출한다.

1) 진양조

(1) 원형선율

백낙준의 원형선율을 추출하기 위한 선율 비교를 하기에 앞서, 안기옥과 김용실의 선율을 우선 비교하고자 한다. 안기옥과 김용실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된 선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약 안기옥에게서 나타난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에게서 나타난 원형가능선율 가운데 동일한 선율이 있다면 이는 백낙준의 원형선율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안기옥과 김용실의 선율을 먼저 비교하여 두 선율간에 나타나는 동일한 선율은 제외하고, 그 외 선율을 남한의 연주자군의 선율과 비교하겠다.

안기옥 거문고산조 진양조에서 나타난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6장단과 김용실 거문고산조 진양조에서 나타난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25장단 가운데 동일한 선율은 [표 39]와 같다.

[표 39] 안기옥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안기옥	20	21	22	23	24	25
김용실	27	28	29	30	31	32

[표 39]를 보면, 안기옥 거문고산조에서 나타난 원형가능선율 6장단은 모두 김용실 원형가능선율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안기옥 내 원형가능선율 중 찾을 수 있는 백낙준의 원형선율은 모두 김용실 향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김용실에서 나타난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25장단 가운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선율은 [표 40]과 같다.

[표 40] 김용실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 25장단과 임석윤·신쾌동·한갑득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안기옥					20	21	22	23	24	25		
김용실	4	5	8	11	27	28	29	30	31	32	38	41
임석윤												
신쾌동					29	30	31	32	33	34	40	
한갑득												

김용실	42	43	44	45	46	51	52	53	54	55	56	57
임석윤			80	81	82	32	33				35	36
신쾌동	46	47	48	49	50							
한갑득						104	105	107	109			

김용실	58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위의 [표 4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김용실 거문고산조의 진양조에 나타난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25장단 중 6장단, 즉 제4장단, 제5장단, 제8장단, 제11장단, 제41장단, 제55장단, 제58장단은 비교대상선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의 19장단, 즉 제27장단부터 제38장단, 제42장단부터 제54장단, 제56장단부터 제57장단의 총 18장단의 원형가능선율은 김용실 거문고산조 진양조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의 진양조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진양조 18장단의 선율은 백낙준 원형선율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안기옥과 김용실의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과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진양조 내 원형가능선율을 비교하여 나타난 동일선율은 18장단이며, 이 18장단이 백낙준 원형선율이다.

(2) 원형선율 분석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18장단의 선율은 다음과 같다.

①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73)(백낙준 원형선율 제1~3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은 [악보 16]과 같다.

73) 본고에서 ‘부분 1’이라는 용어는 다음 항의 백낙준 원형선율 재구성에서 사용할 용어로, 본 항에서 미리 지정하여 사용한다. 그 이유는 백낙준 원형선율 19개의 장단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하는데, 그 상황에 적합한 단락을 맺어주기 위함이다.

[악보 16]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

김 정 정 동 오 - 동 당 동 당 동 정 동 정 동 정2 -

안 지 이 정 당 정 정 지 동 정2 정 동 당 동 당 지 동 정 지 동 정 지 동 정 정

임

신 지 이 지 이 정 정 동 지 이 정 동 당 동 당 동 당 동 당 동 당 정2 동 정2 동 지 이 정2

한

[악보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은 김용실과 안기옥, 신쾌동의 선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은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과 이어지는 장단으로 선율이 계속 이어지며, 우조청(C)계면조의 8째 선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은 [악보 17]과 같다.

[악보 17]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

김
지동 정2 동 정2 두담 지동 정 담 동 정 지리정2 정2 정2 동 정2

안
지동 정2 동 정2 두담 지포용 정2 담 동 지 리정 정4 정4 정2 정2

임

신
지동 정2 동 정2 두담 지동 정2 담 도정 지리정2 정4 정4 정 정2

한

[악보 17]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은 김용실과 안기옥, 신쾌동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에 연이은 장단이다. 또한, 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은 다음에 나올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3장단으로 이어지며, 우조청(C)계면조 8패 선율에 해당한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3장단은 [악보 18]과 같다.

[악보 18]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3장단

김
 3
 동 정2 정2 당 동 정 당 도 정2 동 지 이 정 정 정2

안
 살 정2 정2 당 지동 정2 다 로 령 동 다 아 ○ 당 동

임

신
 5
 동 정2 정2 당 동 정2 당 동 정 동 지 이 정 정 정2

한

[악보 1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3장단은 김용실과 안기옥, 신쾌동에서 나타난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2장단에 연이은 장단으로 선율이 계속 이어진다. 우조청(C)계면조 8패선율로 5박에서 5패로 패법을 옮기며 엇청(G)계면조의 선율을 예비한다.

②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2(백낙준 원형선율의 제4~6장단)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4장단은 [악보 19]와 같다.

[악보 19]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4장단

김
동 정2 정2 도 오 동 정2 동 정 이 정2 정2 정3 정3 정3 지 이 정2 정2

안
동 정2 정2 도 - 오 동 정2지동 정2 정2 정3 정3 정2 정2

임

신
동 정2 정2 동 정2 도 동 정 정 정2 이 정3 정3 정 - 정

한

[악보 1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4장단은 김용실과 안기옥, 그리고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3장단과 이어지는 장단이며, 다음에 나올 백낙준 원형선율 제5장단으로 이어서 연주되는 장단이다.

엇청(G)계면조 5괘 선율로, 5박째에 6괘로 이동하지만, 이 괘의 이동은 연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5장단은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5장단

김
당 정 동 당 정2 당 리 립 둥 당 두당 당

안
당 지정 지동 당 정2 당 정 정 둥 당 두당 당

임
—

신
정 지 이 정2 둥 당 둥 정2 당 도정2 둥 당 당 당당

한
—

[악보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5장단은 김용실과 안기옥, 신패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선 원형선율 제4장단과 연이어 연주하며, 다음에 나올 백낙준 원형선율 제6장단으로 이어진다. 엇청(G)계면조 5패 선율이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6장단은 [악보 21]과 같다.

[악보 21]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6장단

김
동 정3 도 오웃 동 당 도오오 오오 동 다 동 당 들

안
지동 정3 지동 동 당 동 다동 동 당 지동

임

신
동 정3 지도 오 움 동 당 당 도 오 움 동 동 동 당 당

한

[악보 21]을 보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6장단은 김용실과 안기옥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5장단에 연이은 장단으로 연주하며, 엇청(G)계면조의 5괘선율로 종지선율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장단부터 제6장단은 모두 김용실과 안기옥,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김용실과 안기옥, 신쾌동은 이 6장단의 선율을 각각 자신만의 산조 안에 구성하여 이어서 연주하였음을 알았다.⁷⁴⁾

74) 백낙준 원형선율 제1장단부터 제3장단까지가 같은 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1'로 지정하였고, 백낙준 원형선율 제4장단부터 제6장단까지가 같은 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2'로 나누어 지정하였다. 비록 6개의 장단이 연이은 장단이지만, 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구성의 편의상 부분 1과 부분 2로 분류하였다.

③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3(백낙준 원형선율 제7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7장단은 [악보 22]와 같다.

[악보 22]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7장단

[악보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7장단은 김용실과 신패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율이다. 대현 2패에서 연주하는 선율로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에 해당한다.

④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백낙준 원형선율 제8~12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8장단의 선율은 [악보 23]과 같다.

[악보 23]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8장단

김
 뜰살 정 정 정 뜰살 지 이 정2 정2 지 이 정 동 동

안

임

신
 살 정 정 도정 지 임2 지 임2 지 이 정 동 동

한

[악보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8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율로 8괘에서 연주하는 우조 청(C)계면조 내드름 장단이다. 다음에 오는 백낙준 원형선율 제9장단으로 이어진다. 한편, 제3박에 나타나는 김용실의 싸랭주법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9장단은 [악보 24]와 같다.

[악보 24]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9장단

김
정2 동 당 동 링 동 동 당 당

안

임

신
도 오-○ 동 당 도웅 동 동 동 당 당 동 동

한

[악보 2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9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8장단과 연이어서 연주하는 선율로, 8패 우조청(C)계면조 선율이다. 5박째에 김용실은 상청과 중청을 사용하여 종지감을 주지만, 신쾌동은 종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0장단은 [악보 25]와 같다.

[악보 25]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0장단

김 지 잉 동 당 동 경2 당 도 링 동 다 등 명 등 당 당

안

임 지동 정쾌동 당 정지동 당 리정 - 동 다 등 명 등 당 당

신 동 도 오 동 당 당 도 오 용 동 동 동 다동 당 등 당 당

한

[악보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 제10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윤,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패에서 연주하는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로, 앞선 원형선율 제9장단에 이어서 연주한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1장단은 [악보 26]과 같다.

[악보 26]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1장단

김
뜰살 정 정 정 동 정 정3 정2 지 이 - 잉 동 동

안

임
정 정 정 도 오지동 지정3 정2 지 이 정 정 동 동

신
뜰살 정2 지 이 정2 정2 정 지동 정3 정2 도 오 동 도지 - 동 동

한

[악보 26]에서 보이듯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1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윤,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선 원형선율 제10장단과 이어서 연주하는 선율로, 8패 우조청(C)계면조 선율의 내드름 선율이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2장단은 [악보 27]과 같다.

[악보 27]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2장단

김

정 정 등 등 등 등 등 지 이 정 등 정2 도 오오 등 당 당

안

임

정 정 등 등2 등2 등 등2 정 지 리도 등 정2 도림 정오 등 당 당

신

정 정 등 등 등 등 등 정 지 등 지 이 정2 도 오 용 등 당 당

한

[악보 2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2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운,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11장단에 이어서 연주하는 선율로, 8패에서 연주하며,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에 해당하고, 맺는 장단의 선율이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에 해당하는 원형선율 제8장단부터 제12장단까지 살펴보았다. 이 5장단은 8패에서 연주하는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로서, 내드름의 선율과 맺는 선율을 모두 갖춘 음악적 단락을 이룬 선율에 해당한다.

⑤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백낙준 원형선율 제13~17장단까지)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3장단은 [악보 28]과 같다.

[악보 28]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3장단

The musical score for the 13th measure of the Jin Yang Jo section is presented across five staves, each corresponding to a different vocal part.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labeled with the measure number '13'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staff.

- 김 (Kim):** The first staff shows a melodic line starting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ending with a quarter note. The lyrics below are: 뜰살 정 정 정 뜰살 지이정 정2 지이 정 둥 둥.
- 안 (An):** The second staff is empty, indicating no part for this voice in this measure.
- 임 (Im):** The third staff shows a melodic line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followed by a quarter note, and ending with a quarter note. The lyrics below are: 살 정 지이 정 지이 정 지이 도웅 둥 당.
- 신 (Shin):** The fourth staff is empty, indicating no part for this voice in this measure.
- 한 (Han):** The fifth staff shows a melodic line starting with a quarter note, followed by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ending with a quarter note. The lyrics below are: 뜰살 정 정 정 정 - 잉 정 도 웅 둥 둥.

[악보 2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3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윤,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괘에서 연주하는 우조 청(C)계면조의 선율로, 내드름 선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4장단은 [악보 29]와 같다.

[악보 29]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4장단

김
14
정2 정2 정2 정2 지 리 정 정 도 오 웅 둥 둥 둥

안

임
3 3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도 - 웅 둥 도 - 웅 둥 둥 다둥 둥

신

한
정2 정2 정2 둥 지 이 정2 정 - 이 정 둥 둥

[악보 2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4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윤,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백낙준 원형선율 제13장단에 이어서 연주하는 백낙준 원형선율 제14장단은 8패에서 연주하는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5장단은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5장단

김
들 살 정5 지 리 정5 정5 정5 - 정5 정5 정4 정4 정2 정2 정2 정 정

안

임

신

한
들 살 정5 정5 정5 정5 정4 정4 정3 정2 정2 정2 정2 정 정 정

[악보 3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5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선율에 해당한다. 이 이 선율은 8패선율로,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이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6장단은 [악보 31]과 같다.

[악보 31]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6장단

16

김

들살 정 이 동 동 동 동 도 오 용 동 동 당 동 당 두당 동

안

임

신

한

들살 동 동 당 당 정 당 당 당 당 도 용 동 당 두당 당

[악보 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6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괘에서 연주하는 우조청(C)계 면조의 선율에 해당하는 백낙준 원형선율 제16장단은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15장단에 이어서 연주하는 선율이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7장단은 [악보 32]와 같다.

[악보 32]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7장단

김
땡 땡 두땡 둥 당 둥 둥 다 땡2 땡 둥 당 당

안

임
땡 땡 둥 둥 저둥 당 둥 둥 다 땡 땡 둥 당 당

신

한

[악보 3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7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패에서 연주하는 우조청 계면조의 선율로, 전반부는 엇청(F)계면조의 선율인것처럼 보이나, 후반부는 우조청(C)계면조의 맺는 선율이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의 선율(백낙준 원형선율 제 13장단부터 제17장단까지)을 살펴보았다. 이 5개의 장단은 8패에서 연주하는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로서, 내드름과 맺는 장단을 모두 갖춘 음악적 단락을 이룬 선율군에 해당한다.

⑥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6(백낙준 원형선율 제18~19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8장단은 [악보 33]과 같다.

[악보 33]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8장단

[악보 3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제18장단은 김용실과 임석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째에서 연주하는 우조청계면조의 선율로 내드름의 성격을 지닌 선율이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6의 한장단, 즉 백낙준 원형선율 제18장단은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로 내드름장단이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18장단을 모두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분 2의 엇청(G)계면조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부분은 우조청계면조의 선율에 해당한다.

8괘와 5괘, 2의 연주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음악적 단락을 이룬 선율군이 대부분이며, 1장단만 나타난 원형선율도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 조성, 청의 음고, 괘의 위치와 이동

부분	장단수	조성	청	괘
1	3	우조청계면조	C	8(2), 5(1)
2	3	엇청계면조	G	5(1/2), 6(1/2), 5(1)
3	1	우조청계면조	C	2
4	5	우조청계면조	C	8
5	5	우조청계면조	C	8
6	1	우조청계면조	C	8(1)

2) 중모리

(1) 원형선율

백낙준의 원형선율을 찾기 위해 필요한 선율군 가운데, 안기옥의 중모리는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중모리는 김용실의 선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김용실 거문고산조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9장단 가운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거문고산조 중모리 원형가능선율과 공통으로 나타나는 선율은 [표 42]와 같다.

[표 42] 김용실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9장단과 임석윤·신쾌동·한갑득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김용실	2	18	19	20	26	27	29	31	33
임석윤									
신쾌동		46	47	48					
한갑득		79	80	81					

[표 42]를 보면, 김용실 거문고산조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9장단 가운데, 제2장단, 제26장단, 제27장단, 제29장단, 제31장단, 제33장단의 5장단은 비교대상선율이 없고, 나머지 3장단, 즉 제18장단, 제19장단, 제20장단의 중모리선율은 임석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선율을 찾을 수 있다.

김용실 거문고산조의 중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9장단 가운데 3장단, 즉, 제18장단, 제19장단, 제20장단은 백낙준 원형선율이다.

(2) 원형선율 분석

①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백낙준 중모리 원형선율 제1장단부터 제3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1장단은 [악보 34]와 같다.

[악보 34]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1장단

김
 뜰살 당 당 도웅 뜰 동 당 도오 웅 뜰 덩 동 덩

임

신
 살 다 앙 도 웅 - 도웅 당 지이 동 지덩 동 덩

한
 살 당 도 오 웅 동 당 지이 징 지덩 동 덩

[악보 34]에서 볼 수 있듯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1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7괘에서 연주하는 평조청(Bb)평조의 선율로 내드름의 성격을 지닌 선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2장단은 [악보 35]와 같다.

[악보 35]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2장단

김
두 웁 둥 둥 당 정 다 텨 당 도 웁 지 임 정 둥 당 둥

임

신
두 웁 둥 둥 당 정 도 라 텨 당 지 임 지 이 - 정 둥 당 당 둥

한
두 웁 둥 둥 당 정 둥 라 텨 당 정 지 이 - 정 지 당 당 둥

[악보 3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2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7패에서 연주하는 평조청(Bb)평조의 선율로, 앞선 선율인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1장단에 연이은 장단에 해당한다. 앞선 장단인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1장단의 내드름 장단 뒤에 온 선율인 만큼 선율을 이어주며, 후반부에는 우조청(C)계면조의 8패선법으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백낙준 원형선율 제3장단은 [악보 36]과 같다.

[악보 36]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3장단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four voices: 김 (Kim), 임 (Im), 신 (Shin), and 한 (Han).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b and Eb),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김: 살 당 동 당 링 지 잉 동 지 정 동 당 동 다 동 당 뜰

임: (Empty staff)

신: 살당 당 도 웅 동 동 당 동 동 다 동 당 당

한: 스트럼 당 뜰 당 동 정2 정2 동 당 동 뜰 당 뜰

[악보 3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3장단은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보인다.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제2장단에 연이은 장단으로, 8패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로 맺는 성격의 장단이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은 총 3장단의 선율로, 평조청(Bb)평조의 7패법 선율 2 장단과 우조청(C)계면조의 8패법 선율 1장단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내드름과 다는 장단, 그리고 맺는 장단의 성격을 지닌 3장단 한 마루가 음악적 단위를 이룬 선율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부분	장단수	조성	청	패
1	2	평조청 평조	Bb	7(2)
	1	우조청 계면조	C	8(1)

3) 자진모리

(1) 원형선율

본 항에서는 안기옥과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의 각각의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을 비교하여 백낙준 원형선율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안기옥과 김용실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 가운데 먼저 안기옥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50장단과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각각의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비교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를 보면,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50장단과,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각각의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의 동일선율은 총 18장단이다.

안기옥 제2장단과 제3장단, 제20장단부터 제25장단, 제42장단부터 제50장단, 제56장단에 해당하는 총 18장단이다.⁷⁵⁾

75) 후설하겠지만,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선율 장단수는 총 18장단이다. 이 가운데, 맺는 장단은 4장단(안기옥 제20장단, 제42장단, 제43장단, 제56장단)에 해당한다. 이 맺는 장단은 백낙준 원형선율 재구성에 적합한 음악적 구성단위를 갖추지 못한 선율로, 백낙준 원형선율 재구성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선율 장단수에는 포함한다.

[표 44] 안기옥의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 50장단과 김종기·임석윤·신쾌동·한갑득의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 비교

안기옥	1	2	3	4	5	6	7	12	13	16	17	18
김종기		36	37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안기옥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207	208								
한갑득		59	285	286	287	288	289					

안기옥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57	
한갑득												59

안기옥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434 /435	434 /435	439	440	441	442	443					

안기옥	56	57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425	

다음으로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선율을 중심으로 선율 비교 하기에 앞서, 안기옥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 내 백낙준 원형 가능선율을 먼저 비교하고자 한다. 김용실은 안기옥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동일한 선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복된 선율비교를 피하기 위해 안기옥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을 먼저 비교하여 두 선율 가운데 동일하게 나온 선율은 김용실 원형가

능선율에서 제외한다.

[표 45] 안기옥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안기옥	1	2	3	4	5	6	7	12	13	16	17	18
김용실		16	17	35	36	37						

안기옥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김용실		68	60	61	62	63	64					

안기옥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김용실											9	

안기옥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김용실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안기옥	56
김용실	92

[표 4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선율은 모두 25장단이다.

안기옥 제2장단(김용실 제16장단), 안기옥 제3장단(김용실 제17장단), 안기옥 제4장단(김용실 제35장단), 안기옥 제5장단(김용실 제36장단), 안기옥 제6장단(김용실 제37장단), 안기옥 제20장단(김용실 제68장단), 안기옥 제21장단부터 제25장단까지(김용실 제60장단부터 제64장단까지), 안기옥 제42장단(김용실 제9장단), 안기옥 제44장단부터 제56장단까지(김용실 제80장단부터 제92장단까지)의 총 25장단이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안기옥과 김용실에서 나타난 중복선율 25장단을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 99장단에서 제외한다. 즉, 김용실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74장단과 김중기, 임석윤, 신채동, 한갑득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백낙준 원형선율을 추출하였다.

김용실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종기, 임석운, 신쾌동, 한갑득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 비교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김용실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 김종기·임석운·신쾌동·한갑득의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 비교

김용실	2	3	4	5	6	7	8	9x	10 (69)	11	12	13
김종기												
임석운												
신쾌동	3	4	신.연5 76)	35	36/ 신.연8	신.연9	신.연1 0	안기옥 과중복	114			
한갑득												

김용실	14	15	16x	17x	18	19	20	21	22	23	24	25
김종기												
임석운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신쾌동		57						4			57	
한갑득												92

김용실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x	36x	37x
김종기												
임석운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신쾌동												
한갑득	134	135	136	137	138	139						

김용실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김종기												
임석운												
신쾌동				231	232	233						
한갑득				265	266		269					

김용실	50	51	52	58	59	60x	61x	62x	63x	64x	65	66
김종기												
임석운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신쾌동											225	248
한갑득			59		59							

76) 정대석 편저, 『거문고산조 세바탕』의 악보구성 가운데, 19쪽에 자진모리연습곡 16번이 있다. 이 연습곡 16번은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가운데, 짧은 산조를 구성할 때 쓰이는 선율에 해당하는다. 위에서 사용한 ‘신.연’의 용어는 ‘신쾌동류 연습곡’이라는 용어의 줄임말로, 이 자진모리 연

김용실	67	68x	69 (10)	70	71	72	73	74	75	76	77	78
김종기		안기옥 과중복										
임석윤												
신쾌동			114	115	116	117	118/1 19	118/1 19	121	122	123	
한갑득			329	330	331	332	334/3 35	334/3 35	336	337	338	

김용실	79	80x	81x	82x	83x	84x	85x	86x	87x	88x	89x	90x
김종기		안기옥 과중복										
임석윤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신쾌동												
한갑득	133											

김용실	91x	92x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김종기	안기옥 과중복	안기옥 과중복										
임석윤												
신쾌동						130	131	132				
한갑득												

김용실	103	104	105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표 46]을 보면,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자진모리 내 원형가능선율과의 동일선율은 총 39장단이다.

김용실 제2장단과 제3장단, 제5장단과 제6장단, 제10장단과 제15장단, 제21장단, 제24장단부터 제31장단, 제40장단부터 제43장단, 제52장단, 제59장단, 제65장단, 제66장단, 제69장단부터 제77장단, 제79장단, 제96장단부터 제98장단의 총 39장단은 백낙준 원형선율에 해당한다.

습곡 16번의 선율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은 18장단이며,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은 39장단이다.

(2) 원형선율 분석

①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2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장단과 제2장단은 [악보 37]과 같다.

[악보 3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장단

안

살 정2 정2 정2 정2 도 둥

김

틀 살 정2 정2 도 정2

신

한

[악보 3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장단은 안기옥과 김종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3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장단

안

슬기둥 둥 둥 둥 둥

김

둥 둥 더 영 둥

신

한

[악보 38]에서 보듯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장단은 안기옥과 김종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1은 총 2장단의 자진모리 선율로서, 안기옥과 김종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패 연주법으로 우조청(C)계면조선율이며, 내드름의 성격을 지닌 첫 번째 장단과 그 첫 장단의 선율을 한 옥타브 내려서 연주한 두 번째 장단으로 선율적 대구(對句)를 이룬다.⁷⁷⁾

②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2(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장단의 선율은 [악보 39]와 같다.

77) 그러나 이 두 장단만으로는 산조의 음악적 구성단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백낙준 원형선율로만 밝히고, 다음 장의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 부분에서는 이 선율은 사용하지 않겠다.

[악보 3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장단

[악보 3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장단은 5개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로서, 맺는 장단이다.⁷⁸⁾

③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3(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8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장단부터 제8장단의 선율은 [악보 40]과 같다.

78) 이 자진모리 맺는 장단은 음악적 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로, 다음항의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 또한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맺는 성격의 한 장으로 된 자진모리는 안기옥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에서는 4장단, 김용실 자진모리 원형가능선율에서는 6장단으로 총 10장단의 맺는 선율이 나오지만, 이 10장단은 악보와 설명은 생략하겠다. 단, 안기옥과 김용실 자진모리 거문고산조 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장단수에는 포함한다.

[악보 4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장단

안

살 당 당 도 응 당 당

김

신

뜰 살 지 다 양 동

한

뜰 살 당 뜰 동 당

[악보 4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장단은 안기옥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5장단

안

살 지 잉 정 다 양 동 동

김

신

뜰 살 지 이 정 도 응 동

한

뜰 살 정 정 당 동

[악보 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5장단

은 안기옥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6장단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staves are labeled on the left as '안' (An), '김' (Kim), '신' (Shin), and '한' (Han).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안' staff has a melodic line with a slur over the first three notes. The '김' and '신' staves contain whole rests. The '한' staff has a melodic line. The lyrics are: 안: 살 지 잉 당 동 당 정2; 김: (rest); 신: (rest); 한: 들 살 정2 당 동 당 정2.

[악보 4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6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7장단

안 정2 당 당 정 정 당 정

김

신

한 정2 당 당 정 정 명 뜰 똥

[악보 4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7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8장단

안 정2 명 명 두 응 똥 명 명 명

김

신

한 똥 명 명 뜰 정 명 당

[악보 4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8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장단부터 제8장단의 선율은 7패에서 연주하며, 엇청(E \flat)계면조의 5장단의 연이은 선율로서, 안기옥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또한 내드름과 다는 장단, 그리고 맺는 장단의 음악적 구성력을 갖춘 선율로서,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선율이다.

④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9~15장단)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4는 총 7장단의 선율로 이루어진 선율로 악보를 제9장단부터 제15장단은 [악보 45]와 같다.

[악보 4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9장단

안

당 둥 둥 둥 당 둥 도 웅 뜰

김

신

한

당 둥 둥 둥 당 둥 둥 둥

위의 [악보 4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

9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0장단

안

당 둥 둥 뿔 당 둥 도 웁 뿔

김

신

한

당 둥 징 징 지 둥 징 둥

[악보 4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0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1장단

안

당 로 풀 당 링 풀 당 로 풀

김

신

한

당 동 동 당 징 동 당 동 동

[악보 4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1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2장단

안

당 로 풀 당 링 당 당 링 풀 당 징 당

김

신

한

당 동 동 당 징 동 당 동 동 당 징 동

[악보 4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2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4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3장단

안

당 텅 다 앙 정 동 다 앙 정 정

김

신

한

당 정 당 정 정 당 정 정

[악보 4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3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4장단

안: 정2 도 웅 뜰 당 뜰 둥 당

김: -

신: -

한: 정2 둥 둥 당 당 둥 당 당

[악보 5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4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5장단

안: 둥 다 둥 ^大더 영 둥 당 뜰

김: -

신: -

한: 둥 당 당 당 당 당 당

[악보 5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5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의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7장단을 살펴본 결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의 총 7장단은 안기옥과 한갑득에서만 동일하게 나타난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의 총 7장단은 5개의 엇청(G)계면조의 선율이며, 내드름과 달아가는 장단, 그리고 맺는 장단으로 이루어진 음악적 구성을 갖추었다.⁷⁹⁾

⑤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5(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6~22장단)⁸⁰⁾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5에 해당하는 선율은 총 7장단으로 악보를 우선 기재한 뒤에 8장단 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그 선율은 [악보 52]와 같다.

79) 안기옥 산조 내 백낙준 원형선율은 총 18장단이다. 그러나 악보상으로 제15장단까지만 설명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자진모리 맺는 선율에 대한 반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서이다. 재기술하면, 안기옥 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는 총 18장단이며, 한 장단의 맺는 선율은 총 4장단이고, 이 가운데 맺는 선율 1장단을 앞서 기술하였기에 현재까지 안기옥 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는 악보상 15장단만을 기재한다. 단,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장단숫자는 여전히 18장단으로 기술한다.

80)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1부터 부분 4의 선율은 안기옥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중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백낙준 원형선율이다. 또한,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5의 선율은 김용실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중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백낙준 원형선율이다.

[악보 5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6장단

김: 등, 등, 당, 당, 등, 당, 당

신: 등, 등, 당, 당, 등, 당, 정

한: 등, 등, 당, 물, 등, 당, 정

[악보 5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6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7장단

김: 당, 등, 물, 명, 물, 上, 中, 下

신: 당, 등, 등, 명, 물, 명, 명, 명

한: 당, 등, 등, 명, 물, 명, 명, 명

[악보 5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7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8장단

김: 등, 당, 당, 정, 정, 당, 정, 정

신: 등, 당, 당, 정, 뜰, 당, 정

한: (empty staff)

[악보 54]를 보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9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9장단

김: 등, 등, 당, 정, 정, 당, 정

신: 등, 등, 당, 정, 당, 정, 뜰

한: (empty staff)

[악보 55]를 보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9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0장단

Kim: 정, 명, 명, 동, 당, 정, 정

Shin: 명, 동, 당, 정, 뜰

Han: (rest)

[악보 5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0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1장단

Kim: 뜰, 명, 명, 뜰, 당, 정, 당

Shin: 명, 동, 동, 동, 당, 정, 뜰, 당

Han: (rest)

[악보 5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1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5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2장단

[악보 5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2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5의 7장단을 살펴본 결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16장단과 제17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제18장단부터 제22장단까지의 선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의 7장단은 모두 우조청(C)계면조의 선율로 5패에서 연주하는 선율에 해당하며, 내드름과 다는 장단, 그리고 맺는 장단을 모두 구비한 음악적 구성력을 갖춘 선율군으로, 백낙준 원형선율 재구성에 적합한 선율이다.

⑥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6(백낙준 원형선율 제23, 24장단)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6은 백낙준 원형선율 제23장단과 제24장단으로, 선율의 단위가 한 장단씩으로 이루어진 선율들이다. 그 선율은 [악보 59]와 같다.

[악보 5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3장단

김
살정2 정2 정2 정2 정2 뜰

신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한

[악보 59]의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3장단의 선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 동시에 나타나는 선율로서, 5개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에 해당한다.⁸¹⁾

[악보 6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4장단

김
당 동 뜰 덩 뜰 덩 덩 뜰

신
당 동 뜰 덩 뜰 덩 덩 뜰

한

[악보 60]의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4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 동시에 나타나는 선율로서, 5개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에 해당한다.⁸²⁾

81) 이 한 장단의 선율은 내드름의 성격의 선율로서 음악적 선율군을 이루지 못하여 본고의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의 선율로서 사용하지는 않겠다.

82)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24장단처럼, 음악적 구성단위가 한 장단만 있는 선율로, 백낙준 원형선율 가운데, 맺는 장단과 같이 음악적 재구성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⑦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7(백낙준 원형선율 제25~31장단까지)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7의 선율은 모두 7장단의 선율로 [악보 61]과 같다.

[악보 6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5장단

김 스트당 당 둥 당

신 스트당 당 당 둥 당 당

한

[악보 6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5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나타난다. 8패선율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로, 내드름 선율이다.

[악보 6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6장단

김 둥 지 이 정2 지 둥 당

신

한 둥 링 둥 플 당 플

[악보 6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6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앞선 백낙준 원형선율 제25장단과 연이은 장단으로, 8괘 우조청 계면조 선율이다.

[악보 6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7장단

김
동 지 이 정2 동 당 동 동 당

신

한
동 링 동 뜰 동 당

[악보 6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7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나타난다.

[악보 6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8장단

김
동 지 이 정2 정2 뜰 당

신

한
동 링 동 링 동 당 뜰

[악보 6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8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나타난다.

[악보 6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9장단

Kim: 동 링 뜰 동 당 당

Shin: (empty staff)

Han: 동 링 동 링 동 동 당

[악보 6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29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나타난다.

[악보 6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0장단

Kim: 동 링 정 동 뜰 당 당 뜰

Shin: (empty staff)

Han: 동 링 뜰 동 당 뜰 뜰

[악보 6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0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나타난다.

[악보 6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1장단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김 (Kim): The melody starts with a half note G4, followed by a quarter note A4,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D5, a quarter note E5, a quarter note F5, and a quarter note G5. The lyrics are: 둥, 링, 정, 둥, 당, 등, 당, 뜰.

신 (Shin): The staff is empty, indicating no melody for this part.

한 (Han): The melody starts with a half note G4, followed by a quarter note A4,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D5, a quarter note E5, a quarter note F5, and a quarter note G5. The lyrics are: 둥, 링, 뜰, 둥, 당, 등, 뜰.

[악보 6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1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나타난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7의 7장단을 살펴본 결과, 이 7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7의 7장단은 8괘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에 해당하며, 내드름과 다는 장단, 맺는 장단의 음악적 구성력을 갖춘 선율이다.

⑧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백낙준 원형선율 제32~35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의 자진모리 선율은 총 4장단의 선율로서, [악보 68]과 같다.

[악보 6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2장단

Kim: 살 정2 정 정

Shin: 뜰 살 정 정

Han: 뜰 살 정2 정 정

[악보 6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2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6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3장단

Kim: 명 뜰 당 정 정

Shin: 당 당 정2 정 정

Han: 명 명 당 정 정

위의 [악보 6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3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4장단

Kim:
 ㄹ ㄹ ㄹ ㄹ ㄹ ㄹ
 덩 덩 당 정 정 당

Shin:
 ㄹ ㄹ ㄹ ㄹ ㄹ ㄹ
 덩 덩 둥 당 정 당

Han:
 - - - - -
 (Silent)

[악보 7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4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5장단

Kim: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덩 덩 당 당 정 정 당 당

Shin:
 - - - - -
 (Silent)

Han: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덩 덩 정 정 덩 덩 정 정

[악보 7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5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의 4장단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의 4장단은 엇청(F)계 면조의 선율로서, 7괘에서 연주하는 선율이다. 내는 장단과 다는 장단, 그리고 맺는 장단의 음악적 구성단위를 이루고 있다.

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9(백낙준 원형선율 제36~37장단)

[악보 7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6장단

Kim: 太 (Ta) - - - - -
 Shin: 슬기둥2 (Seulgidung2) - - - - -
 Han: 두 (Du) - - - - -

[악보 7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6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7장단

Kim: 지당 (Jidang) - - - - -
 Shin: 당 (Dang) - - - - -
 Han: - - - - -

위의 [악보 7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7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9의 2장단을 살펴

보면, 8괘의 우조청 계면조의 선율이다. 내는 장단과 맺는 장단이 없이, 달아가는 성격의 두 장단만으로, 음악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⁸³⁾

⑩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0(백낙준 원형선율 제38~46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0은 총 9장단으로 이루어진 선율로 [악보 74]와 같다.

[악보 7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8장단

김
살 정2 텅2 정2 정2 정2 정2 정2

신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정2

한
살 정2 뜰 정2 정2 정2 정2

[악보 7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8장단은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83) 이렇게 발견된 백낙준 원형선율 중, 음악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선율은 다음 항에서 백낙준 산조를 재구성하기는 어려우나, 그 선율의 가치가 백낙준 원형선율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차후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러한 선율이 재구성 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발견되어야 한다.

[악보 7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9장단

김
살 동 당 당 정 당 당 당

신
살 정2 뜰 정 동 당

한
살 동 뜰 당 뜰 동 당

[악보 7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39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0장단

김
살 정2 뜰 당 뜰 정 당

신
뜰 살 정2 뜰 당 뜰 정 당

한
살 정2 뜰 당 뜰 정 당

[악보 7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0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1장단

김
뜰살 징 살 징 뜰 당 당

신
뜰살 징 살 징 뜰 당 당

한
스르징 징 스투징 징 징 당

[악보 7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1장단은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8]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2장단

김
뜰살 징 뜰 당 뜰살 징2 징2 당

신
뜰살 징 뜰 당 당 징 뜰 당

한
스르징 징 뜰 당 뜰 징 뜰 당

[악보 7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2장단은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7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3장단

Kim: 뜰살 정 뜰 당 뜰살 정2 정2 당

Shin: 당 정2 뜰 당 뜰 정 뜰 당

Han: 당 정2 뜰 당 뜰 정 뜰 당

[악보 7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3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8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4장단

Kim: 당 당 정 당 당 정2 당 당 정

Shin: 당 당 정 당 당 정2 당 당 정

Han: 당 당 정 당 당 정2 당 당 정

[악보 8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4장단은 김용실과 신쾌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8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5장단

김: 당, 당, 정, 정, 당, 링, 정

신: 당, 정, 당, 정, 뜰, 당, 뜰, 정

한: 당, 당, 정, 당, 뜰, 당, 뜰, 당, 뜰

[악보 8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5장단은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악보 8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6장단

김: 덩, 둥, 당, 정, 당

신: 덩, 둥, 둥, 당, 정, 뜰, 당

한: 뜰, 둥, 뜰, 덩, 덩, 당, 정

[악보 8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6장단은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0의 총 9장단을 살펴본 결과, 이 9장단은 우조청계면조의 5괘 선율로, 김용실과, 신채동, 한갑득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았다. 내드름과 다는 장단, 맺는 장단의 음악적 형식을 구비한 선율에 해당한다.

⑪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1(백낙준 원형선율 제47~49장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1은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8장단부터 제50장단까지의 3장단으로 이루어진 선율로서, [악보 83]과 같다.

[악보 8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7장단

The musical score for [악보 83] consists of three staves labeled 김 (Kim), 신 (Shin), and 한 (Han). Each staff contains a melody in a key with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notes are quarter notes, and the lyrics '땡 땡 정 정 땡 땡 정2 정2'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Shin staff is empty, indicating a rest or a different part of the melody.

[악보 8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7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2패 우조청 계면조 선율에 해당한다.

[악보 8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8장단

The musical score for [악보 84] is identical to [악보 83], showing three staves labeled 김 (Kim), 신 (Shin), and 한 (Han) with the same melody and lyrics '땡 땡 정 정 땡 땡 정2 정2'.

위의 [악보 8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 48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2괘 우조청 계면조 선율에 해당한다.

[악보 8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9장단

[악보 8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제49장단은 김용실과 한갑득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2괘 우조청 계면조 선율에 해당한다.

안기옥과 김용실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 조성, 청의 음고, 꺾의 위치와 이동

부분	장단	조성	청	꺾
1	2	우조청 계면조	C	8
2	1	우조청 계면조	C	5
3	5	엇청 평조	E \flat	7
4	7	엇청 계면조	G	5
5	7	우조청 계면조	C	5
6	2	우조청 계면조	C	5
7	7	우조청 계면조	C	8
8	4	엇청 계면조	F	8
9	2	우조청 계면조	C	8
10	9	우조청 계면조	C	8
11	3	우조청 계면조	C	2

이로써 백낙준이 직접 연주하여 남긴 음반 음원의 진양조 62장단, 중모리 67장단, 자진모리 118장단의 선율 외의 백낙준의 선율, 즉 백낙준의 제자 및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 속에 담겨져 있던 백낙준 원형선율 진양조 18장단, 중모리 3장단, 자진모리 57장단⁸⁴⁾을 추출하였다.

84) 자진모리 같은 경우, 안기옥과 김용실의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 자진모리 내 백낙준 원형가능선율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낸 동일선율은 총 57장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장단 가운데, 한 장단만 추출된 선율이거나, 한 장단의 맺는 선율은 총 9장단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에 해당하기는 하나, 백낙준 거문고산조를 재구성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악보를 기재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는 57장단에서 9장단을 제외하여야 하며, 생략하고자 하는 맺는 장단 9장단의 한 예를 확인하기 위하여 48장단에 한 장단을 더한 49장단만 악보로 제시하였다.

4. 백낙준 원형선율 재구성

본 장에서는 두 단계에 걸친 선율 비교를 통해 추출해낸 백낙준 원형 선율을 백낙준이 음원으로 남긴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진양조

(1) 전승선율 분석

백낙준 거문산조의 원형선율을 백낙준 거문고산조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로는, 청의 음고, 조⁸⁵⁾, 패법, 패법의 이동, 조의 변화순서 등이 있다. 또한 백낙준 원형선율 가운데, 음악적 구성단위를 갖춰야 하는 요소도 고려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백낙준 원형선율을 백낙준 전승선율 안에 재구성한다.

우선 백낙준 거문고산조 전승선율의 조 구성 및 청, 패법 등을 살펴보면 [표 48]과 같다.

85) 거문고산조의 청과 조의 변화에 따라, 청높이가 우조청으로 이루어진 평조와 계면조를 각각 우조청 평조, 우조청 계면조로, 청높이가 평조청으로 이루어진 평조와 계면조를 평조청 평조, 평조청 계면조, 청높이가 엇청으로 이루어진 평조와 계면조를 엇청 평조, 엇청 계면조로 나누어 살펴본다. (황준연,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 『민족음악학』 제8집, 서울대학교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95. 참조)

[표 48]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부분	장단	장단수	조성	청	패이동순서
1	제1장단-제4장단	4	우조청 계면조	C ₈₆₎	4(3) ⁸⁷⁾ , 8(1)
2	제5장단-제6장단	2	엇청 계면조	G	8(2)
3	제7장단-제9장단	3	우조청 계면조	C	8(2) 4(1)
4	제10장단-제12장단	3	평조청 평조	Bb	4(3)
5	제13장단-제15장단	3	우조청 계면조	C	5(3)
6	제16장단-제23장단	8	엇청 계면조	G	5(1) 7(1) 5(1) 8(1) 7(1) 5(3)
7	제24장단-제35장단	13	우조청 계면조	C	5(3) 2(3) 5(2) 8(5)
8	제36장단-제37장단	2	엇청 계면조	G	8(2)
9	제38장단-제62장단	25	우조청 계면조	C	8(25)

[표 48]을 보면, 백낙준이 음원으로 전한 진양조는 모두 9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낙준 전승선율 진양조에서 사용된 조는, 우조청(C) 계면조, 엇청(G) 계면조와 평조청(Bb) 평조가 사용되었으며, 또한 패의 사용은, 4패법, 5패법, 7패법, 8패법 등의 패법을 사용하였다.

하나의 조성 안에서의 패 이동도 있으나, 우조청(C) 계면조는 주로 5패와 8패, 그리고 2패에서 주로 연주하고, 평조청(Bb) 평조는 4패에서, 그리고 엇청(G)계면조는 8패와 5패, 7패 등을 사용하였다.

86) 백낙준이 실제 남긴 음원의 청의 음고는 실음 B 음에 가까우나, 논의의 편의상 청의 음고를 C로 채보하여 비교하며, 이 새로운 청의 음고 C에 맞게 평조청과 우조청도 같이 이조시킨다.

87) 괄호안의 숫자는 장단수를 의미한다.

앞 장에서 상술하였듯이, 백낙준 원형선율 진양조 18장단은 6부분으로 구분하며, 각 부분별 선율을 백낙준 진양조 전승선율 안에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전승선율과 원형선율의 재구성

①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부분 2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부분 2의 6장단은 연이은 장단으로, 이 장단은 김용실과 신헌동 거문고산조 진양조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2의 선율을 백낙준 전승선율과 비교하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2의 조성은 우조청계면조와 엇청계면조로 이루어져있으며, 궤의 이동순서는 8궤, 5궤 6궤 5궤의 진행순서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백낙준 전승선율 가운데,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2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원형선율 1의 전반부 조성이 우조청 계면조이기 때문에 전승선율이 우조청 계면조가 적합할 것이고, 원형선율 2의 후반부 조성이 엇청(G본청)계면조 5궤이기 때문에 후반부의 백낙준 전승선율은 엇청계면조가 적합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성적 전개를 가지고 있는 백낙준 전승선율은 총 4부분으로, [표 48]에서 살펴본 백낙준 전승선율에 따르면, 부분 1과 2 사이, 부분 5와 6사이, 부분 7과 8 사이, 부분 9가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6의 8장단 가운데, 4번째 장단, 즉 백낙준 전승선율 진양조 제19장단의 선율부터 제22장단의 선율의 흐름이 8궤, 6궤, 5궤의 하행궤법이며,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7의 조가 엇청 계면조로 진행한다.

이러한 진행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2의 흐름과 유사하며,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2가 출현한 김용실 진양조와 신헌동 진

양조의 전·후의 선율, 다시 말하면, 김용실과 신쾌동의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2의 앞 선율, 뒷 선율의 선율 전개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6의 8장단 가운데 백낙준 전승선율 제22장단의 선율의 흐름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2는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6의 제20장단, 제21장단, 제22장단의 제2선율로서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 선율은 다음의 [악보 86]과 같다.

[악보 86]에서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0장단부터 제22장단을 A선율로 표기하였으며,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부분 2의 6장단을 B로 표기하였다.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0장단부터 제22장단까지의 A선율 부분의 제2선율 역할을 하는 선율로서 B로 표시하였다.

[악보 86]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0~22장단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과 2

백20

도 당 다 당 뜰 닷_____ 다 도 옷 당 뜰 도옹

백21

정2 뜰 지이 잉_____ 정1_____ 당 당 지잉

백22

둥 다 둥 도옹 당 두 우옹 당 더잉 둥 당 뜰

원형선율부분1

정1 정1 도 — 옷 둥 당 둥 당 둥 정1 둥 정1 둥 정2_____

원형선율부분1

깃둥 깃 둥 정2 두당_____ 깃둥 정1 다 도 정 지리 정_____ 정2 정2 정1 정2

원형선율부분1

도 깃 정 다 둥 정2 다 로 정1 둥 정1_____ 정1 정2

원형선율부분2

도 정2 정2 도 — 둥 정2 도 정2_____ 정2 정3 잉 정3 정2_____

원형선율부분2

당 정1 둥 당 정1 다 로 정1 둥 당 두당 뜰

원형선율부분2

둥 정3 둥_____ 둥 당 도_____ 둥 다 둥 당 당_____

백23

당 다 두옹 당 두 우옹 둥2 당

②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3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3은 우조청 계면조 1장단으로 2패에서 연주한다.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가운데, 같은 조, 같은 패를 연주하는 위치는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7이다.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7 가운데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3의 1장단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위치는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7장단 이후로 하여 재구성한다.

그 선율은 다음의 [악보 87]과 같다.

[악보 87]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27~28장단 및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3

백27

동1 드 으 응 동1 동1

원형선율 부분3

정1 정1 정1 정 정2 정2 정2 정1 정1 정2 정2

백28

동1 드응 동2 뜰 동1 동1 뜰

③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의 조성은 우조청계면조로, 8패로 연주하는 5개의 장단으로, 백낙준 전승선율의 우조청계면조 8패인 곳에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의 선율이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백낙준 전승선율의 우조청 계면조 8패는 전승선율 부분 7과 부분 9로, 이 가운데 부분 7의 마지막 장단인 제35장단은 그 뒤에 엇청으로 변하는 선율이 있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부분 9에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며, 그 가운데 제40장단은 선율이 맺는 부분으로 끝나므로, 이 이후에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

양조 부분 4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백낙준 전승선율 제40장단 이후에 원형선율 부분 4를 재구성한다.⁸⁸⁾

[악보 88]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40장단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4

백40

도오 정3 도오 오 웃도웅 당 도 웃도웅 다 등 뜰당 뜰
원형선율부분4
정1 정1 정1 뜰 정2 정2 정1 도 등
원형선율부분4
정1 등 다 로 정 등 등 당 정 정 당 뜰
원형선율부분4
정1 등 다 로 정 다 로 정 등 다 등 텅 등 당 뜰
원형선율부분4
뜰 정1 정1 정1 도 정1 정3 정2 정1 등 등
원형선율부분4
정1 정1 등 등 등 등 등 정1 등 정2 등 등 당 뜰

88)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4를 백낙준 진양조 전승선율 40장단 뒤에 위치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바로 다음에 오는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5 또한 백낙준 진양조 전승선율 40 장단 뒤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살펴볼겠지만.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6 같은 경우는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4 뒤에 연결하여 구성한다. 백낙준 진양조 전승선율 40장단 뒤에 원형선율 부분 5를 먼저 위치한 뒤, 원형선율 부분 4를 원형선율 부분 5 뒤에 재구성하겠다. 그 이유는 백낙준 원형선율 4와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6을 붙여서 재구성하기 때문이며,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6 뒤에 백낙준 전승선율 제41장단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④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의 조는 우조청 계면조 8괘 선율의 5장단이다. 백낙준 전승선율의 우조청계면조 8괘인 곳에 원형선율 부분 5의 선율이 들어가기에 적합하며, 그 위치는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9이다.

또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의 첫 내드름은 1정으로 시작하여 맺는 장단까지 한 마루의 기경결해의 음악적 성격을 갖고 있는 특성상,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9 가운데, 1정으로 시작하는 59장단부터 62장단까지의 기경결해의 선율 앞이나 뒤에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는, 백낙준 전승선율의 1정을 앞서 출현시켜도 백낙준 전승선율의 전체 선율적 전개가 무방하기에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9 중 맺는 장단 뒤인 백낙준 전승선율 제40장단 이후도 가능하다.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의 5장단의 선율적 특징은, 8괘 1정으로 시작하여 8괘 2정, 8괘 5정의 상승선율로서 선율의 긴장감을 더한 뒤에 다음에 8괘 동의 하행선율로 음악적 해결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9의 59장단부터 62장단 한 마루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9의 59장단부터 62장단은 백낙준 진양조 전승선율 마지막 부분이므로,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의 기경결해의 음악적 특징을 지닌 선율이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곳에 위치하게 되면, 백낙준 전승선율 진양조의 마지막 부분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로 종지하기에 백낙준 전승선율 진양조의 종지의 성격이 달라지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의 위치를 백낙준 전승선율 제40장단 이후에 재구성하고자 한다.

즉,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를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부분 9의 40장단 이후에 재구성한다.

그 선율은 [악보 89]와 같다.

[악보 89]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제40장단과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5

백40

도웅 정3 도오 오 옷도웅 당 도 옷도웅 다 둥 뜰당 뜰
원형선율부분5
정1 정1 정1 뜰 정2 정2 정1 둥 둥
원형선율부분5
정2 정2 정2 정2 깃 깃 정 정1 도 도 둥
원형선율부분5
정5 지리 정5 정5 정5 정5 정4 정4 정2 깃 깃 정1 정1
원형선율부분5
도 도 둥 둥 둥 둥 당 두당 둥
원형선율부분5
텅 텅 두둥 도 다 둥 두 다 둥 텅 둥 당 뜰

⑤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6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6은 우조청 계면조의 1장단이며 8패에서 연주한다. 그러나 음악적 구성단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재구성에 넣지 않는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부분 1부터 부분 6까지의 진양조 18장단 가운데 17장단을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재구성

진 양 조						
전승선율	1-19	20-22	23-27		28-40	
원형선율		부분 1과 2 (6장단)		부분 3 (1장단)		부분 5 (5장단)
전승선율			41-62	62장단	총 79장단	
원형선율	부분 4(5장단)			17장단		

2) 중모리

(1) 전승선율 분석

백낙준 전승선율 중모리 67장단의 조 구성, 청의 음고, 패 연주위치, 패의 이동순서를 정리하면 [표 50]과 같다.

[표 50] 백낙준 전승선율의 중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부분	장단	조성	청	패
1	제1장단-제47장단	우조청 계면조	C	5(2), 2(2), 5(3), 8(19), 5(7), 2(5), 5(4), 8(5)
2	제48장단-제51장단	엇청 계면조	F	8(4)
2	제52장단-제67장단	우조청 계면조	C	8(16)

백낙준 전승선율 중모리를 조 구성과 청의 음고, 패의 위치 및 이동순서는 [표 50]과 같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세 장단의 선율을 조 구성과 청의 음고, 패

의 위치 및 이동순서에 따라 백낙준 전승선율 중모리 속에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2) 전승선율과 원형선율 재구성

①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의 전반부 2장단은 7괘 연주의 평조청 평조로, 백낙준 전승선율에는 없는 조 구성이다. 또한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의 두 번째 장단에서 8괘의 C 본청으로 다시 올라와 원형선율 부분 1의 3번째 장단을 연주하기 때문에 백낙준 전승선율의 우조청 계면조 8괘 선율 사이에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을 재구성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백낙준 전승선율의 우조청 계면조 가운데 8괘 선율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1과 3에 각각 24장단과 16장단이 있다.

이 24장단과 16장단 가운데, 음악적으로 8괘 우조청 계면조의 맺는 선율 뒤에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을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백낙준 전승선율 중모리 12장단 이후, 15장단 이후, 19장단 이후, 21장단 이후, 26장단 이후, 43장단 이후, 53장단 이후, 57장단 이후, 63장단 이후 등 총 10부분이다.

재구성해야 할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은 음악적 특성상 평조청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상행하는 특성을 가진 선율로서, 긴장보다는 이완의 성격을 가진 선율이다. 따라서 이 전의 선율이 8괘 선율 가운데 4장이나 5장의 연주법을 가진 높은 음을 주로 연주하는 긴장감 있는 선율이 적당할 것이며, 또한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 이후에도 전승선율이 8괘 4장이나 5장의 긴장감 있는 선율이 온다면,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1과 2의 평조청의 이완적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배치를 가진 적절한 구성이 될 것이다.

백낙준 전승선율 8괘로 연주하는 10군데 중 4장이나 5장의 선율이 동

시에 나오는 곳은 한 군데로, 백낙준 전승선율 63장단 이후이므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 1의 재구성 위치는 백낙준 전승선율 중모리 63장단 이후이다.

그 선율은 [악보 90]과 다음과 같다.

[악보 90] 백낙준 중모리 전승선율 제63장단, 제64장단과 백낙준 중모리 원형선율 부분 1

백63

원형선율부분1

지도옹 도 오 오 웅 뜰 지 잉 둥 당 뜰 당

뜰 살 당 당 도 오 정 당 정2 정2 텅 둥 텅

원형선율부분1

두 두 두 당 정1 다 정 당 정 정2 깃 다 다 둥

원형선율부분1

살 당 둥 다 정2 정2 둥 정 도 라 둥 다 둥 당 뜰

백64

뜰 살 지 잉 뜰 정4 지 잉 당 뜰도옹 다 둥 뜰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부분1의 3장단을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백낙준 원형선율의 중모리 재구성

중 모 리					
전승선율	1-63		64-67	67장단	총 70 장단
원형선율		부분1 (3장단)		3장단	

3) 자진모리

(1) 전승선율 분석

백낙준 전승선율 자진모리의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 패의 이동순서 등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백낙준 전승선율의 자진모리 -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와 이동

부분	장단	조성	청	패
1	제1장단-제4장단	우조청계면조	C	5(4)
2	제5장단-제14장단	엇청계면조	G	5(10)
3	제15장단-제93장단	우조청계면조	C	2(1) 5(3) 2(6) 5(30) 2(8) 5(4) 8(27)
4	제94장단-제104장단	엇청 평조	E b	7(11)
5	제105장단-제118장단	우조청 계면조	C	8(14)

백낙준 전승선율 자진모리 선율은 총 118장단으로, 우조청계면조, 엇청(G)계면조, 엇청평조(E b)의 세 가지 조성이 쓰였고, 총 5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패의 이동은 5패, 2패, 5패, 2패, 5패, 2패, 5패, 8패, 7패, 8패의 순서로 연주한다.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의 조성, 청의 음고, 패의 위치, 패의 이동순서 등을 살펴 백낙준 원형선율을 백낙준 전승선율 자진모리 속에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⁸⁹⁾

89) 안기옥 중심으로 도출한 원형선율과 김용실 중심으로 도출한 원형선율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재구성하였다.

(2) 전승선율과 원형선율 재구성

① 원형선율 부분 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은 우조청 계면조 8패의 연주로, 징2의 음정(G)을 주 선율로 반복한다. 백낙준 전승선율 가운데 우조청 계면조 8패, 그리고 징2(G)음정을 연주하는 곳에 재구성하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 2 장단은 음악적 구성을 이루는 맺는 장단이 없는 내드름의 성격만 있는 2장단이기에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하지 않는다.

②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2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2는 맺는 장단으로, 백낙준 전승선율 가운데, 맺는 장단이 필요한 부분, 패의 이동전이나, 조성이 바뀌기 전 등의 위치에 재구성하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백낙준 전승선율의 구성을 바꾸지 않는 선율들, 즉 음악적 단락을 이룬 선율들만을 재구성하기에, 이 맺는 장단은 재구성하지 않는다.

③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3은 엇청 평조로 E♭을 청으로 한다. 7패에서 연주하는 원형선율 부분 3에 어울리는 백낙준 전승선율은 같은 엇청 평조이며 E♭을 청으로 하는 전승선율 부분 4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3을 전승선율 부분 4 이전인 제93장단 이후에 재구성한다.

[악보 91]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93장단, 제94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3

백93

대

영

둥

당

원형선율부분3

당

플

도

당

플

원형선율부분3

정2

플

당

도

플

원형선율부분3

정2

당

둥

당

정2

원형선율부분3

정2

당

플

정1

정1

당

정2

원형선율부분3

플

당

더

둥

플

당

당

플

백94

당

도

당

정1

④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는 엇청 계면조로 5괘에서 연주한다. 백낙준 전승선율 엇청계면조 5괘선율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2의 엇청 계면조의 선율은 그 다음의 우조청 계면조의 2괘 선율로의 움직임의 구성이 더 적절하기에, 이 부분에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를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조성이 한 번 더 바뀌더라도 백낙준 전승선율의 엇청(G)계면조 후에 나온 우조청 계면조가 종지를 한 이후가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4가 위치할 곳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2의 엇청(G)계면조가 종지한 이후의 우조청 계면조인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단락 중 어느 한 지점이다. 즉,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우조청(C)계면조이면서 5괘 선율, 그리고 맺는 장단 뒤에 오는 선율인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 가운데 25장단 이후이다.

따라서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25장단 이후에 백낙준 원형선율 부분 4를 재구성한다.

[악보 92]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25장단, 제26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4

백25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백26

⑤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5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5는 우조청 계면조로 5괘에서 연주한다. 이 선율은 내드름과 맺는 장단이 없는 달아가는 선율로만 이어진

7장단으로,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할 음악적 구성단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하지 않는다.

⑥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6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6은 한 장단으로 이루어진 우조청 계면조로 된 2개의 장단을 모은 부분이다.

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6의 2장단은 음악적 구성단위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낙준 전승선율 재구성에서 제외한다.

⑦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7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7은 우조청 계면조의 8괘 선율 6장단으로, 백낙준 전승선율 가운데, 우조청 계면조의 8괘 선율에 이어서 연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8괘와 전승선율 부분 5의 8괘 두 부분이 모두 가능하다. 이 가운데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8괘의 제67장단은 5괘에서 8괘로 올라오는 선율로서, 첫 박을 쉬고 둘째 박부터 연주한다.

그리고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8괘 시작인 제67장단 이후의 선율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장단은 전승선율 제71장단이다.

따라서 백낙준 원형선율 자진모리 부분 7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제71장단 이후에 재구성한다.

[악보 93]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71장단, 제72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7

백71

도 지 잉 지 잉 도 둥 둥

원형선율부분7

다 둥 당

원형선율부분7

둥 둥 당

원형선율부분7

둥 둥 뜰 둥 둥 당

원형선율부분7

둥 정2 둥 당 뜰

원형선율부분7

도 리 정1 둥 당 뜰

원형선율부분7

도 리 정1 둥 뜰 당 당 뜰

원형선율부분7

도 리 정1 둥 다 둥 당 뜰

백72

정2 정2 도정2

⑧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

엇청 계면조 F 청의 8괘 선율 4장단으로 이루어진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은 백낙준 전승선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의 선법이다.

만약 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8의 선율자체가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선율이라면 백낙준 전승선율에 재구성하기가 쉽겠지만, 원형선율 부분 16의 선율의 특징은 내는 특징은 있지만, 맺는 선율은 없기에 백낙준 전승선율의 조 구분에 맞추어서 재구성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재구성에서 제외한다.

⑨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9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9의 두 장단은 우조청계면조의 선율로, 8괘 선법이다. 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의 특징이 두 장단 모두 선율을 이어가는 중간부분의 선율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구성에서 제외한다.

⑩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0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0은 우조청 계면조 5괘 선율 10장단으로,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과 5의 우조청 계면조 선율 가운데 재구성가능하다.

이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0의 선율의 특징은 내드름이 분명하며, 달아가는 선율이 연이어 나오지만, 맺는 선율이 분명하지 않다.

맺는 선율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 음정이 본청 C음인 1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당, 즉 G음으로 계속 이어서 연주할 것만 같기 때문이다.

백낙준 전승선율 가운데, 우조청 계면조이면서, 맺는 장단 뒤이고, 그 다음 장단이 우조청(C)계면조의 G음, 즉 떠는 목 이후에 와도 어색하지 않은 선율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가운데 제66장단 이후이다.

따라서 백낙준 원형선율 자진모리 부분 10은 백낙준 전승선율 부분 3의 제66장단이후에 재구성한다.

[악보 94] 백낙준 자진모리 전승선율 제66장단, 제67장단과 백낙준
자진모리 원형선율 부분 10

백66

로 오 덩 더 당 정1

원형선율부분10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뜰

원형선율부분10

둥 당 당 정1 당 당 뜰

원형선율부분10

정 뜰 당 뜰 정 당

원형선율부분10

정1 뜰 당 당

원형선율부분10

정1 뜰 당 정2 뜰 당

원형선율부분10

정1 뜰 당 뜰 정2 뜰 당

원형선율부분10

다 다 정1 다 다 정2 다 다 정1

원형선율부분10

당 당 정1 뜰 당 정1 뜰

원형선율부분10

덩 둥 당 정1 당

백67

당 도웅 당

⑪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1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부분 11은 우조청 계면조 2괘 선율의 세 장단으로, 내드름과 맺는 장단 없이 선율을 진행하는 부분의 성격의 선율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재구성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를 재구성하였으며,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백낙준 원형선율의 자진모리 재구성

자 진 모 리						
전승선율	1-25		26-66		67-71	
원형선율		부분 4 (7장단)		부분 10 (9장단)		부분 7 (7장단)

전승선율	72-93		94-118	118장단	총 146 장단
원형선율		부분 3 (5장단)		28장단	

이상, 백낙준 원형선율의 진양조 총 18장단, 중모리 총 3장단, 자진모리 총 61장단 가운데 진양조 17장단, 중모리 3장단, 자진모리 28장단을 백낙준 전승선율의 진양조 62장단, 중모리 67장단, 자진모리 118장단 속에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진양조 79장단, 중모리 70장단, 자진모리 146장단으로 재구성된 백낙준 거문고산조를 완성하였다.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재구성 악보는 본고 말미에 첨부하였다.(<참고악보 1.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 악보> 참조)

III. 결론

본고에서는 백낙준이 실연(實演)하여 전하는 거문고산조 음원의 선율과 후대 거문고산조 명인들의 선율을 비교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백낙준의 거문고산조를 재구성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문고산조의 시조인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생애사를 검토하여, 박석기, 안기옥,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은 백낙준에게 직접 사사받은 수직적 사승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박석기의 제자인 한갑득과 안기옥의 제자인 김용실의 사승관계도 확인하였다.

둘째, 1단계 선율비교분석으로서, 백낙준이 음원으로 남긴 선율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을 일대일 비교하여 진양조 301장단, 중모리 107장단, 자진모리 968장단의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을 얻었다.

셋째, 백낙준 원형선율을 추출하기 위한 2단계 선율비교분석으로서, 1단계 선율비교를 통해 추출해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가능선율을 남한의 연주자군, 즉 김종기, 임석윤, 신쾌동, 한갑득과 북한의 연주자군, 즉 안기옥, 김용실로 양분하여 비교함으로써 동일선율을 가려내었다. 그 결과, 진양조 18장단, 중모리 3장단, 자진모리 57장단의 백낙준 원형선율을 추출할 수 있었다.

넷째, 추출해낸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백낙준이 유성기 음반 음원으로 남긴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하기 위해, 음악적 구성단위요소들을 고려하여 백낙준 원형선율 중 백낙준의 전승선율 속에 재구성 가능한 선율들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진양조 17장단 중모리 3장단, 자진모리 28장단의 백낙준 거문고산조 원형선율을 선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별한 백낙준 거문고산조 원형선율을 조, 패법, 패의 이동경로, 선율의 음악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백낙준 거문고산조 전승선율 속에 배치하였다. 그 결과, 진양조 79장단, 중모리 70장단, 자진모리 146장단으로 이루어진 백낙준 거문고산조를 재구성하였다.

백낙준 거문고산조가 시대적 어려움을 넘어 현재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백낙준의 음악적 역량과 시대를 초월한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굴하지 않는 음악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백낙준의 유성기 음반에 담긴 거문고음악의 전승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는, 그의 제자와 후대 연주자들의 선율 속에 고스란히 유전되고 있지만, 백낙준이 유성기 음반 음원에 남기지 못했던 거문고산조의 선율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은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백낙준의 제자 및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의 선율 속에 숨어있던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원형선율을 밝혀내었고, 이로 인해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및 후대 연주자들의 음악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고안되고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어, 거문고산조의 뿌리인 백낙준과 후대 거문고산조 연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거문고음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평택임씨세보』

김호성, 『소소처우』, 서울 : 도서출판 은하, 1985.

문성렬, 『력사에 이름을 남긴 음악인들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손태룡, 『한국음악논전』,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4.

장영철, 『조선음악명인전』, 평양 : 윤이상음악연구소, 1998.

중국연변음악가협회 편, 『조선민족음악가사전(上)』, 연변대학출판사, 1998.

2. 연구논문

김영재, “한국근현대사의 음악가 열전(4) : 나의 스승 신쾌동선생님을 그리며”, 『한국음악사학보』 제7집, 서울 : 한국음악사학회, 1991.

김우진, “백낙준의 생애”, 『한국음악사학보』 제36권, 서울 : 한국음악사학회, 2006.

_____, “근현대 한국음악가의 음악사적 업적 조명”, 『한국음악사학보』 제47집, 한국음악사학회, 2011.

김해숙, “최옥산류 가야금산조의 선율 분석- 진양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12집,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92.

도경태,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현행 거문고산조의 선율비교 연구 -자진모리 선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박세희, “안기옥 거문고산조 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변성금, “백낙준 거문고산조와 후대 산조의 선율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송방송, “거문고명인 백낙준과 가야금명인 정남희의 공연양상-일제강점기의 방송, 음반,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11호, 한국고음반학회, 2001.
- 양승희, “안기옥, 정남희에게 전해진 김창조 가야금 원형”, 『(사)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유미영, “안기옥 거문고산조의 검토-조선레코드 안기옥 거문고산조 입수-”, 『한국음반학』, 제19호, 한국고음반학회, 2009.
- 유영주, “거문고산조의 한갑득류와 임석윤·김윤덕·김용실류 선율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윤화중, “제5장, 산조의 역사적 발전”, 『한국음악사학보』 제8집, 경산 : 한국음악사학회, 1992.
- 이보형, “시나위 청”, 『한국음악연구』 제8·9집,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9.
- 이재화, “북한의 산조음악 - 녹음자료에 의한 안기옥, 정남희, 김용실 거문고산조”, 『(사)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이지영, “가야금산조 중중모리악장의 조구성 -정달영의 산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혜경, “임석윤 거문고산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_____, “거문고산조의 청구성에 관한 연구: 백낙준 산조 음반을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6호, 한국고음반학회, 1996.
- 주은혜, “북한 김용실 거문고산조의 분석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상일 “북한의 산조 녹음자료 내용과 자료입수 경위”, 『(사)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황준연,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 『민족음악학』 제8집, 서울대학교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95.
- _____, “한국전통음악의 평조와 계면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 보고서 및 음반해설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산조』(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7), 서울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향채풍류』(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6), 서울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송혜진, “임석윤 음반해설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4) 임석윤 거문고 독주》, 서울음반, 1998.

4. 악보집

거문고팩토리, 『잊혀진 거문고산조의 명인들』, 서울: 민속원, 2008.

매향 국악보존회, 『임석윤 거문고정악』.

정대석, 『거문고산조세바탕』, 서울: 은하출판사, 2003.

5. 음반

서울음반,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4) 임석윤 거문고 독주》, 1998.

서울음반,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 15)30년대 전통 기악연주 선집》, 1993.

한국고음반연구회, 《(명인명창선집 11)거문고산조의 명인들》, 지구레코드사, 1998.

Abstract

Recomposing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Heo, Ik-soo

Major i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mungo Sanjo formed by Baek Nak-Jun was transferred and developed in various types by his pupils such as Kim Chong-ki, Park Seok-ki, Shin Kwae-dong and Ahn Ki-ok and influenced many sects of the current Geomungo Sanjo.

The geomungo tune of Baek Nak-Jun that can be considered to be the original form of Geomungo Sanjo can be confirmed only by 3 pieces of phonograph disks and the sound sources recorded on the 3 pieces of disks are very short sanjos composed of jinyang-jungmori-oetmori-janmori jangdans.

However, the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is believed to have had more sound sources than those lef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coverable melodies of the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sound sources of the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with the Geomungo Sanjo melodies of the posterior Geomungo Sanjo masters and among recoverable melodies, the original melodies of the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were found to recompose the melodies transferred by Baek Nak-Jun.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compared Baek Nak-Jun melodies with the posterior sanjo melodies of Ahn Ki-ok, Kim Yong-sil, Kim Chong-ki, Lim Seok-yun and Han Gap-deuk respectively and extracted posterior sanjo melodies that are invisible in the sound sources of Baek Nak-Jun, namely recoverable melodies of Baek Nak-Jun.

The extracted recoverable melodies were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activity areas of performers. That is, the melodies of Kim Chong-ki (jajinmori), Lim Seok-yun (jinyang, jungmori, jajinmori), Shin Kwaedong (jinyang, jungmori, jajinmori) and Han Gap-deuk (jinyang, jungmori, jajinmori) who were active in the South and those of Ahn Ki-ok (jinyang, jajinmori) and Kim Yong-sil (jinyang, jungmori, jajinmori) in the North were compared to extract common melodies.

The common melodies extracted through these two times comparisons of the melodies correspond to the original melodies of the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It is because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performers of both sides did not have exchanges and the common melodies from the two comparison groups must have been brought from their teacher, Baek Nak-Jun.

The original melodies of Baek Nak-Jun extracted by the above way are Jinyang 18 jangdans, jungmori 3 jangdans and jajinmori 61 jangdans.

Among them, only the melodies that are applicable to recomposition of the melodies transferred by Baek Nak-Jun and are prepared with musical composition were selected and jinyang 17 jangdans, jungmori 3 jangdans and jajinmori 35 jangdans were chosen and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after the selected original melodies of Baek Nak-Jun

were recomposed to jinyang 62 jangdans, jungmori 67 jangdans and jajinmori 118 jangdans, the recomposed melodies of the Geomungo Sanjo of Baek Nak-jun were found to be jinyang 79 jangdans, jungmori 70 jangdans and jajinmori 153 jangdans.

Previously, it was presumed that the melodies contained in the sound sources left by Baek Nak-Jun did not have all the sound sources when they were created by him and there were no special research method and actually the sound sources of Baek Nak-Jun were clarified as the melodies of Baek Nak-Jun.

But, through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not only the sound sources not left by Baek Nak-Jun but also the original melodies of Baek Nak-Jun left in the melodies of his pupils and the performers in the early stage of Geomungo Sanjo were revealed and this became the stepping-stone to reevaluate Baek Nak-Jun, the initiator of Geomungo Sanjo and Geomungo performers in the early stage and their melodies.

Keywords : Baek Nak-Jun, Geomungo Sanjo, Ahn Ki-ok, Kim Yong-sil, Kim Chong-ki, Lim Seok-yun, Shin Kwae-dong, Han Gap-deuk

Student Number : 2009-30490

참고악보

<목차>

참고악보 1.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 악보	156
참고악보 2. 안기옥 거문고산조(진양조 · 자진모리)	185
참고악보 3. 김용실 거문고산조(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	193
참고악보 4. 김중기 거문고산조(자진모리)	215
참고악보 5. 임석윤 거문고산조(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	230

참고악보 1. 백낙준 거문고산조 재구성 악보

재구성 : 허익수

재구성 감수 : 정대석

진양조

백1 II4
 ㄱ 둥 대양 드응 다림 지 이 잉 도정2 뜰

백2
 둥 더 둥 上 中

백3
 둥 드응 도림 지 이 잉 로 정2 정2

백4 II8
 둥 정2 뜰 도응 정2 도응 당 뜰 정2 당 뜰 정1 다 양 당

백5
 정3 지라정3 지 잉 정3 뜰

백6
 정4 뜰 깃 깃 지잉 정5 지잉 정2 정2 지 로 지잉 뜰

백7
 둥 당 둥 당 정2 둥 당

백8
 도 정2 도 오 오 오오응 뜰 도응 당 뜰 정2 당 둥 다 양 뜰

백9 II4
 기 둥 둥 둥 뜰

백10

당 다 아 앙 두다 지 잉 지 잉 다 앙 뜰

백11

두 웅 다 당 두 웅 더 덩 덩 뜰

백12

둥 다 둥 정2 도 웅 당 드 웅 둥 지 정1 정2 뜰

백13

정1 뜰 다지 지잉 당 정1

백14

덩 두당 정 다지잉 당 정1 다정1 뜰

백15

당 다정1 지잉 지 리 당 정1 다정1 뜰 지 도 정2

백16

둥 다 도 웅 정2 도 오 오 웅도 웅 둥 다 둥2 더잉 둥 당 뜰

백17

지잉2 뜰 지잉2 정2 뜰

백18

당 지잉 도 웅 당 다 둥 다 둥2 더잉 둥 당 뜰

백19

지잉 뜰 지잉 뜰 지 잉 뜰 정2 뜰

백20

도 당 다 당 뜰 닷 다 도 옷 당 뜰 도 웅

백21

정2 뜰 지이 잉 정1 당 당 지잉

A

백22

등 다 등 도웅 당 두 우 웅 당 더영 등 당 뜰

원형선율부분1

정1 정1 도 — — 옷 등 당 등 당 등 정1 등 정1 등 정2

원형선율부분1

깃등 깃 등 정2 두당 깃등 정1 다 도 정 지 리 정 정2 정2 정1 정2

원형선율부분1

도 깃 정 다 등 정2 다 로 정1 등 정1 정1 정2

원형선율부분1

도 정2 정2 도 — 등 정2 도 정2 정2 정3 잉 정3 정2

원형선율부분2

당 정1 등 당 정1 다 로 정1 등 당 두당 뜰

원형선율부분2

등 정3 등 등 당 도 등 다 등 당 당

백23

당 더 두웅 당 두 우 웅 등2 당

백24

두 우 당 다아앙 두웅 덩 덩 덩 뜰

백25

등 당 두웅 도웅 당 두 우 웅 당 지 잉 지 잉

백26

II2

덩 두웅 뜰 덩 등1 뜰 등 뜰

백27

등1 드 으 응 등1 등1

원형 선율부분3

정1 정1 정1 등 정2 정2 정2 정1 정1 정2 정2

백28

등1 드 응 등2 뜰 등1 등1 뜰

백29

당 뜰 정1 다 로 덩 두 응 당 정1 뜰

백30

당 지 잉 지 지 당 정 다로 덩 두 응 上 中

백31

당 당 두 다 지 잉 당 당

백32

등 도 응 뜰 당 지 잉 두 응 등 더 잉 등 당 뜰

백33

정2 지 이 잉 도 정2 정2 뜰

백34

등 뜰 드 응 더 잉 등 上 中

백35

도 응 정2 정2 도 라 다 도 당 당

백36

다 정4 뜰 정4 정4 지 이 정2 뜰

백37



동 뜰 정1 도정2 정2 정4 지잉 뜰

백38



둥 다 당 둥 정1 들 정3 뜰 정2 지 지 잉 정2 깃 뜰 정2

백39



당 뜰 도웅 다 도 웃 도오 웅 당 둥 당 뜰

백40



도웅 정3 도오 오 웃도웅 당 도 웃도웅 다 둥 뜰당 뜰

원형선율부분5



정1 정1 정1 뜰 정2 정2 정1 둥 둥

원형선율부분5



정2 정2 정2 정2 깃 깃 정 정1 도 도 둥

원형선율부분5



정5 지리정5 정5 정5 정5 정5 정4 정4 정2 깃 깃 정1 정1

원형선율부분5



도 도 둥 둥 둥 당 두당 둥

원형선율부분5



딩 딩 두둥 도 다 둥 두 다 둥 덩 둥 당 뜰

원형선율부분4



정1 정1 정1 뜰 정2 정2 정1 도 둥

원형선율부분4



정1 둥 다 로 정 둥 둥 당 정 정 당 뜰

원형선율부분4

정1 등 다 로 정 다 로 정 등 다 등 명 등 당 뜰

원형선율부분4

뜰 정1 정1 정1 도 정1 정3 정2 정1 등 등

원형선율부분4

정1 정1 등 등 등 등 등 정1 등 정2 등 등 당 뜰

백41

등2 뜰 다 등2 다 등 도웅 드 당 뜰 도웅 뜰 당 정 지 리 도 웅 지

백42

당 짓도 오 옷 도 오 웅 도 웅 당 등 등2 더 영 등 당 뜰

백43

정2 정 지 정2 정2 정2 정2 뜰

백44

정1 뜰 정1 지잉 뜰 지 잇 정2 뜰 다도웅 도오웅 당 뜰 당

백45

정3 뜰 정4 뜰 정3 뜰 정2 뜰 당 도웅 짓 짓 짓 정2 정4

백46

등 V당 도웅 다 도오웅 도오 당 등 등2 더 영 등 당 뜰

백47

지 지 지 잉 지 지 지 잉 지 뜰 정5 지 정4 지 정3 지 정2 도웅 지 잉 당 두

백48

당 뜰 도 오도웅 다 정 당 등 등 정2 정2 뜰 도 지 잉

백49
기둥 뜰 당 뜰 도웅 당 지잉 지 이 잉 도 웅 당

백50
다 앙 도웅 뜰 당 도웅 둥 둥 둥2 더잉 둥 당 뜰

백51
도 웅 정2 정2 정2 정2 뜰

백52
지 잉 둥 도오둥 정2 도웅 지 정 로 정 뜰

백53
정2 뜰 지 잉 정2 뜰

백54
둥 도 듯 정2 도 지 잉 정2 정2 뜰

백55
뜰정2 정4 당 다 도 오 오 웅 정2 도

백56
도오오 도웅 정5 정5 정4 지잉 정2 정2 정4

백57
둥 다 도 다 도 오 웅 도 오 웅 당 둥 당 뜰

백58
둥 정 도 오 웃 도 웅 정1 도 오오웅 다둥 뜰 당 뜰

백59
정1 뜰 다도웅 정1 켓 지잉 정1 정1

백60

정1 뜰 정3 뜰 정2 뜰 정4 정2 정3 정1 뜰 정2 뜰 도 정1

백61

당 뜰 도웅 둥 다통 깃 깃 깃 지 정3 뜰 정4 정2 지 정2 깃 도웅

백62

당 뜰 도오 오 옷 도웅 당 도 오 둥 당

중모리

백1

II5

두옹 당 당 두옹 다투옹 덩 뜰 덩

백2

II2

두옹 당 정1 다투옹 덩 둥 다 두옹 덩 둥1 뜰

백3

스트 둥1 더 둥 스트 둥1 더 둥1

백4

스트 둥1 더 둥1 덩 드옹 뜰 덩 둥1 더 드옹 덩 뜰 더 둥1 뜰 더 둥1

백5

II5

살 당 정1 다투옹 덩 두옹 당 정1 뜰

백6

지 뜰 당 정1 뜰 지잉 다 정1 다 정1 다투옹 덩 두옹 당 정1 뜰

백7

지 잉 다투옹 덩 두옹 다투옹 덩 지잉 당 뜰 정1

백8

II8

살 당 뜰 도옹 정2 지잉 도옹 당 도오옹 도옹 둥 당 뜰

백9

살 둥 오 옹 도 윗도옹 정2 뜰 도옹 정2 뜰 도옹 정2 도옹 둥

백10

살 정2 뜰 정4 뜰 정2 도오옹 도옹 당 도오옹 도 옹 둥 당 뜰

백11

 살 정4 뜰 지잉 뜰 정4 다 지잉 뜰 도옹 뜰 당 둥 뜰 당

백12

 살 정4 뜰 정 정3 뜰 둥 뜰 둥 뜰도옹 뜰 당 도 지 도 옹 둥 당 뜰

백13

 살 정4 뜰 정3 뜰 정2 뜰 정1 살 정4 뜰 정3 정2 정1 지 정2 지잉

백14

 정1 정1 뜰적정 뜰정1 지 잇 정2 정1 지 지 도 옹 도 오 옹 당 도 지 정2 정3

백15

 당 도 정2 정1 도 오 옹 당 둥 당 둥2 당 뜰

백16

 둥도옹 두 당 뜰 정지잉 두 당 뜰 도옹 두 당지잉 두 당 뜰도옹 지도옹 정2

백17

 당 지 도옹 지 다도옹 지 당 도 뜰 정2 뜰 정4 정2 뜰 지잉 정4 지잉

백18

 둥 지리 잉 도옹 당 도 옷 도 옷 둥 다 둥2 당 뜰

백19

 둥2 드 당 다 둥2 드 당 두 당 드 둥 두 다 료두당 지 잉 두 당 둥 정1 뜰 정1 뜰

백20

 정2 지 정3 지 정1 뜰 정2 뜰 정4 뜰 지 잉 뜰 정1 뜰 정2 뜰도옹 뜰 당 둥 지 정 지잉

백21

 둥 지리 잉 도옹 당 도 오 옹도옹 둥 당 뜰

백22

 살정2 정2 로 지 잉 뜰 둥 뜰 더잉 둥 뜰

백23

 도 정2 뜰 다 정2 지 지 잉 정2 둥 뜰 드응 뜰 더잉 둥 뜰

백24

 둥 다 당 도 정1 정2 정3 뜰 정1 정2 뜰 정4 뜰 정4 정3 정4 뜰

백25

 정2 정3 정1 정2 뜰 도 응 갖다도 오 웃도응 깃 당 도 지 정2 정2 정 지잉

백26

 당 료정2 정1 도응 다정2 표둥 다 둥2 뜰

백27 ¹¹⁵

 당 정1 뜰정 깃 지 잉 뜰 당 정1 뜰

백28

 당 뜰 정1 뜰 정1 당 뜰 정2 뜰 정1 지 뜰 다 정1 뜰 덩 뜰 둥 당 정1

백29

 덩 두우 웃 듯 듯 듯 당 뜰 정1 뜰지잉 당 뜰 당 정1 지 료 당

백30

 지이 지잉 다응 덩 두응 당 정1 라정1 뜰

백31

 살 지잉 뜰 지 당 정1 뜰 살 지잉 뜰 지 당 다 정1

백32

 정1 다 정 지잉 지 지잉 정 정 지 리 당 두 당 정1

백33

II⁵

당 정1 다 정1 지 임 지 임 당 정

백34

II²

뎡 등1 더 등1 더 드응 뜰 등1 뎡 드 더 등1

백35

뎡 더 등1 뜰 더드응 뜰 등1 드응 등2 뜰 뎡 뎡 드 더 등1 뜰

백36

트 응 드응 뎡 등1 뜰 드응 드으응 뎡 등1 뎡

백37

등 더 등1 드응 드웃 뜰 등1드응 등1드응 뜰 등1 뎡 등1 뎡 등1 뜰

백38

II⁵

등 더 등1 다 정1 뜰 도 당 정1 뜰

백39

V

백40

깃 깃 깃 깃 도 정1 다롱 드응 당 정1 다로 뎡 뎡 당 정1

백41

정2 뜰 지 임 당 정1 뜰 정2 뜰 지 임 당 정1 뜰 정1 뜰 당 지 뜰 정 뜰 다 정1 뜰

백42

V

지 잇 지 지 잇 지 당 정 지 지 지 임 지 다 정1 뎡 당 두 당 지 임 지 임

백43

II⁸

지임 도응 당 두 응 두 당 두 다 정1

당 도 응 다 지 임 뜰도 응 당 도 오 응 도 응 등 다 등 당 뜰

백44

백45

백46

백47

백48

백49

백50

백51

백52

백53

백54

살정4 뜰 정4 지잉 정4 살정4 뜰 정4 정4 지잉 정2

정2 지잉 뜰 지 지 정5 정5 지잉 지잉 정4 뜰 정3 뜰 정2

지 정1 뜰 정1 지 지 지잉 지 지 이잉 도 정1 정2 뜰 도 웅

지잉 당 도웅 뜰 당 정2 뜰도웅 뜰 당 지잉 둥 당 지잉 당

정1 다로웅 덩 두 당 지 이 이 이 잉 다 정1 뜰

덩 뜰두 당 정1 뜰 정1 덩 뜰두 당 정1 뜰 다 정1

덩 두웅 두우 두우 두우 당 뜰 정1 뜰 정2 뜰 다 정1 뜰 정2 뜰 다 정1 뜰

정2 뜰 다 정1 뜰 정2 뜰 다 정1 뜰 정2 뜰 다 정1 - 지잇 지잇 지잇 도웅 정2 뜰 당

정2 뜰 정2 뜰도웅 뜰 당 도 정2 뜰 정2 당 로 정2 뜰 정2 정4 정2 정3

당 도 정2 정1 도 오 웅 당 둥 다 둥 당 뜰

살지 잉 지잉 둥 도웅 지 지 지 잉도웅 당 도 오 웃도웅 당 둥 당

백55 大 大 V V
 드 오 등 지잉 뜰 등 도 지로 도웅 등 등 도웅 당 두 뜰 당 등 당

백56
 살지 잉 등 뜰 등 도웅 살지 잉 지 잉 정 지 잉 도웅

백57
 당 도 오 다 도 웅 도 오 웅 당 등 다 등 당 뜰

백58
 살정4 뜰 정4 뜰 지 잉 당 등 뜰 다 등 당 뜰

백59
 살지 잉5 뜰 정5 지 지 정5지잉 지잉 정4 뜰 정3 뜰 정2 뜰

백60
 정1 뜰 정2 정1 정2 정1 지 이 잇 정1 깃 지 로 정1 지 깃 도 웅 깃 깃

백61
 당 정1 뜰 지 뜰도 웅 다 뜰정2 당 뜰도 뜰 웅 당 뜰도 깃 도 웅

백62
 당 도 정1 뜰 당 조 정2 뜰 당 도 정1 뜰 당 정1 뜰 당 다로 정1 지 정2 정2 지 잉

백63
 지도웅 도 오 오 웅 뜰 지 잉 등 당 뜰 당

원형선율 부분1 II7
 뜰살 당 당 도 오 정 당 정2 정2 덩 등 덩

원형선율 부분1 II8
 두 두 두 당 정1 다 정 당 정 정2 깃 다 다 등

원형선율 부분1

백64 살 당 동 다 정2 정2 동 정 도 라 동 다 동 당 뜰

백65 뜰 살 지 잉 뜰 정4 지 잉 당 뜰도웅 다 동 뜰

백66 살 정4 뜰 정3 뜰 정2 뜰 정2 뜰 동 뜰 당 뜰 다 정2 도웅 동 당 당

백67 지잉 도 당 지 도 웅 다정2 지 도 웅 당 정2 동 당 동2

터 잉 동 당 도웅 뜰 도 오 웅도웅 동 당

자진모리

백1

두 응 당 당

백2

두 다 두 당 정 다

백3

로 덩 뜰 당 정

백4

두 응 다 두 응 당

백5

두응 다등 등2 등2 등2

백6

등 다등2 등 다 등2 당

백7

도응 다 등 다 등2 등 당 뜰

백8

뜰 등 뜰 정2 뜰 정2 도 오 오 응

백9

당 도 뜰 도응 지 당

백10

정2 지도 응 지당 두

백11

당 도응 당 뜰

백12
정2 물 지 정2 물 지 정2 물 정1 지 도웅 도

백13
정2 당 도 뜰 도웅 지 당 정2 뜰 도웅 정2

백14
둥 다둥 더 잉 둥 당

백15
II2
딩 등1 더등1

백16
II5
당 둥 당 당

백17
둥 당 드웅 당 지 잉 당

백18
정1 다로 덩 뜰 당 정1

백19
II2
딩 뜰 등1 더 등1

백20
등1 뜰 덩 등1

백21
등1 뜰 드웅 등1

백22
등1 드웅 등1

백23

백24

백25

II5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원형선율부분4

백26

당

지잉

지잉

정1

다로

웅

명

등1

드응

트

등1

등1

등1

트

등1

떨

당

정1

다정1

도

라

정1

뜰

등

라

정2

뜰

도

라

정1

뜰

도

라

정2

뜰

도

리

정1

도

리

정2

도

리

정1

도

리

지1

도

리

도

도

리

지1

도

리

도

도

리

도

정

지

도

정

뜰

정2

등

뜰

당

뜰

등

당

등

다

등

명

등

당

백27

플 당 플 정1 다정1

백28

정2 플 당 정1 플 정2 플 당 정1 지

백29

깃 지 잉 깃 지 잉 정1 지 잉 정1

백30

다 아 앙 덩 당 정1 다정1

백31 II^s

당 정1 다정1

백32

덩 두다 지 다정1

백33

지잉 도움 당 정1 다로 오 덩

백34

더 당 다 정1 다정1

백35

당 정1 다정1

백36

닷 다 정1 플 지잉 당 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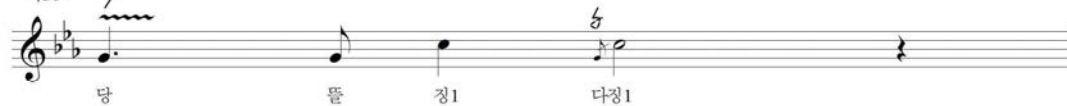
백37

지잉 당 정1 다로오 덩

백38



백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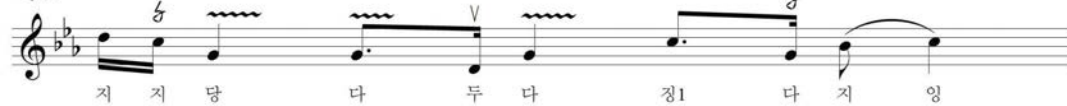
백40



백41



백42



백43



백44



백45



백46



백47



백48



백49

깃 정2 깃 정 깃 정2 당 정1 지잉 지

백50

당 지 다 로오 덩 뜰 당 정1

백51

당 지잉 당 정1 지 잉

백52

지 잉 지 이 지 잉 정1 도 오

백53

지잉 도오 정1 도오 정1 당

백54

정1 다로 웅 덩 더 당 정1

백55

드 더등1

백56

등1 등

백57

등1 드응

백58

등1 뜰 등1 뜰 더등

백59

등1 드응 등1

백60

백61

백62

백63 II⁵

백64

백65

백66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로 오 덩 더 당 정1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뜰

둥 당 당 정1 당 당 뜰

정 뜰 당 뜰 정 당

정1 정1 뜰 당 당

등1 등1 등1 등 드응 뜰

등1 등1 등1 등1 등1 뜰

당 정1

정1 첫 지잉 뜰 당 뜰

정1 뜰 지이 잉 지이 잉 당 정1 다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원형선율부분10



백67



백68



백69



백70



백71



원형선율부분7



원형선율부분7



원형선율부분7



원형선율부분7



원형선율부분7



원형선율부분7



원형선율부분7



백72



백73



백74



백75



백76



백77

정1 지 정1 지 정1 정2

백78

정1 정2 지 정2 지 정2 지

백79

지 정1 지 이 잉 지 이 잉 당

백80

당 지 잉 도웅 다 둥 당

백81

도웅 뜰 당 뜰 도웅 뜰 당 뜰

백82

도웅 두 당 도웅 뜰 당 지 도 정2 당

백83

도웅 뜰 도웅 뜰 도웅 뜰 지

백84

도웅 지 뜰 도웅 정2 뜰 도웅 정1 뜰

백85


도웅 뜰 도웅 뜰 둥 뜰 둥 뜰 정2 뜰


백86


정2 뜰 둥 뜰 도웅 지 지 정2 지 잉 정4


백87


정2 정3 지 이 도웅


백88

 둥 지 리 잉


백89

 둥 도 지 잉


백90

 도 오 웃 도웅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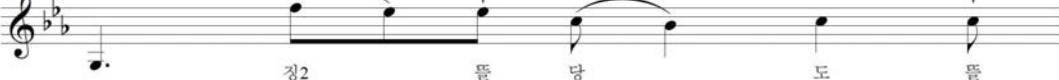
백91

 당 당 뜰 지 잉 뜰


백92

 당 도웅 당 둥


백93

 둥2 더 잉 둥 당

원형선율부분3

 II7 당 뜰 도 당 뜰

원형선율부분3

 정2 뜰 당 도 뜰

원형선율부분3

 정2 당 둥 당 정2

원형선율부분3

 정2 당 뜰 정1 정1 당 정2

원형선율부분3

 뜰 덩 더 둥 뜰 덩 덩 뜰

백94 II7
 당 도 당 정1

백95
 당 도 당 정1

백96
 도 라 동 도 라 정2 도 라 동

백97
 당 도 지 깃 지잉 도 웅 정1 지

백98
 당 정1 다 로 정2 다 로 정1

백99
 다 로 지 당 지잉 정1 뜰1

백100
 덩 뜰 지 잉 당 정1

백101
 덩 뜰 정1 덩 뜰 당

백102
 정1 도 웅 정1 도 웅 정2 도 웅

백103
 정2 뜰 정2 도웅 당 정2

백104
 덩 덩 뜰 당 지 잉

백105 ^{II8}

등 뜰 당 도웅 뜰 도웅

백106

당 도 깃 도 웅 당

백107

정2 정2 로 정

백108

정3 뜰 정3 뜰 정3

백109

정4 뜰 정4 뜰 정4

백110

지 지 정4 정4 깃 깃 뜰

백111

정4 정3 지 정2 지 정1

백112

정1 지 도 오 오 오

백113

오 당 도웅 뜰 도 웅

백114

뜰 당 뜰 등 등 당 등

백115

다 등2 다 등 다 등2 다 등

백116

다 등2 다 도웅 다 등 당

백117

도 당 정2 도웅 정2 등

백118

다 등 더 영 등 당

참고악보 2. 안기옥 거문고산조(진양조 · 자진모리)

진양조

文

싸 랭 도라 ○ 등 도 랭2 정2 도정2 정2 들

2

슬기둥 등 등 등 등 청 청 청

3

등 등 도 랭2 정2 도정2 정2 청 청

4

도 정 정 도 깃 도 당 정 다 다 도 다 당

5

슬 정4지라정4 정4 싸 랭 정4 정4 정5 정4 정4 정3 정3

6

정4 정5 정5 정5 정4 지 깃 정4 정3 정3 정2 등 정3 정2

7

등 다 등 다 랭 정1 등 당 청 청

8

文

싸 랭 정2 등 정2 등 다 다 정 다 다 등 다 당

9

 슬 기 둥 두렁 둥 둥 둥 들

10

 살 당 다 ○ 두다 정2 정2 다 리 ○ 다 스 다

11

 둥 두 당 도 라 둥 두리 덩 덩 덩

12

 두 당 도 정2 정1 도 두 두 다 정2 정2 도자임 들

13

 살 정 정 다 정1 정2 당 정

14

 덩 두 당 정 다 정2 당 정1 다 정1 정1 들

15

 다 다 정1 정2 지 리 당 정1 정1 정2 둥 정2

16

 둥 당 둥 정2 도 훗 훗 둥 두 다 둥 덩 둥 당 들

17

 살 정3 자정3 뜰 싸랭 뜰3 정3 정3

18

 당 정1 도 다 정1 다 로 정1 둥 다 둥 덩 둥 당 뜰

19

 살 정4 지라정4 뜰 싸랭 정4 정4 정3 정2 뜰

20

 정1 정1 둥 훗 훗 둥 당 둥 당 둥 정2 둥 정2 둥 정2 깃

21

 둥 깃2 둥 정2 두 당 깃 둥 정 다 로 정 자정2 정4 정4 정1 정2

22

 살 깃 정 다 로 정 다 로 정 둥 정1 정1 정2

23

 도 정2 정2 도 정2 둥 정2 뜰 정3 정3 정3 정2

24

 당 정1 둥 다 정2 다 로 정 둥 당 두당 뜰

25

동 정3 동 훗 훗 동 당 도요훗 다동 동 당 동

26

살 당 당 동 다 동

자진모리

118

스르당 당 두 당 上 中 살 정2 뜰 정 뜰 지 잉

3

슬기동 뜰 동 동 뜰 살 정4 一 뜰 정 뜰 정 뜰

5

살 당 뜰 당 뜰 당 뜰 살 정4 一 정 뜰 살 당 당 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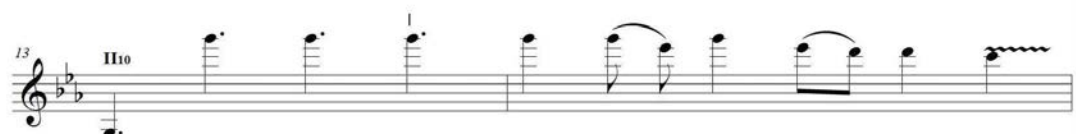
살 정4 一 뜰 정 뜰 정 뜰 살 정2 뜰 정 뜰 정 뜰



살 정 지 리 정 정 정 정 뜰 살 정3 지 리 정 정 정 정 뜰



살 정4 지 리 정 정 정 정 뜰 살 정3 뜰 정 뜰 정 뜰



살 정5 뜰 정 정5 지 잉 뜰 지 잉 뜰 정2



뜰 정1 뜰 정2 뜰 정1 정1 정2 정1 정3



정1 정2 정1 정3 정1 정2 도 용 짓 도 용 지 잉 당 도 용



다 지 잉 뜰 도 용 다 둥 둥 스르당 다 두 당 上 中



살 당 뜰 도 웃 당 뜰 살 지 잉 뜰 다 앙 둥 뜰





다 로 지 잉 뜰 다 로 지 잉 뜰 다 로 정1 다 로 정2 다 로 정1



다 로 정1 다 로 정2 다 로 정1 다 로 정2 살 당 다 지 당 정1 지 잉



뜰 당 뜰 정1 지 로 당 뜰 살 정 느르 정 정 上 中 下



느르렁 정 지 로 정 一 뜰 도 라 정1 뜰 도 라 지 잉 뜰



도 라 정1 뜰 도 라 지 잉 뜰 도 정1 뜰 도 정2 뜰 도 정1 뜰



도 정1 뜰 도 정2 둥 도 정1 뜰 도 정2 둥 도 깃 도 오 정2 뜰 도 오 정 뜰



뜰 도 웁 뜰 당 뜰 둥 당 둥 다 등 더 잉 등 당 뜰



살 도 웅 뜰 당 당 -



당 지 잉 당 정1



당 정 뜰 명 더 두 당 지1 로



다 드 웅 뜰 두 웅 뜰 더 러

II2

스르 둥 드 러 둥 -

참고악보 3. 김용실 거문고산조(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진양조

II4

싸 탕 도당 — — 등1 도정2 정2 — — 도 정2 — — 정2 뜰

2

등 등 더 등 등 上 中 — 中 下

3

등 등1 도정2 정2 — — 등 정2 정2 정2 上 中

4

등 당 — 등 등당 등 — 등 등 등 등 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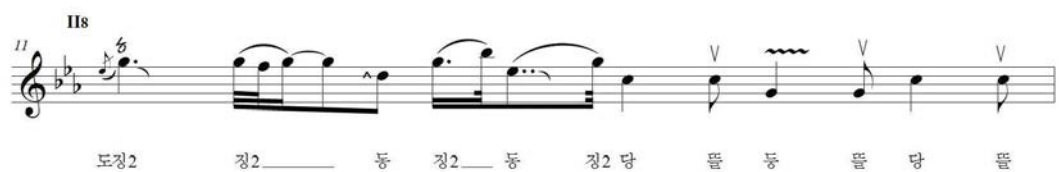
당 등 정2 — 등 당 정2 정2 — 당 등 등당 등 — 등 등

6

등 등 등 등 — 도라 등 등 두리 — 등 — 등 — 뜰



C정 계면조



G정 우조





정3 정5 정5 정5 정3 정5 정5 정3 정2 정2 정2____ 둥 정3 정2____

C정 계면조



둥 당 등2 등2 다령 둥 당____ 뜰 당 뜰



도령 정2____ 둥 정2____ 둥____ 당 뜰 정2 당 당 둥____ 도라____ 당



뜰살 기풍 러- 둥 둥 둥 뜰



뜰살 당 다 양 - 두당 정 정____ 둥 다 령____ 다 양 뜰



둥 둥 당 당 당 둥 두려 덩 덩 덩



둥 당 둥 둥 정2 정 둥 둥 둥 당____ 둥 정2 라지이 잉____ 뜰

21 C청 계면조

뜰 살 징 징 라징 징2 당 징 라징 뜰

22

당 다림 징2 징2 징2 당 당 징 뜰 징2 동 징2

23 G청 계면조

둥 당 둥 징2 둥 — — — 둥 다 둥 덩 둥 당 뜰

24 II7

뜰 살 징3 징3리 징3 뜰 뜰 살징3 징3 징3 징3

25 II5

당 징 둥 당 징2 다 료 지 둥 다 둥 덩 둥 당 당

26 II8

뜰 살 징4 지 리 징4 뜰 살 징4 징4 징4 징3 징2 뜰

27 C청 계면조

징 뜰 도오 웅 당 둥 당 둥 징 둥 징 둥 징2



지동 뜰 둥 정2 두다 — 지동 정 당 도 정 정2 리 정2 뜰 정2 둥 정2



둥 정 정 당 둥 정 당 로 정 둥 정 — 정 정2

G정 계면조



둥 정2 정2 도 리 둥 정2 둥 정2 — 뜰 정2 — 뜰 정4 — 뜰



당 정 둥 당 정2 다 로 지 둥 당 두당 뜰



둥 정3 둥 정2 둥 당 지 이 — 잉 — 둥 다 둥 당 뜰



뜰살당 당 둥 다 둥 당 당 아 아 앙 —

C정 계면조



둥 당 당 둥 덩 — 덩 덩 뜰

– 198 –

4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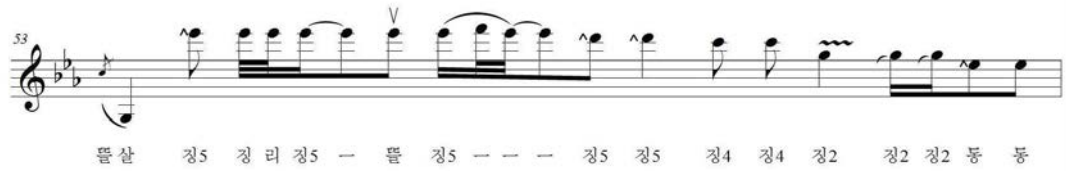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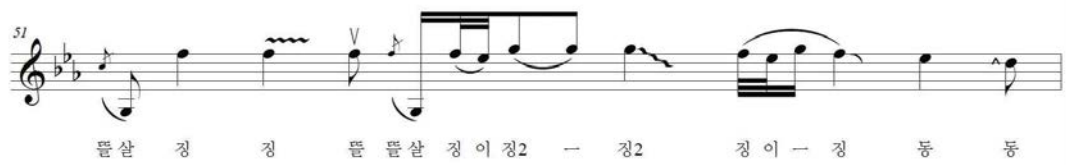
44


45

46


47


48



56 
 덩 덩 둥둥 둥 당 둥 둥 다 둥2 덩 둥 당 뜰

57 
 뜰살 정4 지 뜰 정4 — 뜰뜰살 정4 정4 정4 정4

58 
 둥 다 둥 둥 당 정 둥 둥 뜰 덩 둥 당 뜰

59 
 뜰살 정 지 이 잉2 — 로지 이 — 잉 정2 로지 이 잉 — 정 뜰

60 
 슬둥 둥 둥 덩 둥 — — 上中 中 下

61 
 도령 지 이 잉2 — 둥 — — 다 령 — 리 다 아 — — 당 뜰

62 
 다 령 정4 지 리 정4 — 뜰살 정4 — 정4 정4 정3 정2 뜰

63

둥 뜰정2 둥 정2 둥 정2 정4 지 — 정2

C청 계면조

64

둥 둥 당 둥 정 정2 정4 뜰 정2 정4 정2 — — 뜰 정 둥 정2

65

당 뜰 둥 정2 다 둥 정2 도오웅 당 둥 당 둥당 뜰

66

둥 정4 지도 오웅 — 둥 당 도오웅 — 둥 다 둥 上中 下

중모리

118

싸맹 정2 로 지 이 — 정2 뜰 슬기 둥 — 둥 덩 둥 上中 下

2

둥 정2 정2 둥 정2 정4 — 정4 — 정2 지 료 웅 둥 — 다 텨 둥 둥 라 둥 다 둥 上中

II5

3

둥 당 당 을당 당 아— 둥 당 둥 둥 덩 덩 덩

II2

4

둥 당 리당 정 다로 덩 둥 다 둥 — 덩 지 러지이— 정

5

스르징 정 정 러지이잉 정 정 스르징 스르징 덩 정 러지이잉 정

6

스르징 정 정 정 덩 스르징 정2 정2 정2 덩 정 정2 덩 — 정 덩 정 스르덩

II5

7

뜰살 당 아앙 정 정 정 덩 둥 당 정 정 정

8

정2 정2 당 정 정 정2 당 정당 정 다로 덩 둥 당 정 정 정

9

뜰살 정 정 다롱 덩 둥 당 둥 덩 정2 정당 정 中

II8

10 스프링 당 당 동 정2 정2 — — 동 당 당 링 — 동 다 동 다 동 당 뜰

11 뜰살 정 정 정2 동 정2 뜰 동 뜰 정2 동 정2 — — 동 동 당

12 뜰살 정 뜰 정4 정 정 도 오 오 — 동 당 두 다 링 — 동 다 동 다 등 당 뜰

13 뜰살 정4 정4 뜰 지 리 정4 — 정4 정4 다 링 — 정 동 동 당 당 등 동 당

14 뜰살 정4 정4 정4 정2 정3 정 정2 정2 정 동 정2 당 동 정2 지 — 이 — — 동 동 당 뜰

15 뜰살 정4 정4 정3 정2 — — 정 뜰살 정4 정4 정3 정3 정2 정2 정 정 정2 — —

16 정 정2 — 정2 정 정2 — 정2 정2 정2 정2 — 정2 정2 — 정 정 정 동 도 오 — 용 당 도 지 지 정3

– 205 –



정2 정2 정 — 정2 동 지 이 잉2 동 정2 — — 뜰 당 정 지 잇 정2 정4 정3 정2 정4 정3



당 정4 정2 정2 정 동 옹 당 다 텅 동 다 둥 다 둥 당 뜰



둥 당 당 당 둥 다 당 둥 당 당 당 징 둥 당 징 둥 당 징 둥 당 징 징 징2 징2 징2



지 리 정3 정 정 임2 정2 지 리 정4 정2 정3 정3 정2 — — 지 동 — 정 당 정 정 정2 지 이 정2



둥 둥 지 리 둥 둥 당 다 링 다 링 둥 다 둥 당 을




슬기 동2 - 동2 동2 동 동 텅 동 다 동 텅 텅 동당 징 징 당 징



당 징 징 라 징 징 징2 징2 징2 당 징 덩 덩 — 둥 당 징 징

7




징 덩 덩 둥 당 징 당 당 징2 징2 징 징 둥 당 뜰

9




살 징 스트징 징 上 中 살징2 징2 징2 징2 징2 징2

11




당 징 당 징 징 당 당 징2 당 징 당 징2 당

13




징 징2 징2 당 징 징2 징2 징 징2 징2 당 징 징 둥 당 뜰

15




살 징 스트징 징 上 中 살 징3 징3 징3

17



당 당 둥 당 당 살 징3 징3 징3 둥 둥 당

19



당 징2 징2 둥 다 둥 당 당 둥 당 둥 둥 당 둥 당



당 둥 둥 덩 덩 덩 덩 살 당 당 정 당 정 정2



정2 당 당 정 정 당 당 살 정 스트정 정 上 中



스트당 당 둥 당 둥 정2 이 정2 둥 당



둥 지 이 정2 둥 당 둥 둥 당 둥 정2 이 정2 뜰 둥 당 뜰



도 링 一 뜰 둥 당 뜰 도 리 정2 둥 둥 당 당 뜰



도 링2 정2 둥 다 둥 당 당 도 링 정2 정4 정4 정2 정2 정3



당 로 정2 둥 둥 정2 당 링 다 링 뜰 둥 다 둥 당 당

35 
 들살4 정4 정4 정4 정4 정4 들살당 당 동 동 당 당 당

37 
 살 정4 정4 정4 살 당 당 당 살정4 정4 정3 정3 정3 정2 정 정

39 
 동 동 링 당 동 들 당 당 동 다 동 당 당

F정 계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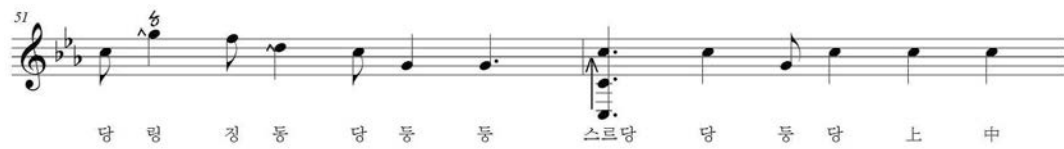
41 
 살 정2 정 정 덩 덩 당 정 정

43 
 덩 덩 당 정 정 당 덩 덩 당 다 정 정 당 당

45 
 정2 뜰 당 당 정 뜰 당 당 정2 당 정 당 정2 당

47 
 정 정2 뜰 정 뜰 동 당 뜰살 정2 정2 정2 동 정2 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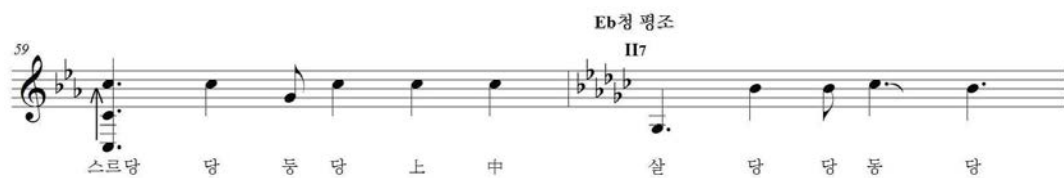
49  정2 동 동 당 당 동 당 당 동 당 동 당 당 동 당

51  당 링 정 동 당 동 동 스르당 당 동 당 上 中

53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정2 뜰살 정3 지 리 정3 정3 정3 정3

55  뜰살 정4 지 리 정4 당 정4 정4 뜰살 정4 정4 정3 정3 정2

57  정2 정 정 동 동 당 다 리 동 동 동 당 동 동

59  스르당 당 동 당 上 中 Eb창 평조 II7 살 당 당 동 당

61  뜰살 정2 당 동 뜰살 정2 당 동 당 정2

63 
 정2 당 당 정 정 정 당 정2 뜰 명 명 둥 둥 명 명

C청 계면조

65 
 슬7둥 등2 당 둥 지당 정4 정4 정2 정3 당 둥

67 
 당 리둥 뜰 둥 당 둥 둥 스투당 당 당 둥 당 上 中

69 
 살 정2 정2 정2 정2 정2 정2 살 둥 당 당 정 정 당 당

71 
 뜰살 정2 정2 당 당 정 당 뜰살 정 살 정 정 당 당

73 
 뜰살 정 정 당 뜰살 정2 정2 당 뜰살 정 정 당 뜰살 정2 정2 당

75 
 당 당 정 당 당 정2 당 당 정 당 당 정 정 당 정 정



91 

93 

95 

97 

99 

101 

103 

105 

참고악보 4. 김종기 거문고산조(자진모리)

자진모리

두 응 — 당 지 다정 덩 뜰 당 정1

3 덩 더 어 당 지 덩 당 지 잉 — 다 지 덩 뜰 당 지잉

5 뜰살 당 뜰 당 정1 당 뜰 정1 뜰

7 당 뜰 지잉 지잉 당 뜰 정1 지 — 잇 지 잉 뜰

9 다 정1 덩 당 정1 덩 당 지 다 지 잉 당 지잉

11 지 덩 뜰 당 정1 지 잉 도 응 당 당

13 지 앵 다 정1 뜰 지 당 지잉 덩 두 다 정1 다 지잉

15 당 두 다 정1 다 지잉 당 두 다 정1 다 지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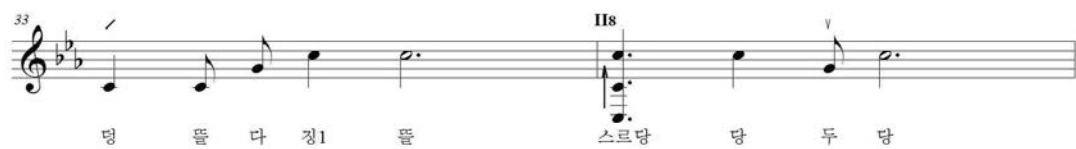
17 당 듯 듯 듯 정1 정1 지잉 지 라 당 다 정1 다 정1 지잉

19 — 다 정1 도로 — 덩 당 — 지 잉 뜰 당 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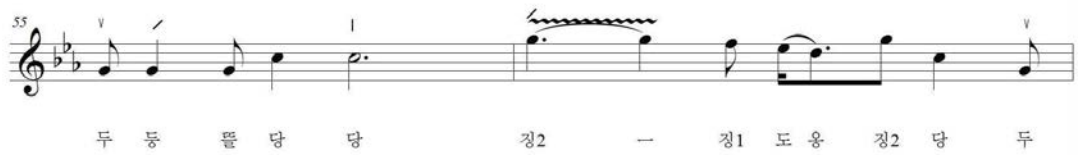
21 II2 | 덩 뜰 정1 뜰 스트링 정1 더 정1

23 스트 정2 정2 정2 지 잉 지 잉 — 덩 뜰 정1 깃 정1 덩

25 정2 뜰 덩 정1 뜰 정2 뜰 덩 정1 뜰 덩 뜰 정1 뜰 덩 뜰 정2 뜰 덩 뜰 정1 뜰









등 틀 정2 당 도웅 등 당 도 링 도웅 정2 다 도웅 정2 도 링



당 도 링 당 틀 도웅 당 지잉 당 틀 도 링 것 정2 당 도웅



등 다 등 틀 등 당 틀살 도웅 틀 당 당



두웅 틀 당 정1 덩 틀 다 정1 틀



틀살 지잉 틀 당 정1 당 정1 정2 틀 다 정1 틀 정2 틀 다 정1 틀



도 라 정1 틀 도 라 정1 도 링 도 링 一 도 라 정2 도 링 지 다 도 링



지 리 정2 다 정1 지 리 정2 다 정1 정2 틀 다 정1 틀 다 정2 틀 다 정1 틀 다



정2 물 정3 물 정2 당 지 다 정1 지 잉 다 지 덩 물당 지잉



물살 지 잉 물 당 정1 둥 도 라 정1 지잉 물 도 오 웅



— 당 물 지 잉 물 도 웅 물 당 정1 당 정1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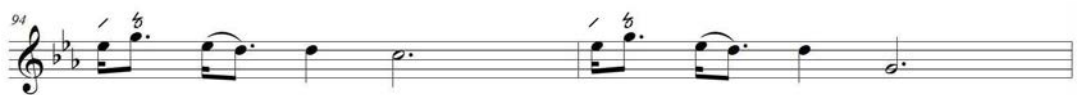
정1 물 덩 물 당 지잉 물살 지 잉 물 당 정1 당 지 잉



물 당 물 정1 정1



둥 물 당 당 도 웅 물 둥 당



도 령 도 웅 물 당 도 령 도 웅 물 둥

96 
 뜰살 정2 뜰 정2 뜰 정 동 지 정 정2 도 용 정2

98 
 뜰살 정3 뜰 정3 뜰 정3 뜰살 정4 뜰 정4 뜰 지 리 정

100 
 뜰살 정3 뜰 정3 뜰 지 이 잉 뜰살 정4 정3 정4 뜰 정4

102 
 지 잉 뜰 정4 뜰 정4 지 정4 정3 뜰 정4 뜰 정3 뜰 정4 뜰 정3 뜰 정4 뜰

104 
 정2 뜰 정3 뜰 정1 뜰 정2 뜰 도 용 정1 뜰 당 뜰 도 정1 깃 정2 당 도 용 —

106 
 정2 뜰 정3 뜰 정1 정2 도 지 정2 당 도 용 도 오 용

108 
 둥 다 둥 뜰 둥 당 다 둥 뜰 당 뜰 둥 당



등 풀 당 풀 등 당 풀 등 풀 당 등 풀 등 다 정1 등 다 등 풀 등 당



정2 풀 정2 도 링 등 정2 지 정2 지 이 정3 정4 풀 정3



정2 정3 정1 정2 등 정1 다 등 다 도 정2 도 웁 정2 다 도 웁



등 다 등 당 풀 살 도 웁 풀 당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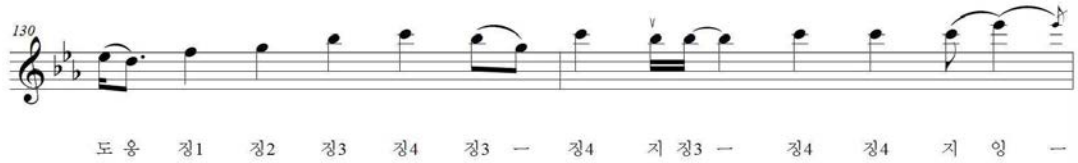
당 도 웁 당 정2 당 도 웁 당



정2 당 등 당 정1 다 등 당 정1 깃 정2 당 등



지 잉 풀 당 정1 덩 풀 당 정1





— 당 정2 당 도 웅 — 당 정2 당



정2 당 도 웅 당 정2 당 정2 깃 정2 당 둥 지 도 정2



다 둥 다 도 링 도 웅 정 다 도 웅 둥 다 둥 뜰 당 당



뜰살 정2 뜰 정2 뜰 정 — 살 둥 도 옷 도 웅 정2 뜰 —



살 정3 — 당 도 웅 정2 둥 다 둥 뜰 당 당



뜰살 도 웅 뜰 당 당 둥 뜰 당 정1



스르 정1 지 라 정1 스르 정2 지 잉 뜰 당



스 르 정 다 정1 스 르 정 다 정1 스르 지 잉 다 정1 당 뜰 정1 뜰



당 뜰 정1 당 지 잉 당 정1 지 덩 덩 더당 정1 당



ㅡ 지 잉 뜰 당 정1 스르당 당 두 당



스르 지 잉 지 잉 당 스르 둥 도 웅 뜰 당 정2 당



둥 정1 정2 정1 정3 정1 정2 둥 지잉



당 도 웅 둥 당 ㅡ 도 웅 뜰 당 둥 당 뜰



뜰살 도 웅 뜰 당 정2 당 지잉 뜰 덩 뜰 당 정1



덩 플 당 지 덩 당 다 지 잉 플 당 정 지 다 지 정



지 다 정1 뜰 지 다 정2 뜰 지 다 정1 뜰 지 다 정2 뜰 지 다 정1 뜰 지 다 정1 뜰



둥 정1 뜰 중 정2 뜰 둥 정1 뜰 둥 정2 뜰 도 짓 둥 짓 둥 정 뜰 지



잉 정4 정2 정3 정4 지 정 정5 지 잉 뜰



정4 정3 짓 도 웅 — — 둥 뜰살 도 웅 —



— 도웅 정3 — 도 오 웃 도 웅



— 당 — 당 듯 듯 정1 — 당 정1 둥





참고악보 5. 임석윤 거문고산조(진양조 · 중모리 · 자진모리)

진양조

II4
싸랭 다앙 드웅 도령 뜰 로징2 징2 뜰

2
두 우 등 러 루 등 뜰 上 中 下

3
도 오웅 드웅 동 징2 뜰 로징2 지 이 - 이 잉 -

II8
4
도웅 징2 뜰 도웅 징2 도 웅 당 지 잉 당 동 다 앙 뜰을뜰

5
살 징4지라징4 뜰 짓 뜰 징4 지 이 잉 - 징3 뜰

II9 II8
6
지 잉 징4 잉 지 짓 지잉 지이 지잉 뜰 징3 뜰 징2 징2 로지 잉 지 이 잉



14  II5
싸랭 뜰 로 웅 당 지 잇 정1 정1 정2

15  大
지잉 드웅 둥 다 아앙 둥 뜰 도웅 뜰 둥 다 정 뜰

16  II8
살 정2 자정2 뜰 지 잇 뜰 정2 정2 뜰 지 이 잇 -

17  II5 大
당 지잉 도웅 당 도오 오웅 둥 당 정 더잉 둥 당 뜰

18  II8 II7 II5
살 지 잉 뜰 지잉 지잉 지 잇 정3 지 잇 정3

19  3 V
지 잇 정2 뜨 옷 정1 뜰 뜰도오오웅 당 도도도옷 당 뜰 도웅

20  3 6
도-도- 정1 지 이 - 잉깃 깃 지이 잉 - 도웅 당 뜰 당 지 리 잉

21
등 당 등 도웅 당 등 당 풀 더엄 등 당 풀

22
싸렘 당 두웅 당 징 풀 다 아 — 앙

23
두웅 당 뜨울 두웅 덩 덩 덩 풀

24
두웅 당 두웅 도웅 당 등 당 도웅 풀 도오 —

25
덩 두웅 풀 덩 덩 덩 풀 등 등 리등 풀

26
스트렘 등 등 리등 등 풀 리등 —

27
덩 풀 등 덩 풀 뜨웅 뜨으웅 덩 덩 풀 등 뜨으웅 — 리등 풀

28 II5

 살 당 뜰 정1 라로 웅 덩 두웅 당 정1 —

29

 당 지잉 뜰 정1 지잉 도 웅 당 두웅 당 정1 뜰

30

 살 당 정1 다 링 뜰 라정1

31 II8

 당 도웅 정2— 지 이 잇도웅 다 리 이 잉 둥 당 정 더잉 둥 당 뜰

32

 살 정1 지 잉 잉 — 도지 이 잉 — 지 잉 지 잇도웅 당 뜰

33

 살 정2 깃 정2 뜰 정2 지 이 잉 — 지 이 잉 — 정1 둥 도웅 뜰

34

 살도 오 — — 웅 — 도웅 다 아 앙 두 우 옷 뜰 두 돛 당 도오 오 웅 라리 잉 당 뜰

35 
 덩 덩 두드 웅 도웅 당 둥 둥 당 정 더영 둥 당 뜰

36 
 살 정4지라정4 뜰 깃 뜰 정4 정4이잇 정2 뜰 지잉 도웅

37 
 당 정2 — 지잉 도웅 당 지이잇 — 둥 당 정 더영 둥 당 도웅 뜰

38 
 살 정5지라정5 지잉 뜰살 정5 뜰 정5 정5 지이잉

39 
 지이잇 정4지이 잇 정4 지 잇 정3이 이 잇 정2지이 잇 뜰 지잉 지정1

40 
 도 오 오 오 — 웃도웅 지잉 두 당 도드 웅 당 도 지 잉 정2 지 잉 정3 정4 뜰 지잉 뜰

41 
 정4 뜰 지 잉 정4 지 잉 정4 지 잉 정4 뜰 지잉 뜰 정2 정3 지 잉 뜰도웅 당

– 236 –



둥 다 으 다 웅 둥 정1 정2 잉 지 정2 정4 지 잉 정2 짓 —정2— 지 이 잇



당 뜰 도웅 다도웅 도요—웅 당 둥 당 — 뜰



도웅 정3 도 오 — — — 웃도웅 당 뜰 도 오 — 웅 다둥 뜰 당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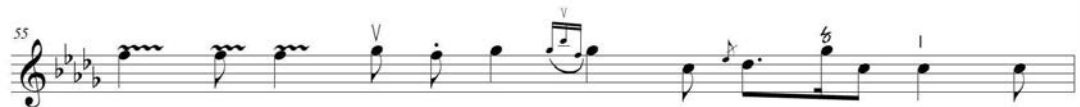
정 뜰 당 정 다 정 도웅 두 당 정2 도웅 정2 다 도 정2 정2 리로웅 리



당 정1도 웅 — 다 도 오 — 오 웃도웅 당 지 이 이 둥 다 정 당 뜰



도정2 정2 로정2 뜨 을 정2 정2 뜰



정1 뜰 정1 정2 짓 정2 자이잉 당 도웅 리 당 당 뜰



살 지 잉 뜰 정4 뜰 정4 뜰 정2 지잉 당 도웅 지 깃 정2 정2 지4잉



둥 당 도웅 나도웅 도오웅 당 둥 다 등2 너영 둥 당 뜰



도정2 정2 로정2 뜰 정2 정2 뜰



지 잉 도 오도 오 오 웅 라정2 도 웅 도웅 정2 지 잉 로정2 뜰



싸랭 정2 뜰 도 리 잉 — 정2 뜰 지 이 잉 —



둥 도웃웃 정2 도웅 지 이 리 이 잉 정2 정2 뜰



지이지 이잉 정4 당 뜰 도오오웅 정2 뜰 둥 뜰



70 II5
 당 뜰 정1 라잉 당 당 뜰 정1 정1 뜰

71
 살 정2 뜰 도 오 옷 둥 정2 지 짓도웅— 당 둥 두웅 당 뜰

72
 다 아 리잉 지잉 정2— 지 잉 당 정1 —

73
 정1 지잉 지잇 지이 잇 당 뜰 정1 정1 라정1 뜰

74
 덩 두드웅 지잉 정1 도 옷 당 뜰 당 정도 웅 라정1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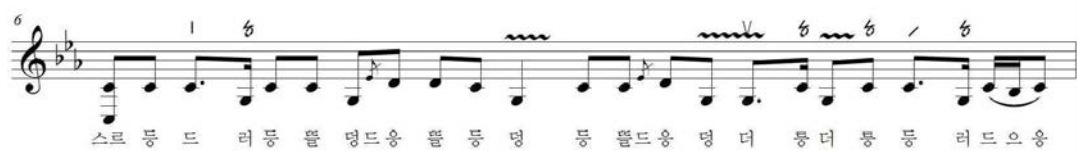
75
 스트 정1 뜰 정1 도 웅 도 령다양 덩 등 등 등

76 II4
 둥 당 뜰 지잉 도웅 당 둥 둥 뜰 당 지잉 당 뜰



– 242 –

중모리







살 정4 뜰 정3 뜰 정4 정2 정3 정1 정도용 정2 당 도 지 도오 리도 리잉 등 뜰 당



뜰살 정4 뜰 정3 뜰 정4 뜰 정2 지 잉 지 정도오 리 도지잉 당 등 정2 도오 리도지잉 등 뜰 당



살 정4 뜰 지 잉 지 이 깃 정1 뜰살 정4 뜰 깃 지 잉 정1 뜰 정2 뜰



지 잉 정2 정1 정2 - 정2 지 정2 지 지 잉 정2 뜰도용 도오용 당 등 지 정2 지 잉



등 등 다지 리 잉 도용 당 도 리 잉 도용 등 당 정 당 뜰



뜰살 도용뜰 등 당 뜰 지잉 뜰 두 당 뜰 도용뜰 두 당 뜰 지 잉 두 당 뜰



도용 등 당 지 잉 등 당 정도용 정도용 정1 정1뜰정1 깃 등 깃 깃 당 등 정2도용 지잉 -



당 정2도웅 지 잉 다도웅 정2 당 둥 지 정2 정 정4 지 잉 정 지 잉 정4 지 잉



둥 둥 다지 리 잉 도웅 당 뜰 리 잉도웅 둥 당 정 당 뜰



살둥 뜰 둥 도웅 정2 뜰 지 이 잇도웅 당 도오 - 옷 도웅 - 뜰 당 듯 당



드웅 도드웅지잉뜰 둥 뜰 정1도 드웅둥 뜰 도웅 다 둥 - 다둥 당 뜰



살정2 지 이 로 정2 뜰 지 이잉 둥 뜰 더 잉 둥 뜰



도웅 정2 뜰 듯 정2 둥 뜰 도웅 정2 둥 정2 뜰 슬기둥 뜰 더 잉 둥 뜰 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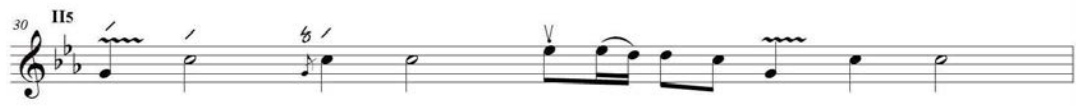
둥 다 옷 당 둥 지 이 잇 정2 지 잉 뜰 깃 정2 정2 정4뜰 정 지잇 정4 정4



정2 뜰 정4 정1 짓 짓 도웅 정2 리 잉 덩도웅 링 다 통 정1 정2 뜰 정4 지 잉 정2 지 잉



뜰살 당 - 도정2 지 잉 도웅 다 리 잉 - 통 당 정 당



당 정1 라정1 뜰 짓 지 잉 뜰 정 당 정1 뜰



다 링 뜰 당 정1 뜰 다 리 잉 뜰 당 정1 뜰 지 잉 뜰 당 정1 뜰 덩 덩 - 두당 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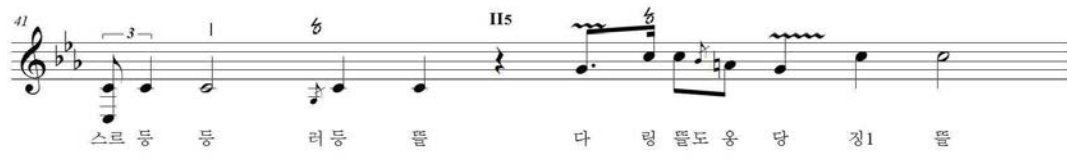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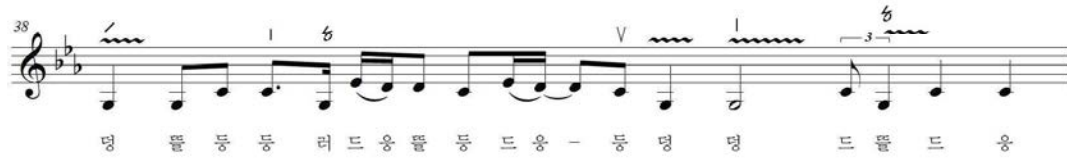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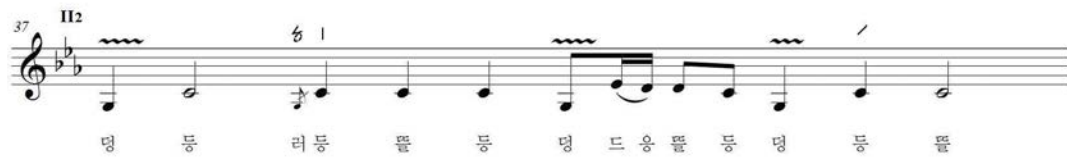
덩 두우 옷 듯 듯 두두당 뜰 정1 뜰 라 지 잉 뜰 당 정1 당 정1 정3 도웅당



지 잉 뜰 라로 웅 덩 두당 정1 뜰 정1



짓 지 잉 뜰 정1 당 정1 뜰 짓 지 잉 뜰 정1 당 정1 당 살





지 잇 지 잇 지 잇 지 잇 도 옹 징1 뜰 라 로 옹 드 옹 당 징1 라 로 옹 덩 덩 당 징1 뜰



지 리 지 잉 당 지 징1 지 리 지 잉 당 지 징1 지 잉 뜰 당 징1 뜰 지 잉 뜰 당 징1 뜰 지 잉



정3지잉 정3지잉 당 정1 - 지잉 - 정1 당 정1명 당 두당 살 정1지잉



- 지 링 로 웅 다 아 앙 두 웅 덩 당 더 당 징1 뜰



당 도웅 링 다 리 잉 정포웅 당 도 리 잉 도웅 등 당 징 장 뜰



징 똥 당 똥 징 당 똥 징 당 똥 도 웅 등 당 도 웅 다 지 잉 등 당 동 짓 징1 짓 징2



정2 지 잉 정1 정2 뜯 정2 정4 - 정2 지 잉 뜯 지 잉 뜯 정2 도 용 지잉 당 도 리 잉도용

49 
 당 둥 둥 지 정2 리 잉 도웅 당 다 링 뜰 둥 당 정 당 뜰

50 
 싸랭 지 리 정4 정4 뜰 정4 지 잉 당 뜰 도오 - 웃 당 둥 뜰 당

51 
 뜰살 정4 뜰 지 잉 뜰 정2 뜰 지 잉 뜰 도웅 뜰 당 뜰 리 잉 돛 도웅 뜰 당 둥 뜰 당

52 
 뜰살 정4 지 리 정4 정4 뜰 정4 지 잉 뜰살 정4 지 리 정4 정4 뜰 지 잉 정2

53 
 뜰 지 잉 지 잉 정4 뜰 지 리 정4 정4 뜰 정4 지 잉 지 잉 정3

54 
 뜰 정4 뜰 지 잉 지 잉 지 잇 정2 뜰 정1 뜰 도오 웃 돛 - 돛 -

55 
 당 도오 링 당 정2 - 정도오 링 당 지 잉 깃 둥 당 지 잉 당



도 웅 정1 도 웅 지 잉 도오 라 정1 뜰 도오 라 정2 뜰 도오 링 로오 링 로오 링 - 둥



지 잉 뜰 도 정1 정1 돛 지 잉 뜰 도 정1 정1 돛 정1 지 정3 지 정3 도 옷 정1 둥 정1 정1



덩 덧 덧 당 정1 정1 라지잉 뜰 당 정1 덩 덩 뜰 당 정1 뜰



당 도웅 다 링 정1도웅 리 잉 둥 당 정 당



살둥 뜰 둥 뜰 도웅 싸래 앵 - 뜰 지 잉 지 잇도웅



당 도웅 다 도웅 도오 웅 당 둥 당 정 당 뜰



다 앳 다 - 앳 다 앳 다 앳뜰 당 둥 당 도 드웅 다도웅



정1도웅 - 라 정도웅 당 뜰도웅 링도웅 링 당 뜰도웅 링도웅 링 당 뜰도웅 링도웅 링



당 동 지 잉 뜰 당 동 지 잉 뜰 당 동 정1 당 도 지 잉 지 정2 지 잉 정2 정3 정2 지 잉 지 이 잉



싸랭 동정2 지이 잇도웅 다 리 잉 동 당 정 당 뜰



싸랭 뜰 정4 뜰 당 뜰도웅 뜰 라 동 뜰



살 정4 뜰 지 잉 뜰 정2 뜰 지 잉 뜰 도웅 뜰 당 뜰 리 잉도웅 동 당 뜰



지 잉 뜰 당 뜰 정도오 링 당 정2 정1 도 리 잉 동 당 정



- 더 잉 동 당 도웅 당 도 리 잉도웅 동 당 정 다 앙 뜰

77 II7

 뜰살 당 둥 정1 정1 정2 당 당 도 정2 뜰 지잉

78

 다음 둥 지잉 - 뜰 다음 둥 지잉 - 뜰 당 둥 정1 뜰 당 둥 정2 뜰 당 둥 정1 뜰

79

 당 둥 정1 뜰 정1 뜰 정1 뜰 당 둥 정1 다 지이잉 다 정1 뜰 라 지잉 정2

80

 다 령 - 당 둥 당 도 지이잉 정1 둥 둥 당 뜰 두옹

81

 당 둥 당 두옳 둥 뜰 멩 멩 뜰 다 앙 지잉 뜰

82

 둥 라앙 둥 라앙 둥 지잉 당 둥 정1 정2 정1 다 로 정1

83

 다 정2 다 정1 멩 뜰 당 정1 멩 멩 두 다 앙 지잉



둥 당 도오 옷도 옷도 옷도 옷도 정2 뜰 정4 지 잉 당 당



다 림 뜰 지 잉 뜰 지 잉도 웅 당 도 리 잉 둥 당 정 당 뜰

자진모리



당 정1 라정1 덩 둥당 정1 라정1 -



지 잉 도 웅 당 정1 라 로 웅 덩 두 당 뜰 정1 라정1



당 뜰 정1 라정1 덩 두 당 정1 라정1



지 잉 도 웅 당 정1 라 로 웅 덩 두 당 뜰 정1 라정1



당 뜰 정1 뜰 당 지 잉 도 웅 정1 당 지 잉 당 정1 라로웅 덩



두 당 뜰 정1 라정1 당 뜰 정1 라정1



덩 덩 당 정1 라도 오 웅 뜰 당 듯 듯 듯 당 정1 라정1 지 잉



지 텅 당 당 둥 당 정1 라정1 지 이 잉 라정1 라로웅 덩 뜰 당



23

정1 덩 틀 당 정1 당 지 잉 당 깃 깃 깃 깃

25

지 잉 - 깃 깃 정1 틀 정1 로 웅

27

정1 로 웅 정1 로 웅 지 잉 로 웅 정1 라로덩 틀 당 정1

29 II2

덩 틀 등 등 스트 등 등 러등

31

스트 등 등 덩 드 웅 드 웅 덩 등 -

33

드 웅 드 웅 덩 덩 덩 등 덩 드 웅

35

덩 틀 등 덩 덩 드 웅 덩 덩 등 덩 덩 등2 덩 틀 등 덩

37 더 등 뜰 러등 듯 드 응 - 드으응 루 덩 뜰 드 응

39 - 드 등 덩 뜰 등 등 스르릉 등 러등 덩 등

41 뜰살 당 정1 정1 정2 지 잉 - 정1 당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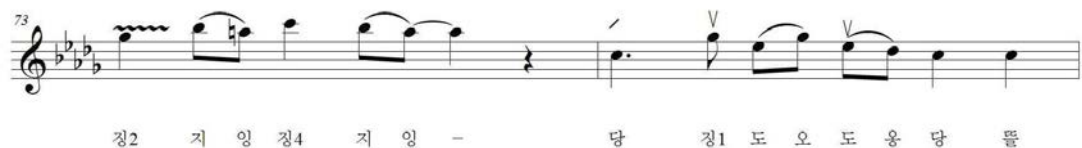
43 정1 정2 지 잇 정2 당 정1 라로 덩 뜰 당 정1 上 中

45 살 당 뜰 등 당 뜰 두 응 덩 당 정1

47 덩 뜰 당 정1 정1 덩 루 응 지 잉 정1 당 정1

49 당 등 당 정1 라도 오 응 뜰 살 정1 뜰 정1 뜰 정1 뜰

– 2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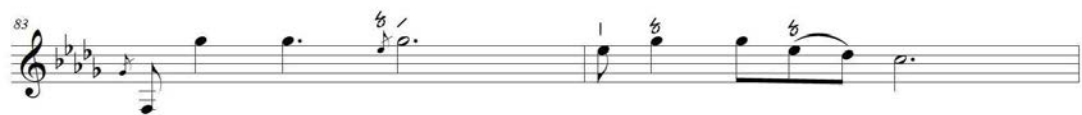




도 리 도 리 도 웅 당 뜰 도 리 도 리 도 웅 등



도 령 지 잉 도 웅 당 당 도 령 지 잉 도 웅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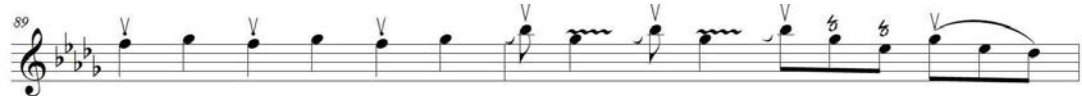
뜰 살 정2 뜰 로 정 도 령 뜰 로 웅 당



뜰 살 정3 뜰 정3 깃 지 잉 정3 정3 뜰 정3 뜰 정3 지 잉



도 웅 지 정2 뜰 정2 깃 정1 깃 정1 깃 정1



깃 정2 깃 정2 깃 정2 지 정2 지 정2 지 리 통 도 오 웅



당 지 잉 도 웅 다 등 당 도 웅 등 당 지 잉 등 당

93

동 풀 동 당 풀 정1 풀 동 당 풀 동 풀 링 당 풀 링 동 풀 링 당 풀 링

95

도 링 다 로 풀 링 다 링 도 링 당 도 오 라 정1 로 라 정1 로 라 정1 풀

97

동 풀 정1 풀 정2 풀 동 풀 동 풀 정1 풀 동 풀 정1 동 풀 동 정2 동 정2

99

정2 풀 동 정2 도 웅 지 리 정2 깃 정4 - 깃 지 잉 지 잉 -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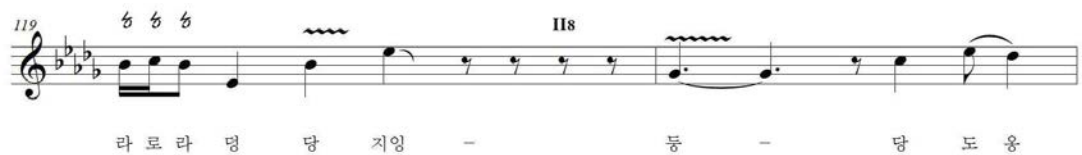
도 웅 - 동 지 리 통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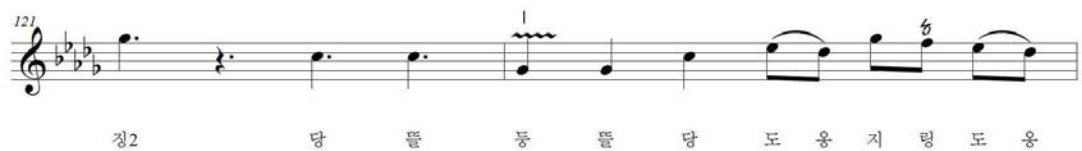
103

도 웅 지이잇 도 오 오 웃 도 웅 - 당

105

다 아 앙 도 도 정2 정1 - 다 링 당 도 웅 당







정4 - 정2 지 잉 - 당 도 웅 - 링 둥 - 당 도 웅 링 둥



당 정 - 두 르 웅 더 잉 둥 당 스투령 정1 정1